

종범 스님(중앙승가대 명예교수)
깨달음의 3요소
'自淨 · 自見 · 自用'
7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12월 11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080호 2016년 1월 20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법구경〉
분에 넘치는 이익을 바라지 말라.
넘치는 이익은 마음을 어리석게 한다.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불교 호스피스 시설·인력 확충 '시급'

'존엄사법' 제정, 불교계 영향은?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법)이 19년 만에 국회서 통과됨에 따라, 올바른 호스피스 제도 정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에 호스피스 활동을 펼쳐온 불교계도 시설 확충, 프로그램 개발, 인적자원 확보 등을 실천과제로 제시해 눈길을 끈다.

지난 1월 8일 국회는 본회의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하 연명의료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2018년 1월부터 회생가능성 없는 환자는 조건적으로 심폐소생술·항암제 투여·혈액투석 등과 같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불교계는 '연명의료법' 통과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사)불교호스피스협회(회장 능행)는 "앞으로 불교적 호스피스·완화의료가 타 종교 의료시설에서도 보장되길 바란다"면서도 "환자의 임종판정을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한다는 점에선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임종 판정에 대해 환자와 가족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병원이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이관되지 않기 위해 판정을 지연·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불교호스피스협회는 보건복지부 주최 '말기암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 추진 TF회의', 2015년 3월 '호스피스·완화의료법 입법을 위한 국민본부 발기인대회' 등에 참석하는 한편, 각종 토론회 및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며 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관련 불교호스피스협회에서 '영적돌봄이'로 활동 중인 다경 스님은 "환자가 존엄사를 희망하고, 가족들이 부응할 때 '자리'와 '이타'의 큰 바퀴가 굴러간다"면서 "생명의 주인은 '나'란 것을 자각해야 한다. 무엇보다 환자의 선택과 결정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계는 2018년 '연명의료법'이 본격 시행되기에 앞서 △호스피스 시설 확충 △독자 프로그램 개발 △인적 자원 확보 등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우선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 및 시설들이 확보돼야 한다.

2018년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호스피스·완화치료 활성 '기대'
둥국대 의료원 중심 시설 늘려야
호스피스協, 복지부 법인 변경 추진

일본 한 병원에선 '호스피스 법당'을 별도로 두고 완화의료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동국대 병원 등 불교계 의료시설을 중심으로 호스피스 별도 병동을 구축하고 시범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불교호스피스협회는 인적·물적 자원과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불교호스피스협회는 "많은 병원서 영적돌봄가 스님을 요청하지만 현재로선 활동 능력을 갖춘 스님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종단은 종립대학 등에 재학 중인 스님들에 대해 호스피스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대구불교호스피스센터 지도법사 정법 스님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행정적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정법 스님은 "병원에서 영적돌봄가로 활동하기 위해선 교육 수료증 등 활동 증명서가 요구된다. 조계종복지재단서 교육 수료증 발급 등 운영했으나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태"라면서 "호스피스 활동 증명서 발급 주체기관을 명확히 하고, 분산된 교육 기관을 조계종복지재단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현재 불교계 호스피스관련 기관 및 의료시설에서는 어떤 대책을 구상하고 있을까?

불교호스피스협회는 전국 7개 지부 중심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확립을 위해 현재 울산시 산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것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호스피스교육, 활동가 양성교육 등 실시함으로써 지역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을 위한 연구·홍보 및 신도교육 지원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불교계 유일한 종립대학병원 동국대 의료원도 호스피스·완화의료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안책을 모색중 이다.

태석기 동국대 의료원장은 "몇몇 병원에 호스피스센터가 있지만 대부분 기부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익기반이 불안정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완화의료는 환자들 편의를 위해 일반 병동과 별도로 운영돼야 하는데 공간 확보도 어렵다"면서 "사회적 요청이 확산된다면 현재 동국대 일산병원 가정의학과에 개설된 '완화의학클리닉'을 중심으로 호스피스 제도 기반을 확장할 계획"이라고밝혔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사회 아픔 함께 하는 '희망의 길벗' 될 것"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13일 신년기자회견

사회문제 해결방안 제시 천명
노동위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
보육시설 및 특수출가 등 도입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공동체가 아파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헬조선'이란 말이 유행할 정도로 청년들의 실업문제와 계층간 격차가 점점 심화돼 가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의 역할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에 반성과 참회를 고백하며. 청년세대와 미래세대,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겠습니다."

조계종이 새해를 맞아 출산율 감소, 청년실업, 초고령화 등 사회문제 대처에 적극 나설 것을 천명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사찰 보육시설 확충' '은퇴 특수출가제 도입'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불교계의 사회기여를 위한 다양한 사업계획을 밝혔다.

'희망의 길벗이 되겠습니다'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진행될 조계종 2016종무기조는 크게 △사회와 이웃을 향한 나눔과 봉사의 불교 △지혜와 자비를 구현하는 사부대중 공동체 △불교중흥을 위한 지속적인 종단 혁신으로 구성됐다.

이날 자승 스님은 먼저 사회 현안 문제 대처를 위해 종단 내 구성한 노동위와 화쟁위를 확대해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기존 노동위는 사회노동위로 확대되며 환경, 노동, 인권, 종교평화 영역과 지역 단위 화쟁네트워크를 구성해 전문적인 문제도 풀어가도록 하겠다"며 "특히 청년세대와 미래세대에 대한 정책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심사찰을 중심으로 한 보육시설 확충, 해외입양과 낙태 문제에 대한 법회 교육, 은퇴자를 위한 특수출가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또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심사찰 내 햇빛집열판 설치를 통한 에너지 활용, 산사와 지역마을의 생태에너지 공동체 구축 등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에 진행되 온 34대 집행부의 핵심과제인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사업'의 진행, 승려복지제도의 확대, 교구본사 주지인사고과제 도입, 사찰운영위 제도 의무화 및 전산회계프로그램 보급 등도 공개됐다.

자승 스님은 "우리사회 전체가 맑은 향기를 뿜어내는 향기로운 사회를 건설하자"며 "화쟁적 관점으로 사회적 해법을 모색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갈등을 치유하는 불교가 되도록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해설 2면〉

글=노덕현 기자 · 사진=윤호섭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중점과제를 밝혔다.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후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서 결정
추진위, 자료공개·사이트 개설

한국의전통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위원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는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문화재청 제3차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심의결과 '한국의 전통산사'가 2017년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됐다"고 1월 8일 밝혔다.

'한국의 전통산사'는 2013년 12월 1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2014년 8월 6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국의전통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발족된 후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상태다. 추진위는 충북 보은 법주사, 충남 공주 마곡사, 전남 순천 선암사, 전남 해남 대흥사, 경북 안동 봉정사, 경북 영주 부석사, 경남 양산 통도사 등 7개 사찰을 등재대상으로 선정하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2002년부터 한 국가당 연간 1개씩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번 전통산사의 세계유산 등재 후보 선정은 전통사찰이 한국의 대표 문화유산으로 평가받았다는 반증이다.

문화재청은 올해 7월 추진상황 평가를 거쳐 2017년 등재신청서 제출, 2018년 세계유산 등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현재 기초연구과 완료된 상태로 이들 자료를 기반으로 2016년에는 '한국의 전통산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진정성 및 완전성 등을 보강해 등재신청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진위는 구랍 30일 '한국의 전통산사' 홈페이지(www.koreansansa.net)를 개설했다. 홈페이지에는 '한국의 전통산사'의 가치에 대한 설명과 7개 등재대상 사찰 소개, 자연환경, 역사, 가람배치, 문화재, 인물, 설화 등의 전반적인 내용이 담겼다. 노덕현 기자

목각불

목각 천불전
만불전 건립
대공덕을
발원하시는사찰
연락 요망
010-8617-5357

보련기획
사찰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 자동 연등 승강 장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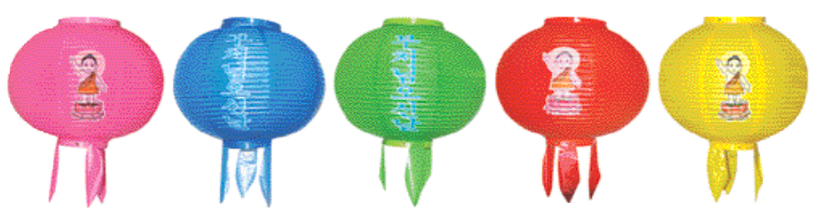
| 인등·영구위패 시공 |







만월등



정품 LED 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공단등



보련기획 H·P 010-9446-1862 / 전화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찬덕연등의 원천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

출가 감소 '은퇴 출가' 돌파구·사회 문제 적극 개입 시사

조계종 2016 신년계획, 무엇을 담았나?

사회기여 | 특수출가 도입, 사찰 보육원 설치
갈등해소 | 화쟁네트워크, '100년 약속' 선언
투명운영 | 회계시스템 보급, 운영위 의무화
지역협력 | 교구책임제, 균형발전계획 수립

불기 2560년을 맞아 조계종이 사회현안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목표 하에 새 종무기조를 발표했다.

전문직 은퇴자, 특수출가로 활용

가장 먼저 이번 조계종 신년계획에는 사회 고령화에 맞춰 은퇴 후 수행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에게 일정 자격과 전형을 통해 출가 할 수 있는 은퇴특수출가 제도가 눈길을 끈다. 이는 출가자 감소에 대한 대책이기도 하다. 조계종은 사회 고령화로 노령출가가 대폭 증가하자 1996년 출가 상한연령을 50세로 낮췄고 2002년에는 40세로 추가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출가자 급감하자 2006년 상한연령을 50세로 환원한 바 있다.

은퇴 특수출가는 기존 50세 이하 출가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보통의 출가자들은 행자교육원과 기본교육기관을 이수하고 비구 · 비구니계를 받아 정식 스님이 된다. 하지만 은퇴 특수출가는 이런 교육과정이 간소화된다. 조계종은 특수출가자들의 사회에서의 전문성을 고려해 전문분야에서 소임을 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전문직종의 은퇴자들에게 새로운 선택과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교육원은 공청회를 열고 종단 안팎의 목소리를 들은 뒤 11월 중으로 중앙종회에 특별법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원 측은 각 사찰의 법회 등에서 출가자 감소에 대응해 출가 홍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찰 보육시설 · 신재생에너지 도입

이와 함께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에너지문제 해결 방안도 공개됐다. 도심사찰을 중심으로 보육시설과 입양시설을 확충하고, 친환경 시스템 구축이 진행된다.

서울 종로와 광화문 업무지구의 중심에 있는 조계사가 현재 수유실을 만들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어린이집도 개설할 계획이다. 서울 불광사 또한 지난해 12월 사찰 혼례식을 대대적으로 여는 등 사찰 결혼문화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조계종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 집행으로 사찰의 동참을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또 조계종은 2016년 상반기 중으로 종단 내 신재생 에너지 도입 실태 파악 및 시설 적합성 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산사의 경우 사하마을과 협력하는 생태공동체를 구축한다. 현재 평창 월정사가 경내 태양광 시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나무 600여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종단 내 친환경에너지 도입으로 탈핵과 환경보존에 대한 목소리 또한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먼저 총무원이 위치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과 도심지역 사찰부터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양한 갈등 문제 해결에 앞장

이밖에 현재 종단 내 구성돼있는 노동위원회를 사회노동위원회로 개편하고 환경위, 인권위, 종교평화위 등 각 기구와 화쟁네트워크를 구축해 노동, 인권, 통일 문제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또 경색된 남북관계 상황에서 남북불교교류를 통해 분위기 일신에 나선다. 조계종 사회부와 문화부, 민족공동체추진본부를 축으로 4월 중으로 신계사 전각 공동조사 및 보수가 진행된다. 또 6월에는 북한 불교문화재 보존을 위한 남북불교교류가 진행되며, 2015년 무산됐던 통일기원 8 · 15 남북불교도합동법회도 재추진된다.

종단 내 갈등요소인 94년 멸빈자 처리를 위한 대중들의 공의도 모을 예정이다. 사부대중위원회가 3월 중 멸빈자와 개혁주체들이 만나는 토론의장을 열 계획이며 4월부터 5월까지 94년 종단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짚는 연속세미나도 열린다. 5월 멸빈자와 대중이 함께하는 성찰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8월에는 '종단화합과 개혁을 위한 100년의 약속'이 대중공사에 상정되며 이를 통해 9월 경 '100년의 약속'을 선언할 계획이다.

사찰 재정 투명화, 중앙 · 교구 협력 강화

조계종은 사찰예산 편성과 집행의 투명화를 위해 30억원 이상 사찰재정을 공개하고, 2억원 미만 사찰에는 1월 중으로 간소화된 전산회계프로그램을 보급하기로 했다. 또 사찰운영위원회 실효성도 강화하기 위해 미시행 교구 및 사찰의 주지 인사시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5년 째를 맞는 승려노후 복지제도의 정착을 위해 교구본사와 협력하는 교구책임제가 적극 도입될 계획이다.

또 중앙과 교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6월 중 교구본사 종무행정 사례를 분석하고, 8월 중으로 균형발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10월 중으로는 교구법 제정안 성안도 마련된다. 이 밖에 교구 중심의 사회복지시스템도 구축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관음종 올해 예산 47억 5800만원

승려교육 · 해외포교 강화, 일제 강제징용자 유골 환수도 추진

대한불교관음종(총무원장 홍파스님)은 올 종단 예산을 47억5800만원으로 확정했으며, 해외포교를 강화하고 복지사업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또한 승려연수교육도 강화키로 했다.

관음종은 1월 7일 총본산 묘각사서 종단신년하례 법회 및 제 53차 중앙종회를 열고 종단 예산과 주요 사업을 결의했다.

1백여 종도들이 참석한 신년하례법회에서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과거의 마음은 이미 지나간 것이어서 없고, 미래의 마음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니 없고, 현재의 마음은 수시로 바뀌니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한 생각 한 마음을 올 곧게 펼치고 정진하여 새해를 맞이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오후에 열린 중앙종회에서는 2015년도 결산예산인 44억2600만원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관음종은 주요 종책사업으로 승려연수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종단의 근간인 종지종풍에 대한 교육을 종단 스님들에게 강화함으로써 종단을 바로 세우자는 취지로 보인다. 이외에도 각 사찰의 종무행정 체계화에도 힘쓸 방침이다.

특히 최근 허위 발급으로 문제가 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 종단 소속 스님들이 장부 기재 및 관리 등의 실수로 인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종단 차원서 관리 방법을 교육시킬 계획이다.

해외포교 사업 강화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 해외포교 원년을 표방하며 라오스 소재 라오코리안 대학과 MOU를 체결한 바 있는 관음종은 저개발 국가의 젊은이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국불교문화를 소개하고 관음종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키로 했다.

사회복지법인 관음종복지재단 활성화에도 진력한다. 2014년 8월부터 CMS 후원계좌를 개설해 큰 성과를 거둔 관음종복지재단은 각 사찰서 비정기적으로 이뤄지는 보시 및 자선 행사의 경우 주체는 각 사찰서 진행하고, 재단은 후원단체로 참여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통해 재단 활성화를 독려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자 유골 환수 사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의 고국 귀환을 위해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김주일 기자



"어려움 극복하는 한 해로"

종단협 신년하례법회 봉행

한국불교 대표 종단 지도자들이 2016년 새해를 맞아 사회화합을 기원하는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이하 종단협)는 1월 12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단협 회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부회장 춘광 스님(천태종 총무원장), 회정 정사(진각종 통리원장)를 비롯해 김종덕 문광부 장관, 우병우 청불회장, 김종훈 · 류지영 등 국회 정각회 소속 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장 자승 스님은 신년 법어를 통해 "1236년에는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팔만대장경 불사를 시작했다. 2016년 또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역사적인 한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이사 사퇴 임기 순대로

11일 결의… 이사장 직무대행 성타 스님

동국대 이사 전원 사퇴를 위해 이사 · 감사 임기가 적게 남은 순서대로 사퇴키로 했다. 임기가 같을 경우 나이가 적은 사람이 먼저 사퇴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또한 이사장 직무대행에 성타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으며, 한만수 교수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청했다.

학교법인 동국대는 1월 11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제298회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3일 동국대 이사회는 임원 사퇴를 결의했으며, 이번 이사회를 통해 전원 사퇴 방식에 대한 원칙을 정했다. 이는 이사 사퇴 시 공백을 최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풀이된다.

실제 동국대 이사 정수는 13명으로 현재적이사는 9명이다. 명신, 삼보 스님의 후임은 결정되지 않았고 지홍 스님은 사퇴, 수불 스님은 이사직을 포기해 4명이 결원됐다.

법인 측은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이사 추천을 거쳐 추천되면 이사회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사 사퇴 시한은 명시 않았다.

이에 대해 법인 관계자는 "이사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점차적으로 이사와 감사가 사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사회는 한만수 동국대 교수협의회장과 정창근 교수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키로 최종 결의했다. 중징계는 정직부터 해임 등이 해당된다. 징계 사유는 동료교수 상해와 합법적 총장 이사장 선출 관련 부정적 의견 확산, 대학에 대한 직접적 비방 등이다.

교원 징계 및 직원 징계위원으로는 일면 스님, 돈관 스님, 김선근 이사가 새로 임명됐으며, 일반 직원 재심위원으로는 호성 스님, 김기유 이사가 위촉됐다.

이밖에도 교원임용과 관련해 미술사학과와 불교사회복지학과 임용은 유보됐으며, △경주병원 불용자산 폐기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정관시행세칙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이 원안대로 처리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6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혜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10명	
박 사 과 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❷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❸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❹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6년 2월 28일까지 수시전형

❺ 문 의 처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논현동 2-14 2층)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혜 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學大學)

“禪, 초지성주의 가르침” VS “무아로 마음 부정 ‘모순’”

‘깨달음, 어떻게 볼 것인가’ 논쟁 확대일로

홍창성 교수, 수불 스님 반론 비판
“禪門의 선민의식 무척 곤혹스러워”
김홍근·한자경 교수 재반론 이어가
“선학과 교학 병행 발전이 필요해”
정평불, 15일 ‘깨달음’ 주제 세미나
인문학적 접근통해 개념 논쟁 탈피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이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의 ‘깨달음은 이해로 증득된다’는 주장을 반박한 〈조계종지의 현대적 구현〉이 발표되면서 시작된 ‘깨달음 논쟁’ 열기가 식을줄 모르고 이어가고 있다.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고경〉에 현응 스님을 비판하는 기고를 발표했고, 불교계 학자들도 논쟁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 1078호 1면, 1079호 3면 참조〉**

현재 논쟁은 온라인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홍창성 미국 미세소타주립대학 교수는 교계언론 〈미디어붓다〉에 기고한 글을 통해 수불 스님의 반론을 재비판했다.

홍 교수는 자신의 기고문 ‘초(超)지성주의와 반(反)지성주의’을 통해 “현응 스님의 ‘이해하는 깨달음’이 반지성이 아니라 초지성의 영역임을 보여주는 올바른 견해”라면서 “나아가 중생의 역사현장에서 깨달음을 적용하고 실천하며 옳음을 확인하고 깨달음의 깊이를 더해가야 한다는 현응 스님의 주장은 재가자들에게는 합리적인 수행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수불 스님과 한국 불교의 선문(禪門)에 대해서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 홍 교수는 수불 스님의 ‘깨달음이란 마음을 깨닫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선문에서 말하는 참나 또는 청정한 마음에 대해 기술한 바라문교서 말하는 아트만(Atman)에 대한 기술과 다르지 않다”면서 “석가 세존은 아트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아를 설파해 논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문에서 강조하는 깨달음의 경험은 ‘철학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신비한 체험을 통한 깨달음을 인정하는 선문의 방법으로는 21세기 사람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간화선 수행자인 김홍근 동국대 불교학과 겸임교수는 세존의 무아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맞불을 놨다.

김 교수는 본지에 기고한 ‘호선론(護禪論)’을 통해 “(홍 교수가)선문을 비판하기 위해 가져온 ‘세존의 무아론’은 진짜 부처님의 무아론이 아니라 홍 교수의 머리에서 나온 ‘단멸무아론’일 뿐”이라며 “무명칠통을 부수고 전도몽상에서 깨어난 선사들은 ‘불이법’을 ‘마음’이라고 불렀다. 불조께서 연기중도의 불이법을 깨닫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사용한 다양한 방편의 이름 중 하나가 무아요, 마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홍 교수의 화두관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김 교수는 “수 백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일생을 걸고 도전한 것이 ‘마음’인데 이를 책 몇 권을 읽고 날로 먹으려는 것은 진리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면서 “홍 교수는 화두를 넌센스로 보고 있다. 넌센스를 통해 깨닫는다면 생사문제 해결을 위해 출가 수행자가 될 이유도 없어진다”고 비판했다.

한자경 이화여대 교수도 홍 교수의 주장에 반론문을 〈미디어붓다〉에 발표했다.

또한 한 교수는 한국불교가 교학과 선학을 병행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훌륭한 교학자는 지도를 가르치면서 산에 갈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자이고, 좋은 선승은 지도에서 못 보던 산수를 생생하게 즐길 수 있게 산길을 안내하는 자”라면서 “지도보기와 등산하기, 이해와 깨달음, 교학과 선학은 그렇게 함께 해야 한다. 둘이 함께 발전해야 한국불교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깨달음에 대한 개념 논쟁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도 이뤄졌다. 정의평화불교연대(대표 이도흠)는 1월 15일 ‘지금 여기에서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세미나를 불기2560년 성도재일 맞아 개최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이도흠 한양대 교수는 이해와 선정을 넘어 불법(佛法)의 진여 실재에 다다르는 길이 무엇인지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언어와 의식에 기초한 이해의 방식으로는 진여 실재에 이를 수 없다. 하지만 언어가 몸과 삶을 바탕으로 사고를 구성하고 촉진하는 것은 일정 정도 사실이기 때문에 언어와 의식을 전적으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응 스님은 전자를 수용해 언어와 의식을 벗어나지 못한 이해로는 궁극적 진리에 이를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하며, 수불 스님 등 간화선을 옹호하는 이들은 후자를 수용해 언어와 의식을 사다리로 삼아 진리에 이르는 방편을 깨달음의 또 다른 방식으로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수행의 최종 목표는 중생의 고통을 직시하고 극복해 열반에 이르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교수는 “이 시대 수행자로서 보살은 수행과정에서 간화선을 비롯한 대승의 수행방법에 기반한 정신적인 수행과 일상의 삶 속에서 자비심을 실천하는 몸의 수행을 동시에 포용해야 한다”면서 “몸과 마음의 불이적 관계성에 관한 인식과 실천, 수행 과정과 깨달음, 이 순간의 자비의 손길이 구체화됨으로서 한국불교는 종교이면서 철학, 윤리의 보고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기고문 27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자비나눔 ‘화제’

2013년 장학회 결성…경주 동국대와 자매결연 후원

장학금 지급 등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지원장 혜안 스님)의 나눔 선행이 지역민들에게 훈훈한 미담으로 화제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은 1월 10일 대웅전 법당서 일요 법회 후 인근 호계고 3년 김원철 군(중앙대 입학)과 김주희 양(부산교대 입학)에게 각각 3백만원씩 장학금을 수여했다. 특히 이날 장학금은 신도회측서 동지팥죽을 팔아 남긴 수익금을 한데 모은 것이다. 이날 혜안 스님은 “우리 선원은 동지를 비롯해 산사음악회 등 각 행사때마다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아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지원이 이처럼 장학회를 결성한 것은 2013년 3월. 개원 이래 신도 자녀 및 인근지역 학생중 형편이 어려운이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해오다 체계화된 조직의 필요성을 느껴 창립됐다. 울산지원장학회는 결성 후 한 구좌를 3천원으로 정해 기금을 적립하고 해당학교에 추천 받아 지급하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4명의 고등학생들에게 각각 3백만원씩 전달했다. 또한 2014년에는 경주 동국대와 자매결연을 맺고 장학금을 후원했으며,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에도 소정의 금액을 기부하는 등 울산지역 자비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김주일 기자**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은 1월 10일 대웅전 법당서 장학금을 지급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원철 군, 혜안 스님, 김주희 양.

봉은사, ‘타 사찰 및 남성 신도’ 증가 추세

2016 1월 〈봉은판전〉서 ‘2015 새신도 센서스’ 결과 발표

‘봉은사역’ 신설로 접근성↑ 영향
2015하반기 1,021名 신도 등록
새 신도 中 남성 17% 차지 ‘눈길’

지난해 서울 봉은사에 신규 등록한 신도들은 어떤 이유와 경로로 봉은사를 찾았을까?

2015 하반기 봉은사 신도로 1,021명이 신규 등록했다. 이중 17%(170명)는 남성이며, 타 사찰 재적 신도가 5%의 비중을 차지한 점이 눈길을 끈다.

타 사찰로부터 유입된 신도 수가 증가 추세를 나타낸 점은 지난해 ‘봉은사역’ 신설에 따른 접근성 향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봉은사(주지 원명)는 2016년 1월 〈봉은판전〉을 통해 ‘2015 새신도 센서스’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는 봉은사 새 신도(2015년 7월부터 12월 15일 등록기준) 1,021명에게 ‘봉은사 신도가 된 이유·경로’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다.

응답자들은 ‘어떻게 봉은사 신도가 되셨나요?’란 질문에 가족권유(40%), 친구권유(30%)에 이어 사찰소식지(약 4%), 홍보물(약 3%), 기타(20%)라고 답변했다. 특히 사찰소식지와 홍보물은 인터넷(약 1%), TV(약 1%)보다 높게 나타나며, 불교 포교에서 오프라인 매체가 여전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



봉은사에서 한 불자가 신도로 가입하고 있다. 봉은사는 2015년 하반기 1,021명이 새신도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응답자 가운데 5%가 다른 사찰에 재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봉은사 측은 “최근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 개통으로 인해 접근성이 높아진 한편, 최근 ‘강남스타일’로 대표되는 ‘K-컬처’에 연유한 후광효과로 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아울러 새 신도 가운데 17%인 170명이 남성 신도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김철동 봉은사 신도회 부회장은 “젊은 시절 사회생활을 주로 하던 남성들이 중년이 되면 갈 곳이 없어진다. “그런 면에서 남성들의 신도등록 계기 중 ‘불교관심’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봉은사 신도가 된 이유’란 통계 결과는 기도·불공 63%, 교육 11%, 참선 10%, 불교관심 9%, 법회 4%, 봉사 3% 등으로 나타났다. 종교의 본질은 기복신앙서 비롯되기 때문에 ‘기도·불공’이 1위를 차지한 데는 이변의 여지가 없으나, 이 가운데 ‘교육’이 2번째 이유로 선정된 점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 봉은사 측은 “봉은사가 교육도량이라는 점을 입증한 결과”라면서 “뒤이어 ‘참선수행’과 ‘불교관심’이 각각 10%, 9% 수치를 나타낸 것은 신도들의 교리적 이론에 대한 목마름을 반증한 것”이라 자평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종회, 종헌종법 상치 종령 전면 검토키로

종헌종법과 상치되는 종령에 대한 전면검토가 시행된다.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위원장 함결)는 1월 11일 제8차 회의를 열고 종헌종법과 종령 간의 상치된 부분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종회에 법안 개정을 제안하기로 했다.

이날 함결 스님은 “종헌종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종령이 많은 상황”이라며 “분기별로 이런 법령을 검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종회 전 총무분과회의는 타 분과회의가 다루지 않는 여러 사안을 함께 다뤄야 한다”며 “중앙선관위 등에도 업무사항에 대해 질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총무분과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영담 스님이 조계종 중앙종회의 의원 제명 결의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징계사유가 명확하다고 재확인 했다.

이와 함께 제주 관음사 주지 후보자격심사 이의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소관사항과 선거 과열양상에 대한 종회차원의 대응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회의에는 위원장 함결 스님과 간사 화림 스님을 비롯해 진화, 동산 스님 등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강남 생활권 제2종 주거지역 및 2차선에 접한 과천토지 매각!

-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정책에 따른, 제2의 강남인 과천에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 -

과천시 2020핵심전략 1순위 -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

“그린벨트 규제완화 최대 수혜지 예상지-과천”



국토부, GB 해제 집단취락지역 실태조사 실시!
재산권 행사 허용 등 규제 개선으로 개발 탄력 받을듯...

- 국토부, 주민 실태조사 중으로 개선안 마련계획 (2015-05-21 한국경제)
- 30만㎡이하 지역에 대한 해제 권한, 국토부에서 지자체장에게 이관
- 경기도 그린벨트 해제 절차 진행중 (7곳 해제, 12곳 용역 검토중)





과천 강남벨트화 구상

●과천 “강남벨트 조성” 구상으로 지하철 신분당선 양재IC역 또는 3호선 양재역 연결 추진 등 개발제한구역에 신시가지 조성 구상으로 강남을 연계한 One-Set City조성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상태
●과천시-경기도시공사와 지역개발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글로벌 비즈니스타운 조성계획(주암동,과천동/ 약 800,000㎡)
▶지식정보타운 주택지구 및 지하철역사/ 과천화훼종합센터 추진
▶과천시-경기도시공사, 체계적 지역개발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부동산 매각개요

■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일대(도시지역 자연녹지) - 그린벨트

구 분	공급면적	매각가
A블럭	330㎡	1억 2천만원
B블럭	330㎡	1억 1천만원
C블럭	330㎡	1억원

■ 청약금: 100만원 ▶농협 355-0038-4227-43 (주)경기토지개발

※인접 토지의 경우, 1,500~3,000만원의 시세가 형성중 (공시지가 : 700~800만원)

3.3㎡당 100~120만원
(분양단위 : 330㎡)

시행사 (주)경기토지개발 ■소유권 등기: 법무사

청약신청 (현장관리자) 02)2058-0132

일 주 문



대충대종사 탄신 봉축법요

춘광 천태종 총무원장 스님은 1월 14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대충대종사 탄신 90주년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신년법회 및 임원연수

김상인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은 1월 30~31일 공주 마곡사에서 '2016년 신년법회 및 임원연수'를 봉행한다.

손제석 위덕대 명예총장 별세



손제석 위덕대 명예총장〈사진〉이 1월 11일 별세했다.

1931년 출생한 고인은 서울대에서 수학하며 정치학 석 · 박사를 받았다. 1959년부터 모교인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사회과학대학장을 지냈다. 1985년 제27대 문교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을 거쳐 1996년 개교한 위덕대 초대 및 2대 총장을 역임했으며, 이후 위덕대 명예총장으로 추대됐다.

빈소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에 마련됐으며, 14일 발인했다. 위덕대는 교내에도 별도의 분향소를 설치해 고인을 추모하기로 했다.

신성민 기자



콘서트에 출연하는 스님들이 홍보책자를 든 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가 · 자명 · 태현 스님.

'가족愛' 퓨전국악 콘서트 열린다

현대사회 가족공동체 개념이 약화되면서 가족구성원 간 소통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스님들이 '가족애'를 주제로 한 콘서트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

영덕 기원정사 주지 자명 스님은 1월 30일 오후 7시30분 서울 국립극장 KB국민은행 청소년하늘극장에서 국악퓨전 땡큐붓다 콘서트 '날마다 하늘만큼 환히 웃으소서'를 개최한다. 이 콘서트는 '문화공양주' 자명 스님이 가족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엄마', '가족사진',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등 가족을 소재로 한 곡을 중심으로 기획했다.

특히 힐링멘토 마가 스님의 짧은 법문과 명상음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태현 스님의 음성공양도 선보일 예정이다. 더불어 김호철 테너, 박자희 소리꾼, 이지영 뮤지컬 배우 등이 출연해 수준 높은 공연을 선사한다. 자명 스님은 서울공연 이후 부산 · 울산 · 대구 · 광주 · 원주 · 청주 등 7개 도시에서 순회공연을 펼치고, 공연 수익금 전액을 BBS불교방송에 후원해 방송포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윤호섭 기자

"항일운동 거점 '호국사찰' 선양"

항일운동불교선양회 조환기 발기인 대표



항일운동 스님 등 업적 계승 목적
1월 11일 발기인대회, 27名 등록
"독립운동, 평화 · 상생 위한 것"
학술세미나 · 다례재 등 개최 예정

"역사적으로 불교계에는 독립운동에 참여한 승려 및 재가자들이 많습니다. 독립운동은 국가와 민족을 되찾기 위해 시작된 것이지만, 불교는 그 내면의 '평화와 화합, 상생'이란 뜻을 두고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깊은 의미를 국내를 비롯해 중국 · 일본 등에도 선양하고 싶습니다."

조환기 항일독립운동불교선양사업회(사진 · 가칭, 이하 항일운동불교선양회 · 前 동명대 교수) 발기인대표는 1월 11일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출범 취지를 밝혔다. 항일운동불교선양회는 항일독립운동을 펼친 불교계 스님들과 재가자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 · 선양키 위해 창설된 단체다. 정식 발기인은 27명이다.

"항일운동에 참여한 불교계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업적은 묻혀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숨 쉬는 전국 사찰과 스님 및 재가자들을 찾아서 발굴하고, 후세들에게 그 뜻을 계승하고자 합니다."

조 대표의 이러한 뜻은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다. 10여 년 전 전국 사찰을 다니던 중 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고, 그 때 불교의 항일운동 역사를 접하게 됐다. 많은 사람들이 선양사업에 뜻을 두고 있었지만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점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예를 들어 사천 다솔사와 고성 옥천사는 '호국사찰'로서 독립운동의 근거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 가치는 점점 잊히고 있습니다. 옥천사는 진주보훈지청서 현충시설물로 지정했다는 팻말 표시만 있을 뿐입니다. 올해는 이러한 사찰들을 거점으로 세미나 등을 실시하며 호국불교 정신을 널리 알릴 것입니다."

항일운동불교선양회는 1월 중 국가보훈처에 사단법인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공식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독립운동을 펼쳤던 불교계 유적지가 도로 이정표에 표시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학술 세미나 · 다례재 등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조 대표는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 일본 등과 교류를 통해 호국불교 독립운동 의미를 널리 알리고 싶다"는 바람도 덧붙였다.

"역대 선승들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앞장섰던 것처럼 현대 한국 불교계도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인간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속세와 더불어 살아갈 뿐입니다. 사회 부조리에 대해 저항하고, 세상에 등을 밝힌단 마음으로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밖에도 조 대표는 최근 불거진 일본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정부 정책 등에 대한 개인적인 뜻을 밝혔다.

"한일 정부의 합의가 피해자와 아픔을 함께 나누고 어루만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항일운동불교선양회 법인화 추진에 집중하고 있지만, 향후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사회 갈등문제에 대해 불교계 재가단체들과 뜻을 모아 함께 활동하고 싶습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젊은 불자 교사 발굴에 최선을"

전국교사불자연합회 배한욱 제10대 회장



1월 24일 해인사서 취임식
지부 활성화 · 성지순례 계획
수준 높은 수행프로그램 마련도

"젊은 불자교사들을 확보하기 위해 진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대표님들을 찾아 그 방안을 의논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0여 명의 전국 불자교사들의 수행모임인 전국교사불교연합회 제10대 회장으로 부산 금정중 배한욱(59 · 사진) 교사가 선출됐다. 이취임식은 1월 24일 해인사에서 열리는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직무연수에서 진행되며 임기는 2년이다.

배 신임회장은 젊은 불자 포교뿐 아니라 각 지역 지부 활성화와 성지 방문을 통한 신심 독려 등을 주요사안으로 꼽았다.

"교사불자연합은 학생들을 불심으로 지도할 뿐 아니라 수행과 봉사로 행복의 길을 찾아가는 모임입니다. 군부대 포교 및 다문화 가정교육, 교도소, 사찰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독려하며 지부 활동을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먼 거리의 해외 불교성지 방문을 지양하고 캄보디아 같이 짧은 여행지를 선정해 많은 선생님들이 부담 없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배 회장은 특히 "전국교사불자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위해 앞으로 더욱 연구하고 수준 높은 교육과 수행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배 회장은 어릴 때부터 불교집안에서 성장했으며 20대 군복무 시절 적극적인 신행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 용산 육군본부 중앙법당 제32대 법우회를 시작으로 포교활동에 동참했다. 제대 후 부산 불교학생회 지도교사, 범어사 중학생회 지도교사, 사)부산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사무국장, 부산시교류불자연합회 ·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06년 문화부장관 표창, 2011년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하성미 기자

불자장성들 조계종 총무원 예방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정우 스님과 현 · 예비역 장성, 각군 군승 대표들은 1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자승 스님은 "국군이 있기에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 평화가 지속되도록 계속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한국문화연수원, '모금함' 자비행



한국문화연수원(원장 구과)은 1월 12일 (재)아름다운동행 측에 자비나눔 기금 174만8000원을 전달했다. 한국문화연수원 내 비치된 아름다운동행 모금함을 통해 마련된 이번 기금은 국내외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구과 스님은 "모금함을 통해 기부하게 돼 매우 뜻깊다. 앞으로도 기부에 동참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 스님은 "금액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박아름 기자

불교인권위-청렴코리아 MOU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는 1월 13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청렴코리아(상임대표 정완규)와 업무협약을 맺고, 부정부패 없는 사회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윤호섭 기자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謹賀新年

대한불교천태종
포항 황해사
주 지 이문덕
신도회장 최병렬
국내최초
「관음33응신불」봉안
■ 경북 포항시 북구 학잠동 169-3
TEL 054)277-3611~3 / FAX 054)277-3644

대한불교조계종
임 휴 사
주 지 보정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321
TEL 053)632-4844,641-4844 / FAX 053)639-5033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수진)가 1월 10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 '도전 범종을 울려라' 퀴즈대회에서 홍법사 신도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날 퀴즈대회는 성도의 참의미를 되짚는 흥겨운 자리가 됐다.

'퀴즈열전' '태극기 춤사위' … 成道는 환희다

전국 각지 성도재일 기념 다채로운 행사 '눈길'

"하늘에선 꽃비가 내리고, 아름다운 천신(天神)이 춤과 노래로 기쁨을 표현합니다. 천 년 한 번 핀다는 우담바라는 그 아름다운 꽃망울을 보이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이 우러러 합장을 합니다."

2500여 년 전 부처님 성도의 환희와 감동을 기념하기 위한 성도재일 행사가 대규모로 열려 눈길을 끈다.

부산, 퀴즈대회 및 생명사랑 철새먹이 지원

부산지역에서는 시민 3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부처님의 성도 의미를 되새기는 퀴즈대회가 열렸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수진)는 1월 10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제5회 성도재일 기념대법회' 및 '도전, 범종을 울려라' 퀴즈대회를 열었다. 이날 퀴즈대회는 대중이 일심으로 부르는 석가모니불 정근으로 가득 채워졌다.

먼저 1부 행사로 진행된 법회에서 증명법사로 나선 쌍계총림 방장 고산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과 역대조사, 그리고 훌륭한 사람을 따라 정진하면 자신도 그와 같이 될 수 있음을 알고 노력 정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연합회장 수진 스님은 "처절한 수행으로 대법왕이 되신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해 인류의 역사뿐 아니라 대천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위대한 성자"라며 "부처님의 사상과 철학으로 행복을 얻는 사부대중이 되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성도재일을 기념하는 이 기쁜 날에 우주법계에 진리의 광명을 비추신 큰 스승 부처님을 찬탄한다"며 격려했으며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도 "성도재일 기념법회를 통해 성도의 의미를 이해하고 수행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2부 '범종을 울려라' 퀴즈대회에는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대광명사, 홍법사, 보림사, 수도사, 해인정사, 관음사 등 다양한 사찰에서 팀을 이뤄 출전했다. 모든 팀은 3인1조로 참석했으며 팀당 청소년이 한 명씩 포함됐다. 퀴즈대회에서는 탈락자가 생겨도 아쉬움의 목소리가 없었다. 모든 대중이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문제를 풀며 흥겨움과 즐거움을 함께 했다.

최종 우승은 부산 보림사 관음회 이상종 팀이 차지했다. 45문제 중 44번째에서 우승 향방이 결정됐다. 해인정사(주지 수진) 해인팀이 준우승, 수도사(주지 일철)의 달마야놀자팀이 3위를 차지했다. 우승팀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부상으로 에어부산 국내왕복항공권 3매를 지급했으며 우승한 팀의 청소년에게는 부산시교육감상이 수여됐다.

이날 조계종부산연합회는 부산시에 나눔성금 1000만원을 전달해 성도재일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이에 서병수 부산시장은 조계종 부산연합신도회에게 부산시장 표창을 전달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대한 공로를 치하했다.

조계종 부산련, 10일 퀴즈대회 개최
부산불교연합회, 14일 철새먹이 전달
광주불교연합회, 9일 불자대상 시상도

한편, 성도재일을 맞아 생명사랑을 실천하는 행사도 개최됐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수불)는 1월 14일 부산시 낙동강 에코센터에 겨울철 철새들의 먹이로 고구마 2000kg을 전달했다. 낙동강에코센터는 '철새사랑 곡류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번에 전달된 사료는 2015부산송구영신한마당에서 부산시민들이 모은 자비의 동전 80여 만 원과 범어사, 영주암, 홍법사 등 지역사찰에서 기부한 기금으로 구입한 것이다.

광주, 연합대법회 개최… 불자대상 수여도

광주지역에서는 성도재일을 맞아 법회와 함께 불자대상 시상식과 문화공연이 펼쳐졌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 증심사 주지)와 광주지역 불교단체는 1월 9일 광주시청 대강당에서 '불기 2560년 부처님 성도재일 연합대법회'를 개최했다.

800여 불자들이 운집한 이날 연합대법회에서는 특히 2015년 광주지역 불교를 빛낸 빛고을불자대상 시상식과 함께 이범식 초대 광주불교연합회 신도회장의 취임식도 함께 열려 기쁨을 더했다. 아울러 연화사 유치원생의 부채춤과 태극기 및 불교기 퍼포먼스도 펼쳐졌다.

회장 연광 스님은 "성도재일을 통해 큰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불교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주민과의 상생하는 공동체 형성에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이범식 초대 광주불교연합회 신도회장은 "광주지역은 무등산, 제석산, 서방, 극락강, 염주 등 중요한 지명이 모두 불교를 연원으로 한다. 이런 역사를 바탕으로 신도회는 출가 수행자를 호법하고, 불교단체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불교가 중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의 소감을 말했다.

광주불교연합회는 이를 위해 봉축행사인 빛고을관등회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전통행사를 진행하며, 광주전남지역 공동모금단체인 빛고을나눔나무를 통해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사업을 지속한다. 또 각 직장직능불자회 활성화, 청년불자 양성을 위한 불교학생회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회에서 열린 '2015빛고을불자대상' 시상식에서는 30여 년 가까이 광주지역에서 불교 교육사업에 헌신한 정의행 불자와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 후원회장 김은희 불자가 공동으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특히 최근까지 세월호 관련 시민활동을 펼쳐 온 정의행 불자는 혈액암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시상식과 함께 어린이 · 청소년 불자를 위한 조계종 광주승보회 회원들의 장학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승보회 회원 사찰들은 10여 명의 어린이 불자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행사의 대미는 광주불교연합회 운영위원 스님들의 예불로 마무리됐다.

하성미 기자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불교연합회가 9일 개최한 법회에서 부채춤을 선보이는 연화사 연화유치원생들.



광주불교연합회 연합대법회에는 800여 불자들이 운집했다.



부산불교연합회 스님들이 낙동강에코센터를 찾아 철새 현황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구국성사 용성진종대종사 대각사상으로
수행 · 포교하는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2016년 새해에도 부처님의 가피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이	사	불심 도문	이	사	월천 혜총
이	사	봉안 효경	감	사	여천 무비
이	사	서해 흥교	감	사	월암 덕상
이	사	선효 성학	용성문도회		회장 수불
이	사	장산 도업	174개대각회분원		회장 지암
이	사	서주 태원	사무국장		보관 김형문
이	사	금아 혜국	종무실장		지선 안향호
이	사	장산 성춘	간	사	정안성 장유경
이	사	무심 보광	간	사	보문성 김성숙
이	사	벽암 지홍	간	사	보리심 장예윤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이사장
목동 법안정사 · 횡성 대각정사 주지 월천 혜총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71 Tel (02)765-2701, Fax (02)741-1385

고정관념 벗어난 시간… "또 다른 나 발견"

한마음선원 본원 청년회, 1월 8~10일 부산지원서 '겨울수련회'

대행 스님 말씀 큰 주제로 진행
"통에서 벗어나야 굴릴 수 있다"
'팔정도' 프로그램 이색 '눈길'
"내 안의 불성 존재에 믿음 생겨"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이 1월 8~10일 부산지원에서 '청년회 겨울 수련회'를 개최했다. 9일엔 부산역 광장에서 플래시몹 공연을 선보였다.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이 1월 8~10일 부산지원에서 '청년회 겨울 수련회'를 개최했다. 본원 청년회 법우 8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통에서 벗어나야 통을 굴릴 수가 있다"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는 대행 큰스님의 말씀인 "마음이란 체가 없기에 우주로 벗어날 수도 있는 것이니, 넓고 지혜롭게 생각한다면 통에서도, 굴레에서도, 또 창살 없는 감옥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굴릴 수 있겠는가"란 가르침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에 대해 한마음선원 측은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처해있는 현실 속 고민들에 대해 외부 환경을 탓하지만 근본적 해결은 자신이 바뀌는 데 있다"면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자신의 고정관념들, 생각과 집착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돌려놓길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2박 3일 간 진행된 각각의 프로그램은 '팔정도(八正道)'를 작은 주제로 구성됐다. 우선 참가자들은 각자의 '정념(正念, 바른생각)'을 찾고자 10개 조로 나뉘었다. 정진 · 관념 · 미래 · 인연 · 습관 · 화 · 결혼 · 한계 등 주어진 10개 주제 중 자신이 참구(參究)하고 싶은 것을 고른 후, 같은 화두를 가진 사람들끼리 한 조가 됐다.

또한 '정사유(正思惟, 바른 의사)'를 주제로는 '만(萬)가지 미(味)'란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법우들은 속이 보이지 않는 여러 개의 음료수병 중 1개를 고른 후, 자신의 컵에 따라 마셨다. 시음 후 참가자들이 서로 마주서 '윤회절'을 올리는 동안 스님이 음료가 남은 컵에 맑은 물을 부었고, 절을 마친 청년들은 한층 열어진 컵 속 음료를 다시 마셨다.

이에 대해 청년회 법사 혜은 스님은 "구정물에 새 물을 부으면 맑아지는 것처럼 끊임없이 바른 마음을 내고, 바른 길을 가고자 노력한다면 스스로도 차츰 맑아지고 열어질 것"이라며 가르침을 전했다.

특히 이튿날 오후 1시에는 부산역 광장에서 플래시몹 공연을 선보였다. 정혜심 법우의 '홀로 아리랑' 공연에 이어 청년회 풍물패의 길놀이, 선법가 '대장부', 율동과 함께 가수 이문세의 '이 세상 살아가다보면' 부르기 등이 진행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밖에도 청년들은 스님과 담선, 부산 시내 둘러보기, 통도사 진신사리 참배 등 시간도 가졌다.

김정은 법우(여 · 25)는 "나는 그동안 통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단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또 다른 차원의 나로 거듭난 것 같아 마음이 풍요롭고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배득렬 법우(남 · 25)는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법우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위해 마음 낼 수 있던 시간"이라며 "이번 계기로 내 안에 모든 것을 갖춘 불성이 있다는 믿음이 조금이나마 굳게 섰다.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수련회 동안 쓴 노트를 보며 다잡아야겠다"고 웃어보였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은 "본원 청년 법우들이 부산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다"면서 "주인공은 우리 마음의 근본, 공한 자리다. 보고 듣는 모든 것을 근본의 공한 자리에 놓고 또 놓아서 자신의 생각과 관념에서 자유로워지길 바란다"고 환영을 표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캄보디아 주민 힘모아 '공부방' 문 열다

위드아시아, 구랍 30일 찌삐여이 마을 '우리공부방' 완공식

불교계 국제개발협력NGO '위드아시아'가 캄보디아 찌삐여이 마을 주민들 및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지었다.

(사)위드아시아(이사장 지원)는 캄보디아 쁘레이벵주에 위치한 찌삐여이 마을에 '우리공부방'을 건립하고, 구랍 30일 완공식을 개최했다.

위드아시아는 2013년부터 공부방 운영 · 지원해왔으나, 마을 주민들이 공부방 건립을 요청하며 토지를 기증하는 등 수요가 급증했다. 이에 기존 공부방 규모를 확장한 것이다.

위드아시아 측은 "찌삐여이 마을 주민들은 공부방 건립 기금을 마련하는 동안 부지 정돈, 책걸상 보수 및 제작 등 실시하며 함께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은 직접 공부방 주변에 대나무 울타리를 설치하고, 아이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등 공부방 운영에 협조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사장 지원 스님은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 만든 공부방에서 아이들이 따뜻한 마음을 배우고, 더 큰 꿈을 꾸길 기원한다"면서 "위드아시아는 아이들 꿈을 응원키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사)위드아시아는 아시아 지역 및 국내 빈곤 ·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불교계 국제개발협력NGO 단체다.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의 '2015 NGO 및 복지단체 지원 공모사업'인 '찌삐여이 마을 공동체형성 프로젝트' 일환으로 '우리공부방' 건설을 실시하고 있다.

박아름 기자


(사)위드아시아(이사장 지원)는 캄보디아 쁘레이벵주에 위치한 찌삐여이 마을에 '우리공부방'을 건립하고, 구랍 30일 완공식을 개최했다.

불교통번역봉사자 교육 5기 모집

샤카디타코리아, 총 12주 과정

샤카디타코리아(지부장 조은수)는 오는 2월 25일까지 불교통번역자원봉사자 양성프로그램인 'G.E.P' 5기를 모집한다.

G.E.P는 국제대회에서 영어 통번역 자원봉사를 하게 될 봉사요원을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총 12주 과정이다. 3월 5일부터 매주 토요일(부처님오신날 제외) 오전 9시 10분 서울 법룡사에서 열린다.

교육주제는 △불교와 여성 △중국의 변화와 우리의 주체적 수용 △외국인이 본 한국의 젊은이 △세계 불교여성 현황 등이다.

수료자는 수료증을 받으며 국제대회 통번역 봉사 참여 시 봉사확인서가 발급된다. 희망자는 홈페이지(www.sakyadhita.kr)에서 신청서를 받아 이메일(sakyadhita.korea@gmail.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윤호섭 기자**

제주 해군기지 법당 해관사 낙성

대웅보전 92평 · 요사채 87평 규모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 소재 제주 민 · 군 복합항 해군기지에 군장병들을 위한 전법도량이 문을 열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1월 9일 제주해군기지에서 군법당 해관사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해관사는 화합과 공존이라는 목적 아래 국군장병과 지역주민을 위한 수행과 포교의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낙성됐다. 특히 대양으로 뻗어나가는 해군과 국가의 발전을 축원하는 의미도 담겼다.

해관사는 대웅보전 92평, 요사채 87평, 회랑, 외부 화장실 등 군예산 22억원으로 건립됐다. 지난 2014년 1월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이 현장 방문 후 설계를 지도하고, 같은 해 8월 착공한지 1년 5개월만이다. 하지만 불상 등 법당 내부 조성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군종교구 차원의 모연을 통해 불사금 5억여 원을 마련, 삼존불과 닫집 · 불단 · 단청 등을 조성했다. 특히 조계종 원로의원 도문 스님이 신중 · 지장탱화, 前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이 호국범종,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이 삼존불과 불단, 약천사 주지 성원 스님이 후불탱화를 후원했다.

낙성법회에서 원로의원 도문 스님은 "성현들이 세간에 출현하심은 모든 생명에게 이익과 안락을 주기 위함"이라며 국가 및 부대 발전 위한 노력과 불사에 동참한 사부대중의 노고를 치하했다.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국가 중요시설인 해군기지에 많은 역경을 딛고 해관사가 완공됐다. 지역주민과 함께 국군장병이 부처님 품안에서 따뜻한 병영생활을 할 수 있는 도량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관사 혜정 지도법사는 "낙성을 통한 인재불사를 시작으로 해관사는 군장병과 지역주민의 수행과 포교의 도량으로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1월 9일 제주해군기지에서 군법당 해관사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한편 낙성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도문 스님 ·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 · 제주 약천사 주지 성원 스님 · 제주사암연합회 스님과 해군 제7기동전단장 남동우 준장 · 공군본부 군종실장 각원 법사 · 해군 및 해병대 군승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1천만 시민 발로써 전법 이어나갈 터"

서울메트로법우회 제7 · 8대 회장 이취임

천만 서울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서울메트로 소속 불자들이 병신년 새해를 맞아 새 회장단을 꾸리고, 끝없는 전법 · 포교활동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서울메트로법우회는 1월 12일 오후 7시 지하철 종합운동장역사 내 법당에서 '불기 2560(2016)년 1월 정기 신년법회 및 제7 · 8대 회장단 이취임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덕산 스님과 봉은사 포교국장 환성 스님,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 선진규 봉화산 정토원장, 서울메트로법우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제8대 회장에 취임한 김영만 회장〈사진〉은 취임사를 통해 "천만 시민의 교통중심 역할을 하는 서울메트로법우회원들은 수행과 포교를 하나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다"면서 "오늘이 있기까지 보살행으로 노력하신 지도법사스님과 회장단, 법우님들에게 감사드리고,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밝히자"고 강조했다.

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덕산 스님은 법문에서 '칠불퇴전'을 설명한 뒤 "전대 회장단의 노력을 이어 받아 앞으로도 끊임없이 메트로불자법우회가 번성하길 바란다"며 "훌륭한 스님, 도반들과 함께 도를 닦는 도량으로 거듭나도록 왕성하게 활동해달라"고 당부했다.

법회에서 서울메트로법우회는 봉은사 포교국장 환성 스님을 지도법사로 추대하고 제6대 회장인 이종성 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또 부회장과 감사 등을 임명, 8대 회장단을 구성했다.

한편, 1991년 출범한 서울메트로법우회는 서울 지하철 1~4호선에 근무하는 불자들의 모임이다. 출범 후 1992년에 현 종합운동장역사에 법당을 마련하고,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오후 7시에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2013년 조계종 포교원 신도단체로 등록됐으며, 현재 200여 명의 불자들이 봉사활동과 불교경전 법회 등 왕성한 신행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윤호섭 기자**

제2기 보경사 염불대학원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각단 불교의식 및 기초교리 6개월 과정

– 교육과정 –
초급과정(불교의식) 6개월 과정
● 도량석, 종송, 향수헤례,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교의식, 관음청, 지장청, 신중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영반, 구병의식 신중 39 위작법, 관음시식(불교기초교리)
● 사 물 : 북, 태징, 목탁, 요령
● 강주스님 : 일관
* 6개월 수련 후 법사자격증 부여, 숙식 제공가능

보경사 염불대학원에서는 각단 불공의식 및 기초교리를 여법하게 봉양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 모집대상 : 스님, 출가예정자, 재가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본 교육원에서 교부) ····· 1부
반명함판 사진 ····· 3매
→ 개강일시 : 2016. 3.1(화) 오후 2시
→ 수 업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5시
→ 문 의 : 보경사 종무소 054-262-1117
강 주 스 님 010-9361-5566
→ 주 소 : 경북 포항시 송라면 보경로 523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보경사 선원장 철산 합장

사단법인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제10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6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깨달음의 3요소… 自淨·自見·自用”

불교TV 무상사 일요초청법회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종범 스님

부처님의 입멸을 앞두고 아난존자는 부처님에게 앞으로 무엇에 의지해 고해를 헤쳐 나가야 하는지 물었다. 그러자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에 의지할 것(自燈明 法燈明)’을 당부했다. 이처럼 깨달음에 대해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종범 스님은 1월 1일 방영된 불교TV 무상사 일요초청법회에서 “마음을 그쳐 깨닫고자 하는 마음까지 사라져 원견(圓見)을 이루면 그 이전의 망견(妄見)과 조견(照見)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깨달음은 무엇이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종범 스님의 법문을 정리했다. 정리=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종범 스님은… 1963년 통도사에서 사미계를 수지했다. 1969년 통도사 강원 강주, 1980년 중앙승가대 강사·조계종 상임포교사, 1985년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 1991년 한국불교학회 이사·행원문화재단 이사, 1994년 조계종 개혁의회 의원, 1995년 조계종 교육원 교재편찬위원장, 1996년 삼보법회 교양대학장, 2000년 중앙승가대 총장·제5대 승가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오늘 법문은 깨달음 이야기를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달음을 깨달을 오(悟)자, 증득할 증(證)자를 써서 ‘오증’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비유한 것이 바로 오증비유입니다. 이 오증이라고 하는 깨달음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나 ‘무엇을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인류는 불안을 물리치고 만족을 얻기 위해서 늘 ‘하는 것’과 ‘아는 것’을 해왔는데요, 깨달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많이 한 사람’ 중에 굳이 한 명 꼽자면 진시황이 있고, ‘많이 안 사람’ 중에 한 명을 꼽자면 사마천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하고 많이 아는 데서 만족이나 평화가 오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상하고 허망해서 그렇습니다. 그동안 했던 것이 다 무상하고, 안 것이 다 허망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 알았던 게 어디로 갔는지 허망하게 다 없어졌다고 느끼곤 하죠. 그래서 많이 하고, 많이 아는 것이 무상 속에, 그리고 부질없는 속에 견디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도, 아는 것으로도 만족을 못 얻어요. 하지만 석가모니는 하고 아는 데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깨달음을 얻었어요.

깨달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 것과 아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깨달음을 말할 때 아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깨달음이 아주 특이한 겁니다.

그럼 깨달음이 무엇인가. 첫째는 자정자기(自淨自己, 스스로 본인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색수상행식이 곧 자기인데 이것을 집중하고 연마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 자체를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정기심(自淨己心)·자정기신(自淨己身)하는 거죠.

생각이 앞을 가리면 깨달음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 비우는 것을 그칠 정(定)이라고 합니다. 생각을 자꾸 쫓아가는 게 아니라 멈추는 것이죠. 다른 것들은 생각을 움직여야 하는데 깨달음은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아는 길하고 깨닫는 길하고는 전혀 달라요. 한 생각이라도 헛된 생각이 남아 있으면 그게 자기를 가려서 깨달음이 안 옵니다. 근데 알고 하는 것에 습관이 배서 아는 것을 그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습관 때문에 어려운 거지 깨닫는 것 자체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둘째는 자견자기(自見自己, 스스로를 보는 것)입니다. 봄이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는 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으레 딱 보이면 의심이 없어지잖아요.

셋째는 자용자기(自用自己)입니다. 견성한 도인들이 하루 종일 방안에 가만히 앉아 있곤 하죠. 그분들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눈앞에 펼쳐진 것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일, 앉으면 앉은 대로, 서면 선 대로, 보면 보는 대로 수용하는 게 자용자기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하는 것이나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정자기·자견자기·자용자기로 이뤄집니다. 깨달음은 허망한 게 아닙니다. 하는 것과 아는 것처럼 허망한대로 돌아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고, 아는 것이 허망해요. 조금 지나버리면 쓰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니 젊었을 때 알게 된 지식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걸 배우려고 노력해야죠.

깨달음은 어떨까요? 많은 선지식들이 깨달음의 경지를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염라대왕이 찾아와서 저승길을 재촉하면 “이미 나는 이미 무량수님, 무량광님” 그 몸이라 말하노라, 그 몸이라 말하노라.

염라대왕은 생멸·생사를 주관하는 왕이에요. 삶과 죽음이 없으면 염라대왕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염라대왕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어둠이 없는 아미타불과 같아 삶과 죽음이 문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깨달음입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데 아무 영향 받을 필요가 없죠. 이런 게 선지식들이 전한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하는 것, 아는 것과는 달리 자기를 맑히고, 자기를 보고, 자기를 쓰는 게 깨달음입니다. 생각을 비워야지 일으켜서는 안 돼요. 하지만 습관 때문에 다른 건 다 아는데 깨달음을 모르는 겁니다. 천지만물을 다 알고, 세상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중요한 한 가지를 모르는 거죠. 무언가를 아는 나는 누구이고, 여러 가지를 한 나는 누구인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수만 권 책을 지으면 아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책을 지은 본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런 엉터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다른 건 다 보고 아는 데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모른다면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니 틀렸다는 생각도 들겠죠. 그렇게 똑똑하지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건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깨달음, 하는 것·아는 것과 달라
생각함이 아닌 그치는 데 집중해야
경계에 오직 ‘識’뿐인 걸 알 수 있어
지혜 얻으면 마음·경계 사라진다

그래서 〈장자〉 외편의 ‘추수(秋水)편’에 ‘정와불가이어해(井蛙不可以語於海) 하충불가이어빙(夏蟲不可以語於氷)’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물 안 개구리에게 바다를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여름만 사는 벌레에게 얼음에 대해 말해주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개구리가 우물 안에만 있는데 바다를 알 리가 없죠. 여름철 벌레 또한 얼음을 모를 테고요. 이것은 장자가 앎에 대한 한계를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그만큼 인간이 아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아는 것도 세월 지나가면 소용없어져 무상하고 허망하게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 부처님은 아는 것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참 영리한 분이에요. 얄미울 정도로 영리하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모르고 헤매는 게 많을까요?

우리가 보는 것에는 가장 먼저 몽식(夢識)이 있습니다. 꿈에 보는 것을 말하죠. 이를 몽식경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은 의식(意識)입니다. 생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경계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몽식과 의식에서 더 깊이 들어간 영식(靈識)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겁니다.

이 중에서 몽식은 망견(妄見)이에요. 허망하게 보는 것이고, 잘못 보는 것입니다. (찻잔 받침을 들어보이며) 이걸 폭탄으로 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릇으로 볼 수도 있고, 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폭탄으로 보면 망견인 거죠. 온전한 걸 온전하게 보는 것이 망견이고, 망견에서 더 깊이 보는 것이 조견(照見)입니다. 조견을 해야 이 몸이 불생불멸임을 알아요. 그냥 망견으로만 보면 생로병사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다’고 보면 조견입니다.

이걸 넘어 생로병사도 아니고, 불생불멸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청정진여(淸淨眞如, 갈애를 남김없이 소멸하면 괴로움이 소멸돼 열반에 이른다는 진리)에 따라 법계에 있다는 걸 보는 것을 원견(圓見)이라고 합니다. 원견에 도달하는 것이 깨달음이거든요. 원견에 가려면 망견에 머물러 있어선 안 되겠죠? 먼저 조견을 해야 해요. 조견이 깨달음에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수행에 드는 것이죠. 그러다 원견에 들어가게 되면 생로병사를 보던 망견도, 불생불멸을 보던 조견도 없어지고 원견만 남습니다.

그래서 ‘필경에는 불중생(佛衆生)이 없다’고 말합니다. 불(佛)은 깨달은 분이고 중생은 못 깨달은 분인데 마지막에는 무불급중생(無佛及衆生)이라는 거죠. 맨날 축원할 때 하는 거예요. 이게 필경에는 일체만물이 법계대용(法界大用), 즉 큰 작용 하나뿐인 겁니다. 그게 원견의 세계입니다. 원각대용(圓覺大用)이라고도 하는데, 그럼 원견이 어떻게 이뤄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장자의 나비의 꿈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몽위호접(夢爲胡蝶) 인몽화접여(人夢化蝶歟) 접몽화인여(蝶夢化人歟)

꿈에 나비가 됐는데 이것이 사람으로서 꿈에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로서 꿈에 사람이 된 것인지를 생각한 겁니다. 인간의 아는 것에 대한 냉철한 비판이 있었던 거예요. ‘꿈에 나비가 됐더라’ 하고 말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한평생이라는 게 꿈인지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아주 근원적인 걸 들여다본 겁니다. 더 나아가면 가만 보니 사람 꿈인 줄도 알고, 나비 꿈인 줄도 아는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도, 나비도 아니죠. 즉 미상인 미상접(未狀人 未狀蝶), 일찍이 사람도 아니고 나비도 아니라는 것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꿈을 꾸기도 하고 깨기도 하지만 꿈도 아니고 깨는 것도 아니더라.’ 능몽능오(能夢能悟)라고 하는데 비몽비오(非夢非悟)요. 이것이 앞서 얘기한 영식이고, 원각이고, 원견입니다. 다만 망견 때문에 그걸 모르는 겁니다.

마음을 딱 그쳐서 집중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지면 보여요. 그걸 도통이라고 합니다. 안 그쳐서 안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을 닦아야 한다고 하죠. ‘도대체 왜 무(無)라고 했을까’ 고민합니다. 그치는 건 방법만 다를 뿐이지 안 그치고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안 그치면 아는 대로, 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못 깨달아요. 그친 마음으로부터 지혜가 나오는데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정법생혜(定法生慧)라고도 합니다.

깨달음을 비유할 때 ‘환호환 탄환사(幻虎還 呑幻師)’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환호는 마술로 만들어낸 호랑이를, 환사는 그 호랑이를 만들어낸 마술사를 뜻합니다. 즉 자기가 만들어낸 것에 의해 스스로 잡아먹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가짜가 진짜인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처음에 마음을 어딘가에 집중하죠. 집중하면 경계는 오직 식(識)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밝아진 증거예요. 그리고 그 경계는 내 의식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오직 ‘식밖에 없구나’ 하는 지혜를 유식지(有識知)라고 합니다. 유식지가 이뤄지면 경계가 공함을 알기 때문에 의식이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본래 본식까지 없어져요. 깨닫고자 하는 마음까지 사라져서 완전히 원각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법문도 있습니다. 무량수님을 직접 보는 게 친견미타인데 ‘친견미타는 빙상연화’라는 겁니다. 즉 빙판 위에 장작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럼 불이 타지 않겠습니까? 불이 맹렬하면 얼음이 녹아요. 어떤 결과가 올까요? 불이 꺼지겠죠? 처음에는 불이 있고 얼음도 있었는데, 결국 얼음도 녹고 불도 꺼집니다. 다른 비유로 ‘양목상계’가 있습니다. 두 나무를 서로 비비면 불이 일어나지만 결국 두 나무는 모두 타버리고 없습니다. 마음과 경계가 끊어져 지혜가 생기면 이전에 있던 마음과 경계는 사라집니다. 즉 법계대용의 깨달음을 아는 것이죠.

도경스님의 실전 영반 靈盤 구성학 공개강좌 및 수강생모집

기(氣)와 영(靈)을 실어서 점단하는 영반구성학!

점사 볼때 구성학을 숫자로만 통변 하십니까?
구성통변! 들을때 뿐 통변이 안됩니까?
점사에 말문이 막혀 자신이 없습니까?
손님이오면 무슨말을 해야할지 모른다구요?
구성학의 맹점을 해결한 **영반**구성학은 !!!
문여는소리,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가능합니다.
전화가 오는순간 통변이 가능하고 잘 맞습니다.
문점자를 보는순간 말문이 열립니다.
교육 수료 후 바로 창업이 가능 합니다.

교육대상
각 사찰 스님들의 불사및 포교에 최고입니다.
온라인상담, 철학관, 사주까페 개업하실 분
철학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통변이 안되는 분
무속인, 점사가 안 나오거나 말문이 막히는 분
인재채용 및 영업직에 계신분,사교나 서비스직에 계신 분
문화센터나 교육원에서 공부했으나 점사풀이가 잘 안되는 분
수료후 수료증, 협회 회원등록 학술회원 위촉 및 협회자격증 수여

특전:30년 경력의 명리학 해강선생 초청 무료강의 준비중(스님만)...
본 협회에서는 CD 및 동영상 제작을 일체 하지않습니다.

교재용 비매품


강의 일정표
정규반
스님특별반
일반인반
속성반
스님특별반
일반인반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선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한영반구성학 협회장
대한선보신문 대표
서울 고해사 주지
부산 도경사 주지
묘법사 3년 하안거
마니산 토굴 2년 기도정진
대둔산 토굴 3년 기도정진
그 외 기도, 명상,참선, 기공, 선법,등
수회 수련및 기도정진

■ 구성점사를 단순히 숫자로만 점단 한다면 전문 통변가가 되지 못한다.각 궁에는 기가있고 영체가 있으며 들고 나는 숫자역시 영성에 의해 움직이므로 단순히 수의 자리이동이라 생각 한다면 점사가 막힌다. 영성의 감각 기관을 깨우는 수련을 하루 3~10분 명상으로 심신의 변화와 영성을 키워 훌륭한 통변가가 될 수 있도록 관리와 지도를 병행 해 나아갈 것입니다.

■ 본 종단과 뜻을 함께할 종도님을 모십니다.
전화 하시면 입종안내 및 입종서류 보내 드립니다.
종단 입종 서류접수 심사 후
승려증,사찰등록증,임명장을 드립니다
본 종단과 함께 할 법사님도 환영합니다

■ 출가(법사나 스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분)에 뜻이 있는 분은
본 종단에서 시행하는 승려 교육과정을 거친후
승려증 발급과 사찰이나 포교원을 개원 하고자
하는 분은 종단에서 적극 후원 지원함..
할 일이 많습니다.사찰,포교당운영,기도,명상,참선,기공등..

오시는 길. 주소: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55길9 (삼익아파트 상가 2층)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 하차 1번출구나와서 왼쪽 계단올라오면
공개강좌 : 1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 (삼익아파트가 보입니다.) 도보 5분거리

禪大韓佛教曹溪宗
선대한불교조계종
(02) 959-1825

선대한불교조계종 부설. 구성학 등록번호제00189호
대한靈盤구성학협회
대한영반구성협회
(02) 962-3467

학술단신

간화선 미래를 논하다

불교학연구회 2월 19~20일 동계 워크숍

불교학연구회(회장 최종남)는 오는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간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에서 동계 워크숍을 개최한다.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겨울 워크숍은 '한국 간화선, 미래는 있는가'를 주제로 토론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마지막 날에는 제10교구본사 은해사 답사도 이뤄진다.

워크숍 참가 자격은 불교학연구회 회원과 불교학자, 스님, 학생 등이면 가능하며 참가 인원은 40명으로 선착순 마감한다. 010-4313-2122

신성민 기자

경전 유통이 신행생활에 미친 변화는

불교평론, 21일 열린논단… 이미령 칼럼니스트 발제

경전의 번역과 유통이 불자들의 신행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계간 〈불교평론〉과 경희대 비폭력연구소는 1월 21일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경전의 번역과 유통, 그리고 신행활동의 변화'를 주제로 올해 첫 열린논단을 개최한다. 발제는 이미령 불교칼럼니스트가 맡는다.

이날 열린논단에서는 현대 한국불교에서 어떤 경전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를 조명하고 최근 현상인 〈니까야〉 등 초기 경전의 번역과 유통이 신행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가 논의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천태학 연구' 18집 발간

韓中日 천태종 수행종풍 다뤄



천태종 산하 천태불교문화연구원이 발간하는 〈천태학 연구〉 18집이 최근 발간됐다.

이번 〈천태학 연구〉 18집은 '한중일 3국 천태종 총본산의 개산과 수행종풍'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구인사 개산 7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편집 · 수록한 것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지자대사와 천태산 국청강사(쉬즈치 천태종불학원 교사) △히에잔 엔라쿠지와 전교대사 사이초(구와타니 유겐 일본 예산학원 학감) △소백산 구인사와 상월대조사(권기종 동국대 명예교수) △고려 의통과 송나라 초기 천태종의 중흥(장평레이 중국인민대학 교수) △연력사의 수행과 문화(다케 가쿠쇼 일중한 불교우호교류협의회 이사장) △구인사의 수행종풍과 문화(천태종 황룡사 주지 세운 스님) 등이 수록됐다.

신성민 기자

불광연구원 연구인력 채용

오는 28일까지 마감

전법과 교화의 학술적 지평을 열어가는 불광사 산하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이 새로운 연구인력을 충원한다.

지원 자격은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불교관련 전공자는 우대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1월 28일까지며, 지원자는 이력서와 최종학력 증명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면 된다. (02)941-3537

신성민 기자

내포 불교 역사·문화를 '한눈에'

충남도 〈내포의 불교 사상과 문화〉 발간

충남 내포 지역의 불교사와 문화, 민간풍습들을 총망라한 총서가 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총남도(도지사 안희정)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함께 내포 문화 원형 발굴 및 기록화 사업의 일환으로 '내포문화총서' 제5권 〈내포의 불교사상과 문화〉를 최근 발간했다. 제6권으로는 〈내포의 천주교와 성지〉를 펴냈다.

충남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내포 지역은 옛 충청감영이 있던 공주에서 서북쪽으로 2백 리쯤 가면 가야산과 만나는 곳이다. 현재 예산과 당진, 서산, 홍성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이곳(내포)의 땅은 기름지고 평평하면서 넓다. 또한 소금과 물고기가 많아서 대를 이어서 사는 사대부들이 많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충남 내륙과는 달리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가 내재된 곳이기도 하다.

총서 〈내포의 불교사상과 문화〉는 내포 지역 불교를 문화사적으로 주목하며 엮었다. 총서에서는 내포 지역 고대 선진 불교와 독특한 문화유산, 그리고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국민 통합과 호국의 기치를 들었던 내포 불교에 대해 살폈다. 또한 한말 근대화 과정에서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내포 지역 여러 고승(高僧)의 정신도 되새겼다.

총서 〈내포의 불교사상과 문화〉는 총론을 비롯해 4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총론 '내포지역 불교의 성격과 의미'는 이병희 한국교원대 교수가 썼다.

1장은 내포지역 불교 유입과 마애불을 다루고 있으며, 2장은 선종과 화엄종 사상의 요람으로서의 내포. 3장은 내포지역에서 유행했던 미륵신앙과 매향활동 등을 풀이해 놓았다. 또한 4장에서는 경허, 만공 스님과 만해 한용운 스님의 항일 정신과 선풍 진작의 면모, 김일엽 스님의 생애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다.

내포 지역 불교 유입부터
사찰 · 고승 · 풍습 등 총망라
지역 문화 원형발굴 사례

내포 지역의 불교 문화가 발달한 이유에 대해 이병희 교수는 '총론'을 통해 "내포지역의 불교는 백제시기부터 크게 번성했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 문화재를 여럿 남기고 있다"면서 "내포 지역에서 불교계가 활기를 띨 수 있었던 것은 1차적으로 지역민의 동참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개경, 한양을 연안 해로로 이동이 가능했던 것도 주요하다"고 설명했다.

총서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내포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미륵 신앙과 이에 기반한 매향(埋香) 풍습이다. 매향은 미래 하생할 미륵불의 용화회에 공양할 침향을 마련하는 것이다. 보통 향나무, 소나무, 참나무를 갯벌에 묻어 침향을 만들며, 여기에 동참하면 내생에 미륵의 용화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봤다.



충남도 발간 내포문화총서 〈내포의 불교사상과 문화〉


효교리 매향 암각(예산군 봉산면 소재). 매향은 내포 등 연안 지역에 나타난 미륵 하생을 기원하는 불교 민간 신앙이다.

내포는 바닷물이 육지의 담수와 만나는 지점이 많아 매향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에는 덕산 매향비, 홍성 용오리 매향비(해미 매향비), 당진 여미리 배바위 매향비 2종 등 4종의 매향비가 전해지며, 암각 사례도 상당 수가 있다.

총서 중 '내포지역 미륵신앙과 매향'을 저술한 채웅석 카톨릭대 교수는 "지역민들은 마을에 인접한 갯벌에서 매향을 하며 종교적으로는 미륵의 구원을 기원하고 현실적으로 향촌공동체 나아가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했다"면서 "이러한 소망을 담아 집단적으로 매향이라는 신앙활동을 하면서 공동운명체로서 결속을 보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충남도의 '내포 문화 총서'는 지역 문화 원형 발굴의 모범사례로 손꼽힌다. 지역 문화의 실체 · 원형에 대한 인문학적 선행 연구가 함께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총서 발간은 2014년부터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 내포 지역 민속예술과 문화, 보부상, 읍성 등을 추가해 내년 상반기까지 총 12권을 발간할 계획이다.

한편, '내포 문화 총서'는 비매품으로 각 시 · 군청 자료실과 도서관, 문화원, 공공기관 자료실 등에 배포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문화재 전기화재, 사전에 차단한다

문화재청, 동산 · 목조문화재 전기 및 피뢰설비 긴급보수

불교 목조 문화재의 전기 및 피뢰 시설에 대한 긴급 보수가 진행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지난해 실시한 국보 · 보물 동산문화재 소장 목조건물의 전기시설 조사와 목조문화재 낙뢰피해 현황조사 결과, 김제 금산사 미륵전(국보 제62호) 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된 13개소에 대해 긴급보수를 시행한다.

목조건축물 화재 원인 중 약 20%가 전기 관련 안전사고이며, 목조문화재 역시 전기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화재 위험에 노출돼 왔다.

실제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의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0~2015년 발생한 목조문화재 화재 사고 24건 중 전기로 인한 화재는 5건(20.8%)으로, 부주의 등으로 인한 실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방화(12.5%)보다도 높은 수치다.

5년간 목조문화재 화재사고
20%가 전기로 인해 발생돼
칠장사 등 설비 개선 추진

이에 문화재청은 매년 목조문화재 전기시설 노후화 조사를 통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보 · 보물 동산문화재 소장처(목조 건물) 149개소에 대한 전기시설 조사와 해인사 장경판전 등 주요 목조문화재 53개소의 낙뢰피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보물 제1721호)이 안치돼 있는 신흥사 극락보전 등 동산문화재 소장처 9개소의 전기시설과, 구례 화엄사 각황전(국보 제67호) 등 목조문화재 4개소의 피뢰설비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이들 문화재를 대상으로 1월 중 긴급보수비 4억 5천만 원을 투입해 긴급보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당대의 기술과 문화, 가치관 등이 집약돼 있는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본연의 가치를 다시 회복할 수 없어 사전 예방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재난 위험요소를 미연에 제거하는 예방 중심의 방재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인문 · 이공 복합형 인재 양성 나선다

동국대, 'JOBs 아카데미'

이공계와 인문계의 장점을 두루 갖춘 융합형 인재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동국대가 새로운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동국대(총장 보광)는 학부교육선도대학사업(ACE사업)의 일환으로 1월 15일과 22일, 두 번에 걸쳐 '스티브 JOBs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파일럿 프로그램 형식으로, 대학에서는 최초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15~16일 1차 캠프가 열렸으며, 22~23일 2차 캠프가 열린다.

'스티브 JOBs 아카데미'는 그 이름처럼 故스티브 잡스의 경영방식과 창의적 리더십, 인문학과 기술의 조화 등을 통해 미래가 원하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집중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이다. (02)2260-3052

출강 및 통신 2016학년도 제25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불교 법사 신입생 모집

뛰어난 불교교육과 법사자격을 원하십니까?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1년제)"

◆ 25년의 법사 교육에 전통과 신뢰는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에 또 하나의 자랑과 긍지입니다.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자격 법위증이 수여됩니다.
② 불교학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 교육합니다.
④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⑤ 법사품수 후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 불학연구원과정(5년) · 불교석학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6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 · 우편 · 팩스 · 메일)
부산교육원(☎ 051-466-1959) · 제주교육원(☎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1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6년 1월 중
◆ 개강일시 : 2016년 1월 중
매주 (월, 수)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통도사, 아름다운 '문화쉼터'로의 초대

다정 카페 · 한식집 등 복합문화공간 인기

전통사찰의 아름다움은 불자뿐 아니라 각박한 현대사회에 지친 일반인들에게도 큰 안식을 안겨준다. 하지만 사찰을 찾은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전각을 둘러보거나 법당에 들어가 잠시 절을 하고 돌아서는 것이 고작이다.

이런 가운데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영배)가 일반인과 불자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마련을 구체화하고 있다. 먼저 지난해 10월 통도사는 주차장 중앙에 자리하고 있던 불교용품점을 새롭게 리모델링해 '카페 다정'과 '한식집 다정'을 동시 오픈했다. 통도사의 무풍한송로를 따라 올라오면 마주하게 되는 성보박물관과 그 맞은편에 위치한 이곳은 통도사를 찾는 모든 이들을 제일 먼저 반긴다.

다정 카페의 외부는 단청과 기와로 꾸며져 전통사찰을 닮았다. 덕분에 통도사와 어우러져 튀는 모습 없이 산사의 아름다움과 품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반면 내부에 들어서는 순간 현대적 감각과 오래된 한옥이 주는 우아함이 더해져 일반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고전과 현대의 조화를 느낄 수 있다. 밖으로는 영축산을 배경으로 바람과 물만 다닌다는 청류동천(淸流洞天)이 흐르며 그와 함께 천년이 넘은 노송, 아름다운 삼성반월교(三星半月橋)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지난해 개산대재에 맞춰 문을 열었을 당시에는 하루 150여 명이 방문해 빈자리가 없을 정도였다. 비수기인 지금도 하루 50여 명은 꾸준히 찾고 있다.

커피 원두와 다식 메뉴도 주지 영배 스님이 직접 선정했다. 최상급의 브라질,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원두를 블렌딩한 아메리카노와 겨울을 맞아 레몬 유자티 등 다양한 차를 준비하는 전문 바리스타가 항시 대기한다.

경내 풍광 한눈에 조망 가능
겨울에도 매일 50여 명 찾아
방문객 위한 건강 사찰음식도
"사찰 찾는 이들이 이곳 주인"

카페 바로 옆에 위치한 한식집에는 사찰음식으로 메뉴를 선택했지만 일반인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적인 음식으로 마련했다. 연잎 칼국수, 산채비빔밥, 두부요리 등 준비된 메뉴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들로 채웠다.

일체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조리를 맡은 조은숙 주방장은 두 달에 한 번씩 자비도량에서 진행하는 사찰음식교육을 전문적으로 받고 있다. 모든 재료는 통도사에서 운영하는 영농법인에서 제공된다. 모든 것이 국산이라는 의미다.


최근 통도사가 관람객들을 위해 복합문화공간을 구체화하고 있다. 통도사 다정 카페 내부 전경.

또한 두부는 1월 8일 문을 연 조포정에서 생산된다. '조포'는 경상도 방언으로 두부를 의미하는 말로써 조선시대 유명했던 통도사가 생산한 두부의 전통을 찾고 스님들의 공양을 위해 새롭게 설립됐다. 조포정은 방장 원명 스님이 지은 이름으로 현재 한식당 바로 뒤편에 위치한다. 응고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아 건강하며 콩은 통도사와 창녕에서 직접 공수해 맛도 탁월하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두부는 다정 한식당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새로운 쉼터는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종무소로 사용되고 있는 육화당(六和堂)이 곧 비워진다. 종무소는 이전에 사용했던 명월당(明月堂)으로 옮기며 육화당은 문화공간 및 쉼터로 꾸며질 예정이다.

교무국장 진응 스님은 "주지 스님께서는 '사찰을 찾는 불자와 사람들이 이곳의 주인'이라고 항상 강조하신다"며 "카페는 문화포교를 위한 시작점이다. 주지 임기 시작 후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복합문화공간을 위해 많은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선운사, 을미년 동안거 포살법회

조계종 24교구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는 1월 8일 선운사 지장보궁에서 을미년 동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법회는 선운사 대중스님들과 참당암, 도솔암, 석상암 등 산내암자 및 선운사 불학승가대학 학인스님, 말사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했다. 〈사진 아래〉

이날 포살법회는 주지 경우 스님이 포살법사를 맡아 예경삼보에 이어 조계종단의 〈범망경보살계포살본〉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경우 스님은 법문에서 '대중이 모여 화합함의 목적'을 대중에게 물었다. 이 같은 물음에 대중은 "포살계를 설하여 포살을 하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이후 사부대중은 〈불설범망경〉 보살십지품, 십중대계. 사십팔경구계를 독송한 뒤 계율을 준수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을 다짐했다.

한편 포살법회 후에는 선운사 주지를 역임하며 선운사의 중흥을 이끌었던 태허당 지성 대종사 18주기 추모제가 봉행됐다.

이날 추모제에서 법만 스님은 태허스님의 문도를 대표해 "은사스님의 18주기를 맞아 다시 한 번 스님의 생전 가르침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스님의 유지를 받들고 늘 가르침을 깊이 새겨 열심히 수행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산사, 병신년 신년하례법회

금산사(주지 성우)는 1월 9일 금산사 처영기념관에서 새해를 맞아 교구 본말사 사부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전북발전과 불교중흥을 다짐하는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사진 아래〉

신년하례법회에는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 송광사 주지 법진 스님, 실상사 주지 응묵 스님 등 교구본말사스님들과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을 비롯한 각 신행단체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최규성 국회의원 등 각급 기관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월주 스님은 신년법어를 통해 운문선사의 일일시호일(日日時好日)를 인용해 "오늘이라는 시간은 일생동안 단 한 번밖에 없다"며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을 사랑하고, 오늘에 충실할 때 날마다 좋은 날이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천상에 태어나는 무한한 복락은 특별한 비법이 없다"며 "정법에 입각해 진실을 말하고, 분노를 억누르고, 생명을 보살피고 돕는 사람은 천상에 태어나고 지상에서도 날마다 좋은 날이 될 것이다. 새해에도 날마다 좋은 날이 이어지는 불자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우 스님은 "올 상반기 중 금산사 템플스테이 전용관을 완공하고 2월 중으로 혁신도시 포교당 기원정사 기공식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불기2559년 종무지도감사에서 전법과 포교, 가람수호와 종무행정 전반에 걸쳐 우수사찰로 선정된 익산 연국사 주지 묘주 스님이 표창장을 수상했다. 또 포교대상은 나유인 신도회 부회장과 정완동 은적사 거사회 운영회장이 받았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통도사 · 진주시 燈축제 MOU 체결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영배)와 진주시(시장 이창희), 진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최용호)은 1월 13일 문화축제 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통도사 문화축제와 진주남강유등축제의 상호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진주시청 5층 상황실에서 체결된 이번 MOU 세부사항은 진주시 유등축제의 등(燈)을 통도사에 대여할 것과 등 구매 및 기술을 협력하고, 통도사는 문화축제 때 협찬처를 게재하며 사보를 통해 유등축제를 홍보할 것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 총무국장 도문 스님, 총무과장 호법 스님, 기획과장 명조 스님, 이창희 진주시장, 최용호 진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석장호 진주문화예술재단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사)착한벗들, '다꿈티움' 어린이 겨울캠프

다문화가정 이해 도모 위해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들의 건강한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착한벗들(대표 회일)이 '2016 다꿈티움 어린이 겨울캠프'를 개최했다.

1월 8일~10일까지 참좋은우리절에서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어린이 겨울캠프는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로 다문화가정 아동들과 비 다문화가정 아동 35명이 동참했다.

캠프는 어린이법회 지도법사인 무구스님의 지도로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창의력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배려 · 협력 인성을 가꾸고 세계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한나무 인성교육, 명상 및 미술놀이, 한국민속 및 베트남 전통놀이, 모악랜드 눈썰매 놀이, 세계문화체험, 발우공양, 미니 올림픽 등 놀이프로그램과 불교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배치해 어린이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 놀이를 통해 협동심을 배우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을 키울 수 있는 난타공연과 어린이들의 다양한 장기를 펼치는 레크리에이션 및 장기자랑, 공포체험도 진행됐으며 어린이 오계 수계식을 마지막으로 회향했다.


착한벗들 겨울캠프에서 발우공양을 체험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진지하다.

착한벗들 대표 회일 스님은 "이번 겨울캠프는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서로 이해하고, 여러 나라의 음식을 접할 수 있어서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dongguk UNIVERSITY | 평생교육원

수능시험 없이! 내신성적 없이!

불교학 학사 학위에
도전하십시오!



불교학을 공부하고 싶으셨지만 때를 놓치신 분, 은퇴 후 포교활동을 위해 전문적인 교리공부가 필요하신 분,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보다 깊이 있는 불교학 연구를 하고 싶으신 사찰 주지스님.

이제 수능시험 없이도 학점은행제 불교학 전공과정에 입학해 동국대학교 총장명의의 학사학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 02) 2260-8996 / dgus@dongguk.edu

2016년 1학기 신입생 모집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불교학전공 학사학위과정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인정자
· 전문대학 졸업자 · 대학중퇴자 및 4년제 대학 졸업자
모집기간 · 2016년 2월 26일 (금)까지 (2차 모집)
접수서류 · 주민등록등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진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http://edulife.dongguk.edu)
· 방문접수 : 동국대 평생교육원 행정팀
모집분야 · 주중과정 (매주 월, 화 10:00 ~ 17:00 수업)
· 주말과정 (매주 토 09:00 ~ 21:00 수업)

신불교 영산불교의 우주적 진리의 사상, 재조명

조계종의 '깨달음 논쟁'을 보고 – 조사(祖師)의 견성(깨달음)과 부처님의 정각(正覺)은 천지현격(天地懸隔)하다

영산불교에서 본 불교의 '깨달음' 논쟁과 무상정등정각의 길
–현응스님의 '이해하는 깨달음' 및 수불스님의 '간화선 옹호' 주장을 보고

Ⅰ. '이해하는 깨달음'은 부처님 가르침 도외시한 발상
– 현응 스님의 주장요지와 반론요지

1. '이해하는 깨달음'은 불교를 격하시키는 비불교적 발상

불교의 깨달음은 '이해하는 깨달음'이 아니라 증오(證悟)의 깨달음입니다. 현응스님의 주장은, 생사해탈을 위한 불교의 가장 핵심적이고 완성된 수행체계로 볼 수 있는 계(戒)·정(定)·혜(慧) 삼학체계로서의 팔정도를 포함하여 사선(四禪)·팔정(八定) 등 경전의 수많은 선정·삼매관련 내용을 도외시하는 비불교적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불교의 깨달음은 높은 정신적 통일상태(心一境性)인 선정·삼매의 한 경계로서, 이를 통해 우주본성을 보고, 생사해탈을 이루며, 종국적으로는 우주본체(본성, 공)와의 완전한 합일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 과정입니다. 이렇게 심오하고 차원 높은 불교의 깨달음을 어찌하여 한낱 '이해하는 깨달음'으로 격하시키고, 결과적으로 불교를 학문적 차원으로만 전락시키는지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부처님의 깨달음은 '논리적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불신과 계합하는 차원

부처님의 깨달음은 부처님 당신과 붓다의 경지에 간 대성자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선정단계를 거쳐 깨달았다는 경전의 말씀은 사실로 볼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불신을 갖추셨기 때문에, 부처님의 깨달음은 대적정삼매라는 최고수준의 삼매를 통해 부처님의 영체가 절대계에 있는 부처님의 불신과 계합하는 특별한 차원입니다. 이는《금강경》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무상정등정각)으로서 우주본체와 완전한 합일을 이루는 완성된 깨달음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4선 8정 같은 선정 차원도 아닐진대, 하물며 '논리적 사유'에 의한 것이라든가 시대에 따라 진화한다고 말하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폄훼하는 엄청난 불경입니다.

3. 생사해탈은 '관념적 해탈'이 아니라 '실제적 해탈'로서 불교의 수행목표

'이해하는 깨달음'은 생사해탈을 실제로 태어나고 죽는 일이 없다는 뜻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하여 생사해탈을 실재성으로부터의 관념적 해탈로 보고 있습니다. 생사해탈이란 육도윤회하는 고통의 생과 사에서 벗어나 실재하는 해탈·적멸계에서 생사 없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경지를 말합니다. 이를 단순히 관념적으로만 보는 것은 불교의 수행목표를 망각하고 불교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Ⅱ. '간화선 중심의 선불교'는 '부처님중심 불교'로 거듭나길
–수불 스님의 '간화선 부흥이 한국불교의 미래' 주장에 대한 제언

1. 선불교는 '부처님 없는 불교'에서 '부처님 중심 불교'로 가야

선불교는 부처님의 실존에 대한 믿음이 없이 '마음이 곧 부처'(卽心是佛)라고 합니다. 이런 논리로, 마음을 깨치면 곧 부처(直指人心, 見性成佛)라고 합니다. 이는 부처님의 실체를 모르고 불교수행의 본질을 간과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심교(心敎)이지 불교가 아닙니다. 견성의 수준은 우주본체인 공을 잠시 체험하는 경계로서 아라한에도 못 미치는 경지입니다. 아라한 너머 보살의 해인삼매와 붓다의 대적정삼매가 있습니다. 어찌 아라한도 못되는 경지를 붓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절대계에 무량광 빛의 불신으로 계시는 인격체이지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중생의 업장을 소멸해 주시고 기도도 들어주시는 부처님을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 공양도 기도도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2. 선불교는 '윤회주체인 인간영체 없는 허무주의 불교'에서 탈피하길

선불교에서는 무아(無我)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인간의 본체이며 윤회의 주체인 인간 영체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무아는 현상계의 존재인 '나의 실체 없음'을 말한 것이지 불멸하는 나의 본체인 영체까지 없다고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라는 생각'이 멸진된 그 '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승의《열반경》에서 많이도 강조하고 있는 상락아정(常樂我淨)의 세계에서의 아(我)는 바로 적멸세계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영체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인도에서 불교가 망한 이유가 바로 무아를 왜곡해서 불교가 '나, 주인공' 없는 허무주의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윤회주체가 없다면 불교의 윤회·해탈론이 무용지물이 되어 불교를 믿을 이유도 스님이 될 이유도 없습니다.

3. 선불교의 간화선 수행은 경전에 없는 수행법–'견성중심'에서 '선정삼매중심'으로 가길

선불교의 중심 수행법인 간화선은 분명한 경전적 근거가 없는 수행법입니다. 화두를 들려면 선문답 같은 화두가 아니라 성스러운 부처님의 존호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간화선을 부흥시켜야 한다고 하기 전에 간화선이 과연 확실한 경전적 근거가 있는 정법의 수행법인지부터 먼저 깊이 있게 검토해 봐야할 것입니다. 팔정도 칭명염불이 정법입니다. 또한 간화선은 견성만을 주장하는데, 바른 선정삼매를 통하지 않고는 올바른 깨달음과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갑오년 초파일 13만 봉축등으로 장엄된 현지사 전경

4. 사후세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다–올바른 윤회 해탈론 확립하길

선불교에서는 윤회·해탈세계 등 사후세계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옥이나 극락도 마음의 산물로 보고 있습니다. 법상에서 자신 있게 사후세계의 존재를 역설하고 삼악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사자후하는 선불교의 큰스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5. 경전 소홀, 복덕수행 소홀, 계율 철저기풍 미확립 풍조 개선하길

선불교에서는 경전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조사어록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큰 잘못입니다. 경전을 열심히 독송해야 됩니다. 지혜와 복덕은 해탈의 양 날개인데 선불교에서는 복덕 닦는 일을 소홀히 하며,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기풍이 확립되어 있지 못합니다. 계율은 목숨같이 지켜야 합니다. 스님들의 범계소식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Ⅲ. 부처님의 깨달음인 무상정등정각으로 가는 바른 길

1. 부처님의 실존과 실체를 믿는 부처님중심 불교라야

(1) 실존하시는 부처님을 믿고 귀의해야

부처님께서는 무아속 절대계에 무량광 빛의 인격체로 여여히 계십니다. '경전의 왕'이라 불리는《법화경》과《화엄경》은 부처님의 실존과 위대하신 실체를 잘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명확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넘도록 우리 불교계는 부처님의 실존과 위대한 실체에 눈을 감고 있었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금광명최승왕경》《열반경》등 여러 경론의 불신론도 부처님의 실존을 말해줍니다. 부처님의 실존과 위대한 실체를 모르는 불교는 더 이상 불교라 할 수 없습니다.《법화경》의 백미(白眉)는 구원본불(久遠本佛)의 사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백천만억 나유타 아승기겁 전에 성불하셨고, 그 때부터 불신(佛身)으로 상주하시면서, 또는 사바세계를 오가시면서 수많은 중생을 교화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주하시면서 중생을 구제하는 불신이 바로 보신불입니다. 불의 법·보·화 삼신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법신불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우주본체인 공과 100% 계합한 우주적 광명지체(光明智體)입니다. 보신불은 중심불로서 32상 80종호를 갖추고 영원히 멸도하지 않는 무량광 빛의 인격체로서 중생의 업장을 소멸시켜 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는 중생구제의 본불이십니다. 화신불은 보신불이 수많은 수행자를 제도하기 위해 삼매력으로 만들어낸 부처님의 몸입니다. 화신불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처님의 실존을 철저히 믿고 귀의하는 불자가 되어야 합니다.

(2) 전지하시고 만능자재하신 부처님의 구원력에 의존해야

우주법왕이신 부처님은 전지하시고 만능자재하십니다. 우주본체인 공(空)과 완전히 합일되어 우주의 주(主)가 되신 부처님(보신불)께서는 공(空)이 가진 무한한 질료와 정보와 에너지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창조주적 능력을 가지십니다. 부처님의 무한한 능력은 불신의 무량광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무량광 한 줄기마다 특별한 역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종의 무량광이 갖고 있는 능력은 무한합니다. 무량광은 한량없이 방사해도 끝이 없고 일체의 지혜와 복덕, 자재한 위신력과 신통력을 지닌 불가사의한 빛입니다. 부처님만이 중생의 지중한 업장을 소멸시켜 삼악도에서 구해주실 수 있습니다.

붓다를 길러내고 적멸세계를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삼천대천세계를 들어 우주 저쪽까지 던져버릴 수 있는 초천문학적인 힘이 있으십니다. 세계 어느 종교의 교주도 불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없어 진정한 구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만이 진정한 구세주이십니다. 부처님의 법신불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에 모든 붓다님들의 보신불이 들어가면 하나의 우주적 구원주체가 되어 중생구제와 세계평화를 위하여 상상할 수 없는 불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진정한 구원의 종교입니다. 앞으로 불교는 부처님 실존 중심으로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교수행도 자력기반-타력중심의 칭명염불 수행으로 과감히 전환되어야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우주적 구원력을 믿고 의지하는 불자가 되어야 합니다.

2. 인간본체이며 윤회주체인 영체에 저장된 업장을 소멸해야

영체는 인간의 본체인 동시에 연기와 윤회와 해탈의 주체입니다. 인간의 4개의 영체 중 가장 바깥쪽에 있는 영체(4번)는 육체와 영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나머지 3영체(1·2·3번)는 불멸의 윤회주체입니다. 이 중 1번 영체가 인간의 본체입니다. 업을 지으면 모두 이 영체에 저장이 됩니다. 중생은 영체에 태산 같은 업장을 짊어지고 있는 반면, 복덕의 선근보따리는 무척 작습니다. 수행이란 바로 이 영체의 업을 정화하고 선근공덕의 보따리를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 영체에 저장되어 있는 악업을 소멸하는 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기존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무아론을 잘못 해석하여 인간 본체인 영체마저 없다고 하면서 윤회의 주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뢰야식이 윤회의 주체라고 하는가 하면, 윤회의 주체가 필요 없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뢰야식은 업을 저장할 수 없어 윤회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업을 저장하려면 입체적인 영적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윤회의 주체는 불멸이어야 하는데 식은 찰나생·찰나멸하므로 윤회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이 어떻게 지옥, 하늘을 갈 수 있겠습니까? 무아라 해서 나의 본체인 영체가 없다면 윤회와 해탈도, 불보살의 존재도 근거를 잃게 됩니다

3. 불보살이 되는 팔정도 칭명염불 수행에 매진해야

(1)불교의 올바른 세계관·인생관을 갖고, 항상 바른 생각을 해야 합니다(慧學-정견, 정사유)

(2)5계 10선 등 불교의 여러 계율을 목숨 같이 지켜야 합니다(戒學-정어, 정업, 정명)

(3)칭명염불로 부처님의 가피 입고 바른 선정에 들어야 합니다(定學-정정진, 정념, 정정)

칭명염불은 불보살이 되는 '자력기반 타력중심'의 유일한 수행법입니다. 지금 세계불교의 자력중심수행으로는 아라한이 한계이고, 절대로 보살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정토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①영체분리 및 4중죄 소멸 ②정토에 해탈신(아기보살) 만드는 일 ③영체의 변녀성남 ④극렬한 마장 퇴치 ⑤가까운 친족이 악도에 없도록 천도 등이 필수요건인데, 이 작업은 오직 부처님만이 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칭명염불은 부처님의 성호를 소리 내어 간절히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념으로 염불수행에 정진하면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바른 선정·삼매에 들 수 있고 부처님회상을 만나 부처님의 가피로 불보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4. 마장을 막고 해탈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참스승을 만나야

높은 해탈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참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치성한 마장을 막아주고 떼어줄 스승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천마, 축생마인 용신·이매망량, 원결영가의 빙의가 문제입니다. 혼자서는 도를 이룰 수 없습니다.

5. 부모·조상님께 효도하고 자비이타행으로 선근공덕을 쌓아야

효는 불교의 중심사상으로서 진정한 효는 천도재를 통해 사후에 부모님의 영체가 받고 있는 지옥·축생의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효행과 더불어 자비이타행으로 선근공덕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보살행을 생활화하여 선근보따리를 열심히 키워나가야 수행의 진전이 빠르고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산불교대학 교수 혜운 합장

조계종의 '깨달음' 논쟁에 대하여

1. 들어가면서

지금 한국불교의 대표종단인 조계종에서는 '깨달음'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

조계종의 교육원장인 현응스님이 최근의 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깨달음은 이해(understanding)'라는 주장이 계기가 되었다. 일부 불교학자들이 동의하기도 하고, 일부 스님들이 반론을 개진하면서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사실 이번의 깨달음 논쟁은 깨달음 자체를 현응스님이 잘못 정의한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재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니까야에서 말씀하셨고, 역대의 많은 제종(諸宗)의 선지식들도 깨달음이란 언설과 논리적 사유를 떠난 것이라는 것을 누누이 언급해왔기 때문이다.

교육수장인 현응스님이 선종의 종지를 표방하는 조계종이 돈오견성의 선풍을 종풍으로 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텐데 증오(證悟)가 아닌 '이해'를 깨달음이라고 한 배경이 궁금해진다.

2. 두가지 쟁점에 대해

쟁점의 하나는 '깨달음이 이해인가 아닌가'의 문제다.

다른 하나는 이 논쟁의 배경이 되는 문제로서,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현재의 조계종불교로는 현시대의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한국불교를 중흥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첫번째, 깨달음의 문제에 대해.

현응스님은 깨달음이란 '이해'라고 정의한다. 부처님 당시에도, 중국의 선종 초기에도 깨달음은 '이해하는 깨달음'이었다가 시대가 흐르면서 '이루는 깨달음'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반론하는 수불스님은 이해는 알음알이로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버려야 할 대상이다. 그래야 바른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두번째, 불교중흥의 문제에 대해.

현응스님이 진단하기에, 지금 조계종의 주류는 참선수행 중심의 산중불교, 깨달음지상주의이다. 이런 불교로는 중생들의 구체적 삶의 문제를 외면하게 되고 또 사회적 요청 예를 들면 생명·환경문제 등 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그의 진단에는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화두참선 수행 중심의 불교로는 변화하는 다양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여 불교는 후퇴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통찰이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현응스님은 선불교의 어려운 '깨달음을 포기하고', 대신에 '이해'(연기성 및 공성에 대한 이해)만 가지고 현실 속으로 들어가 '바라밀행'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한다.

그러나 그를 반대하는 스님들, 특히 체계적 반론을 제기한 수불스님은 반대방향으로 즉 '깨달음을 위해' 화두참선법을 선양하여 대중화하는 길이 불교중흥의 바른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

3. 이 논쟁을 바라보는 바른 입장

이 논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2가지 문제가 시사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한국불교의 대표종단인 조계종이 봉착한 근본적인 문제가 그리고 한국불교의 현주소가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첫째, 바른 깨달음의 정의에 대해

깨달음이 연기성 혹은 공성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현응스님의 주장은 사실 근거가 없다. 이 '이해'로는 중생을 생사윤회의 고통으로부터 해탈로 이끌 수 없다. 그가 발제문에서 팔리어 율장의 '마하박가'를 인용하면서 최초에 5비구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대화를 통해서 즉 '이해'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고 설명하는 부분은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수불스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계종에서 추구하는 깨달음 즉 견성(見性)은 '마음'을 깨치는 것이고 본래면목을 확철대오하는 것이다. 육조 혜능의 가풍이고 성철스님이 선양한 바 있는 돈오견성(頓悟見性)이 바로 조계종의 수행목표다. 그러나 견성과 돈오가 깨달음이 아닌 것은 아니나 우려 또한 없지 않다. 부처님께서는 '8정도를 행하지 않으면 정법이라 할 수 없으며, 8정도가 있는 곳에 해탈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하셨다. 간화선 수행에는 8정도가 없다.

게다가 우리가 보기에 돈오견성은 불교수행의 최종목표가 아니다. 견성은 공체험을 하는 것이고 성불로 가는 먼 도정의 출발점이다. 반면에 아뇩다라삼먁삼보리(무상정등정각, 일체종지)는 보살의 지위를 넘어 부처님이 증득하는 깨달음으로서, 이 둘은 선정과 지혜의 깊이에서 천양지차다.

다른 관점에서 말해보면 견성은 법신(法身, 이 법신은 엄밀한 의미에서 법신이 아니다)을 증득하는 것이고 아뇩다라삼먁삼보리는 보신(報身)을 증득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논쟁을 통해서 불교의 최종목표로서의 바람직한 깨달음은 아뇩다라삼먁삼보리로서 새롭게 정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불교중흥의 문제에 대해

우리는 불교중흥의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무엇이 바람직한 불교인가?'하는 점을 먼저 살펴보지 않으면 안된다.

‘이해하는 깨달음’ 주장은 부처님 가르침 도외시한 발상
세계불교, 부처님의 실존을 믿는 부처님중심 불교로 혁신적 전환 필요

①대승교학을 외면해온 조계종 - ‘견성=성불’의 잘못된 가르침

수불스님 그리고 조계종은 한사코 ‘견성(공체험)=성불’이라고 주장한다.

마음 · 공을 깨닫는 것을 성불로 삼게 되면 ‘마음’이 불교의 최종 종착지가 되어 불교는 심교(心敎)로 전락되어 버린다. 마음만이 참나이고 삼계는 공화(空華)이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부처’가 되어 부처님의 존재도 설 자리를 잃고, 유심(唯心)이 정토(淨土)라 서방극락정토도 설 자리가 없다. 그리고 육도윤회의 고구정녕한 부처님 말씀도 희석되어 버린다. 이 ‘견성=성불’은 매우 위험한 오해이고 부처님 정설이 아니다. 조계종은 이 종지에 비추어 대승경전의 부처님 교설을 외면해왔다. 그러지 않으면 선종의 수행목표(공체험-법신 증득)와 대승교학(보신의 실존-성불)과의 괴리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수증의 관점에서 대승불교는 ‘지혜’의 면에서는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불신’의 면에서는 보신(報身)을 ‘해탈’의 면에서는 무주처열반을 증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야경〉의 6바라밀과 〈화엄경〉의 10바라밀의 수행공덕이 이를 증득하는 데 필요한 자량을 쌓아가는 과정이다. 그런 보신을 구족한 부처님이 계시고 해탈열반의 적멸세계를 적극 긍정하는 게 대승불교의 진면목이다.

한국불교가 ‘마음이 부처’라는 선종의 종파적 입장에 갇히지 않고 대승불교의 철학과 이념을 계승하여 부처님의 실존을 긍정하고 바라밀행을 적극 선양하며 청정한 계율의 준수와 바른 선정(禪定)의 수습을 전통으로 삼는다면 훨씬 힘있고 생명력 넘치는 불교가 되어 시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시대에 부응하고 사회를 선도하는 불교를 만들어낼 것인가? 결국 ‘선종’의 왜소화되고 왜곡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세우는 데 있다.

②이번 논쟁에서 불교중흥의 방법에 대해 현응스님과 수불스님은 정반대의 방향을 제시한다.

현응스님은 ‘깨달음’ 대신에 연기성에 대한 ‘이해’만으로 삶의 현장에서 바라밀행을 실천해 나가자고 제안한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첫째, 깨달음 즉 무명의 타파는 12연기에서 보는 것처럼 생사의 소멸이고 해탈이다. 어떤 명분이라도 깨달음이라는 불교적 가치는 포기될 수 없다.

둘째, 깨달음을 포기하는 것은 조계종이 선종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응스님은 조계종이 선종으로서의 종파적 테두리를 깨버리고 ‘바라밀행’을 종지로 하는 새로운 불교로 나아가야 된다고 주장하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바라밀행은 불교의 궁극적 목표인 성불을 지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보기에 그렇지 않다. 게다가 현응스님은 ‘돈오(頓悟)의 조계선풍으로 제종(諸宗)을 섭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는 바라밀행의 종지와 상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현응스님의 방향은 매우 불분명하고 또 모순적이다.

수불스님은 반대로 ‘인류 최고의 정신문화 유산’인 화두참선 수행을 대중화하는 것이 불교증흥의 길이라고 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앞에서 말한 바 있는 선종의 병폐를 다시 반복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불교중흥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마음이 부처’이고, ‘견성’하면 ‘성불’인데 다시 바라밀행을 할 필요가 있을까? 선종은 자력 수행의 길 외에 중생을 구제하는 다양한 방편과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고 선도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볼 때 불교중흥의 방법을 어떻게 모색하든지 간에 기존 한국불교의 테두리 안에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하고, 새로운 불교의 요청이 절실해진다.

4. 영산불교가 제시하는 대안 –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

조계종으로 대표되는 한국불교는 ‘마음이 부처’ 혹은 ‘견성성불’이라는 틀에 갇혀 대승불교의 이념을 계승하지 못하고 있다. 신불교 영산불교는 대승불교의 완성이고 새로운 불교의 출발이다. 불교사의 모든 긍정적인 전통을 계승하고 있으며 중생구제를 위한 법재(法財)와 방편을 구족하고 있다.

우리는 불교의 궁극적 목적인 성불을 보신의 증득으로 보며, 그런 불신을 구족한 부처님이 계심을 선언한다. 이제 선종 중심의 편협한 기존불교 대신에 부처님의 실존을 신행과 수행과 교학의 중심으로 놓는, 힘 있고 생명력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교를 내놓는다.

이 논쟁을 통해 제기된 깨달음과 불교중흥의 문제에 대해 우리는 선명한 방향을 제시한다. 붓다의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영산불교의 칭명염불 속에 있고, 왜소화된 한국불교를 중흥하여 시대를 선도하는 불교로 쇄신하는 방법이 영산불교의 철학 속에 모두 들어 있다.

1) 부처님의 실존

부처님의 실존은 너무나 엄연한 사실이다.

〈법화경〉, 〈화엄경〉 등 여러 대승경전이 부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고, 다양한 경론에서 불신(佛身)을 삼신론(三身論)으로 교학적으로 정리해 놓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불교가 부처님의 실존과 연결시키지 못한 것은 ‘마음이 부처’라는 선종의 편협하고 그릇된 기치가 한국불교를 지배해왔기 때문이다.

육조단경 참회품에 나오는 자성삼신론은 선(禪)의 입장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정법의 견지에서는 결단코 잘못된 견해이다. 법신을 증득하면 보신과 화신을 구족하게 된다는 것은 잘못된 사견이다.

부처님은 청정법신 원만보신 천백억화신의 삼신을 구족하시며, 그 위신력은 〈법화경〉 〈유마경〉 〈화엄경〉에 그려져 있는 이상으로 우주적 힘을 구유하고 계신다.

2) 윤회와 해탈의 주체–영혼체

지금의 불교는 부처님의 무아설을 매우 그릇되게 이해해서 윤회의 주체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체가 없다면 어떻게 윤회하며 어떻게 수행하여 해탈하겠는가? 우리는 이 주체를 영혼체라고 부르고 편의상 1번, 2번, 3번, 4번 영체 네개가 겹쳐져 있다고 설명한다. 1,2,3번 영체는 뭉쳐서 다니는 우리의 본체이다. 4번 영체는 육신이 생길 때 1,2,3번 영체와 육신을 접합하는 역할을 하는 일시적인 영체이다. 이 영혼체가 나의 본체로서 업을 짓고 업을 받는 주체가 되어 윤회한다. 영산불교에서는 기존의 무아윤회론을 대체하는 영혼체윤회론을 제창한 바 있다.

3) 6바라밀 수행과 8정도 칭명염불

부처님께서 제시해주신 8정도의 실천수행과 6바라밀의 수행 또한 우리의 중요한 수행 덕목이다. 영산불교는 8정도 칭명염불을 수행방법으로 내놓는다. 이는 출가와 재가가 함께 하고, 수행과 생활이 서로 이어져 있다.

개개인을 참다운 해탈열반의 세계로 인도하고, 많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타력에 기반한 칭명염불 수행에 의지해야 한다.

칭명염불은 부처님의 성스러운 명호를 부르는 수행으로 가장 정통적인 수행방법이다. 현지사의 칭명염불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8정도와 함께 수행하는 ‘8정도 칭명염불’이고 보살이 되고 붓다가 되는 궁극적인 수행법이고 가장 깊은 삼매인 대적정삼매를 지향한다.

영산불교 현지사 대원 스님

신불교(영산불교)의 우주적 진리 입장에서 바라본 ‘깨달음 논쟁’

1. 서론

2015. 9. 4일 현응 스님이 세종문화회관에서 ‘깨달음과 역사 그 이후’를 주제로 기조 강연한 내용 중 ‘깨달음은 이해의 영역’에 대해 수불 스님과 전국선원수좌회 등에서 반론을 제기하였으며, 홍창성 교수(美 미네소타대 철학과)는 ‘이해하는 깨달음이 올바른 견해’라는 논지를 밝혔습니다.

본고(本稿)에서는 ‘현응 스님과 수불 스님, 그리고 현응 스님의 글에 대해 비판하신 분들의 깨달음에 대한 견해’에 대해 진정한 깨달음은 무엇이고 어느 수준이며, 부처님의 깨달음인 무상정등정각(正覺)은 소위 견성(見性)과 무엇이 다른지? 추가적으로 불신론(佛身論), 인간 영혼의 실체(영혼체)와 윤회의 주체, 그리고 무아(無我)에 대해 신불교(영산불교)의 우주적 진리의 입장에서 중점적으로 논하겠습니다.

(간화선의 문제점과 ‘조계종 명칭 변경, 종지의 현대적 구현’ 등은 논외로 하였습니다)

2. 현응 스님이 밝힌 깨달음에 대한 견해

현응 스님의 깨달음에 대한 견해는

첫째, 깨달음은 이해의 영역으로 높은 정신세계가 아니다.

둘째, 부처님은 사유와 성찰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

셋째, 깨달음도 부처님 이후 끊임없이 진화했다(이해하는 깨달음에서 이루는 깨달음으로 변화해 갔다).

넷째, 선정과 삼매로서 마음을 닦아 깨달은 마음으로 만드는 것은 각종 화학적 재료를 섞거나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II

변용하여 금을 만들려는 연금술이다. 다섯째, 현대인의 깨달음은 ‘연기(緣起)와 공(空)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독서와 사유, 그리고 스마트 폰 검색으로 사띠(sati) 기능의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 여섯째,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은 깨달음 기준을 잘못 설정한 까닭이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3. 수불 스님의 반론

수불 스님은 〈조계종지의 현대적 구현〉의 소책자에서 현응 스님의 글을 비판하고 있는바

첫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은 없고, 깨달음은 사유의 영역을 초월한다.

둘째, 깨달음은 불이법(不二法)에 속하고, 이해는 이법(二法)에 속하기 때문에 범주의 오류를 범한 것이다.

셋째, ‘깨달음’과 ‘시대적인 진화’는 서로 범주가 다르며 깨달음은 불생불멸(不生不滅)의 중도불이법(中道不二法)인데 비해 시대적인 진화는 전후가 면면히 상속되고 생멸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대이법(相對二法)의 세계다. 넷째, ‘화두와 간화선’에 대해서는 본칙공안(本則公案) 중 하나를 결택하여 철두철미하게 의심되어진 화두를 들게 함으로써 참 의심을 불러 일으켜 돈오(頓悟)하게 하는 수행법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4. 여러 비판 의견들

전국선원수좌회는 ‘부처님께서 니까야에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설하고 있는 선정수행에 의한 깨달음을 간과한 주장이며 역대 조사(祖師)가 고구정녕하게 설파하신 수증의 종지를 훼손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서재영 박사(불광연구원 상임연구원)는 월간 〈고경〉 1월호에 기고한 “깨달음에 대한 두 가지 해석”에서 ‘잘 이해함’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8식설(아뢰야식)과 같은 마음에 대한 교설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성철 스님의 입장에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5. 조사(祖師)의 깨달음인 견성(見性)과 부처님의 무상정등정각(正覺) 차이

견성(見性)은 성불(成佛)이 아니고 이제 붓다로 가는 여정(旅程)의 시작입니다. 화두 참구를 통해 얻은 견성은 우주본체인 공(空), 마음자리를 잠깐 본 것(본체의 一面만)으로 공부의 끝인 구경(究竟)이 아니라 상락아정(常樂我淨)의 적멸세계로 가는 진짜공부의 시작이며, 선불교 간화선으로 증득할 수 있고, 세계적인 종교(힌두교, 자이나교, 기독교, 유교, 유대교, 이슬람교, 도교)로도 깨달음(見性_ 수다원~아라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팔정도(八正道)에 의하지 않은 깨달음은 올바른 깨달음이 아닙니다. 계율과 선정(禪定)을 통해서 지혜의 문이 열리고 열반(일체의 고통이 멸해지고 윤회를 벗어난)을 수반하는 진리의 깨달음(아라한)이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정법(正法)에서의 깨달음은 선정삼매(禪定三昧)를 필수로 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조사(祖師)들의 깨달음인 견성(見性)과는 천지현격(天地懸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주법계 최초로 불과(佛果)를 증하신 최초불(《법화경》 〈여래수량품〉)로서 소승의 선정(禪定)으로 도(道)를 이룬 것이 아니고 대적정삼매(大寂靜三昧)에 들어 불과(佛果)를 다시 증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무상정등정각(正覺)은 깨치면서 당신의 청정법신 비로자나불과 하나로 계합됩니다. 《화엄경》의 말씀대로 당신의 불신(佛身)인 무량광으로 삼천대천세계를 방광을 하면 삼천대천세계가 육종진동을 하면서 하늘에서는 꽃비를 내리고 또 삼계의 세주(世主)들이 부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며 부처님께서는 우주법계를 대상으로 설법을 하십니다. 이렇듯 부처님은 절대하신 우주 주(The Lord of the universe)이시고 절대적인 힘은 당신의 몸(佛身)인 무량광에서 나옵니다.

6. 불신론(佛身論_ 부처님의 실존)

영산불교의 불신론(佛身論)은 삼신(三身_ 법 · 보 · 화신)에 대해 《금강명최승왕경(金光明最勝王經)》의 내용에 더하여 피부에 와 닿게 붓다의 삼신설(三身說)을 명확히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무아 속 절대계(현대물리학적으로 11차원)에 여여히 계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실존의 경전적 근거는 《법화경》 〈여래수량품〉, 《화엄경》, 《금강경》, 《열반경》에 기술되어 있으며, 우리 부처님께서는 천상천하에 가장 위대하신 삼계 대법왕이시고 지존(天上天下無如佛)이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우주법계 최초로 우주본체인 공(空)과 완전히 합일하여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되시어 우주법계의 주인(Lord)이 되셨습니다. 즉 당신의 몸(佛身)은 불가사의한 무량광(無量光 : 자연의 법칙에 의해 생기는 블랙홀처럼 우주법계를 하나의 점으로 초극미로 압축할 때에 생기는 빛의 본원광으로서 광도와 강도 · 온도 · 속도 등 무한의 힘을 발휘)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현대물리학적으로 비유하면 부처님의 무량광은 아주 짧고 강한 파장이므로 무한의 온도와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고, 무한의 온도와 강한 파장으로 우주법계를 관통하고 있으며 공(空)에서 나온 모든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바, 부처님(무량광)과 인간(나我의 순수본성인 불성佛性)은 빛과 빛의 상속으로 하나(一)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창조주는 없지만 창조주적 능력을 지닌 우주주(The Lord of the universe) 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공(空)의 절대성을 마음대로 활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32상 80종호를 갖춘 지혜 자비 신통 복덕을 넘어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계(三界)를 집어 던질 수 있는 힘과 정업불면인 중생의 업장을 소멸할 수 있으며(중생의 共業力과 空의 동력으로 우주가 탄생하므로 우주를 생성할 수 있는 그 이상의 힘을 가져야 중생의 업장을 소멸할 수 있음) 극무간지옥 갈 중생의 업장도 소멸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신 분입니다.

부처님의 무한한 힘을 다른 외도의 수장들과 비교하면 클리어 요가를 완성한 파탄잘리(Patañjali)나 예수, 그리스도 바바지(2000년 이상 죽지 않고 사는 히말라야 초인)가 낼 수 있는 에너지는 10억 와트로 번개가 내는 순간온도의 대략 1/30의 수준이고, 물질 1g을 에너지로 전환($E = mc^2$) 하였을 때 8만 3천 세대의 월간 전력을 조달하는데 10억 와트는 대략 이 수준의 1/90 정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온 우주법계의 질량을 모두 에너지化 하실 수 있으므로 비교 자체가 불경(不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주법계의 모든 외도(外道)들이 일시에 합하여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순간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위신력과 중생의 지중한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능력, 부처님 가피에 의해서만이 보살이 되고 붓다가 되는 것도 우주본체와 계합되었기에 우주법계의 이치(理致)와 원리(原理)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물리법칙으로도 논증 됨) 강조하고자 합니다.

7. 인간영혼의 실체

영산불교의 위대성은 서구 지성인들이 갈망하는 인간영혼의 실체(영원히 죽지 않는 1 · 2 · 3번 영체, 육체와 1 · 2 · 3번 영체를 연결시키는 4번 영체)를 밝혔다는데 있습니다.(인간의 영체는 4겹으로 다중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윤회주체와 관련, 부파불교에서는 여러 이론(푸드갈라〈Pudgala〉, 識〈Vījñāna〉, 상속〈Saṁtāti〉), 이를 종합한 무착 · 세친의 유식(唯識)에서의 아뢰야식, 선불교에서의 주인공(主人公), 마음자리(空)는 윤회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나我 주인공(主人空_ 1 · 2 · 3번 영체)만이 나(我)의 실체이면서 윤회의 주체이고 이것은 불생불멸(不生不滅)과 무시무종(無始無終)이어야 합니다.

아뢰야식이나 마음자리(空)는 윤회의 주체가 될 자격이 없는바, 첫째, 창조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연소생도 아니어야 합니다(창조론은 아님). 둘째, 무시무종 불생불멸이어야 하는데 아뢰야식은 진여(眞如)에서 무명(無明)이 더하여 생긴 것이기 때문에 부정(否定)하며, 마음자리(空)는 텅 비어있으므로 윤회의 주체자격이 될 수가 없고 셋째, 업(業)의 종자가 보존 훈습 이숙(異熟)할 공간적 개념(6根의 體)을 갖추어야 하는데 식(識)은 그렇지 못합니다. 넷째, 윤회의 주체는 오온(五蘊) 복사체와 닮은 본체(나我 主人空)라야 하고 다섯째, 다층구조(다중구조)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1 · 2 · 3번 영체는 항상 뭉쳐 있음). 그리고 명부(冥府)에 갈 때 나我 주인공(1 · 2 · 3번 영체)이 가며 4번 영체(육신이 생길 때 만들어 짐)는 차원이 달라 커트되고 1 · 2년 후에 산화됩니다. 아뢰야식은 지옥이나 극락에 가서 고(苦)와 락(樂)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윤회의 주체 자격이 없습니다.

8. 맺는말

선불교의 심즉시불 마음이 부처이지 부처님은 없다는 말은 대망어입니다. 극락지옥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부처님과 정법을 모독 능멸하는 대망어로써 죽어서 무간 극무간 지옥을 분명히 간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고한 눈먼 중생을 지옥으로 끌고 갈 작정입니까? 이것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윤회의 주체가 없다고 말하는 것 역시 대망어입니다. 사람 몸을 받아와도 삼중고 사중고의 과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있다 없다를 초월한 무아 속 절대계에 빛의 몸으로 계십니다. 아뢰야식도 선종에서 말하는 주인공도 윤회의 주체의 자격이 없습니다. 신불교에서 고구정녕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산불교대학 교수 법장 합장

■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메일 hyunjigung@hanmail.net

- 춘천본사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 033-243-1787
- 제2본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311 ☎ 064-783-5355
- 부산분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325 이센타워 ☎ 051-554-5150
- 대전분원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0 ☎ 042-525-5325
- 고성분원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항길 7 ☎ 033-681-5515
- 서울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길 18 ☎ 02-453-5953
- 대 구 분 원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 중앙대로 29길 20 ☎ 053-654-5557
- 일 본 분 원 일본국 야마구찌켄 이와쿠니시 오츠죠 3-3-10 ☎ 81-827-31-1661
- 영산불교대학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0 ☎ 042-525-5325



충북 단양군 대강면 사인암리 입구에 위치한 청련암은 조계종 제5교구 법주사의 말사이다. 새롭게 불사한 극락보전 뒤 기암괴석이 무척 아름답다.



아담한 청련암 경내. 오른쪽 바위 사이로 빼곡히 모습을 드러낸 전각이 신비감을 자아낸다.



병풍처럼 둘러쳐진 기암괴석들이 절경을 자랑하는 단양8경중 하나인 '사인암' 전경.

깎아지른 奇岩 속에 내려앉은 한폭 절집

'나'를 찾아 떠나는 山寺紀行

단양 청련암

조선 시대 천재 화가인 김홍도. 그가 한눈에 반한 절세의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단양 사인암. 자연이 조각한 깎아지른 절경으로 빚어진 수려한 경치를 새해 벽두부터 즐기려 찾는이들이 많다. 충청북도 단양은 자연풍경이 수려한 곳이 넘쳐난다. 대표 명소로는 '단양팔경'을 꼽는다.

특히 그 단양팔경 중 5경인 사인암(舍人巖)은 사계절 내내 각계절의 풍미를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 한 해 평균 40여 만 명이 찾는 대표 관광지이다. 처음에는 사인암을 사찰 암자로 착각해 들어왔다가 입구에 청련암이란 암자가 따로 있음을 알고 웃음짓는 관광객도 눈에 띈다. 추사 김정희는 해금강을 연상시키는 이곳을 두고 하늘서 내려온 한 폭 그림과 같다고 찬양했을 정도로 그 경관이 특이하고 아름답다. 고려시대 경사와 역학에 능통한 역동(易東) 우탁(禹倬 · 1263~1342)이 정4품 벼슬인 사인(舍人) 재직시 이곳서 머문 사연이 있어 조선 성종 때 단양군수인 임재광이 사인암이라 명명했다고 전한다. 그래서 암벽에는 우탁선생의 글이 아직도 새겨져 있다. 우탁은 어떤 사람인가. 단양이 낳은 불세출의 인물이다. 그가 원나라에 갔을 때 중국 학자 정관이 우탁의 역학(易學)에 대한 식견에 놀라 "우리가 논하는 주역은 동쪽에 이미 있었다"라고 말했다. 정관의 이 말은 이후에 그의 별호가 되었는데 그것이 역동(易東)이다.

이곳은 높이 50m의 기암절벽이 장관을 이루는데다 맑고 깨끗한 계곡 덕분에 2008년 9월 국가명승 제47호에 지정됐다.

웅장하기로 따지자면 구담봉이나 옥순봉에 비해 조금 덜 하지만 모양새나 감흥은 이들 못지않다. 하늘 높이 치솟은 기암들은 마치 여러 색깔의 비단들로 무늬를 짠 것처럼 색이 화려하다. 바위 꼭대기에는 노송이 여백을 메우고 남조천이 세월의 무게를 뿜어내며 면면히 흐른다. 사인암 아래쪽에는 숱한 시인과 학자 묵객들이 스스로 새겨놓은 글귀와 이름들이 빼곡하다. 사인암 가는 입구에 위치한 작지만 예쁜 암자가 바로 청련암이다.

사력을 살펴보니 고려 말기인 1373년에 나옹선사가 창건했다 전한다. 1592년(선조 25)의 임진왜란 때 소실돼 빈 절로 내려오던 것을 1710년(숙종 36) 인근 대흥사(大興寺) 승려들이 중창하여 선실(禪室)을 세우고 청련암이라 했다. 이후 1741년(영조 17) 장마 비로 떠내려가자 마을사람들의 시주를 얻어 1746년 중건했다. 하지만 그 뒤 다시 폐허가 되었던 것을 1953년 재건해 오늘에 이른다.

1373년 고려말 나옹선사가 창건
목조대세지보살좌상 문화재 볼거리
빼어난 절경에 옛 藝人들 극찬 잇달아

청련암은 말 그대로 작은 암자다. 당우도 극락보전과 요사채, 칠성각 정도로 단촐하다. 그런데 유명한 것이 하나 더 있다. 본존불로 봉안된 조선 후기 목조대세지보살좌상(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 309호)이다. 이 불상은 원래 청련암이 단양군 황정리 산 28에 소재했을 때 봉안한 아미타삼존불의 하나로 대세지보살상이다. 1954년 청련암이 현 위치로 옮겨지면서 본존상은 없어졌고, 관음보살상은 제천 원각사로 그리고 대세지보살상은 이곳으로 왔다. 복장은 지금은 도난된 상태다. 높은 보관을 쓴 보살상으로 전체적인 모습은 불신에 비해 얼굴이 작은 편이다. 보관 안의 머리는 높게 보발을 묶고 일부는 어깨로 늘어뜨리고 있다. 옷은 조선시대 후기 불상의 일반적인 표현처럼 대의를 오른쪽 어깨만을 둥글게 가린 편단우견에 속에 편삼을 입고 있는 형상이다. 편삼자락이 대의에 낀 모습이 도식적으로 표현돼 배 부분에 둥근 옷 주름이 옆으로 두 번 겹쳐 있는데, 이는 충북지역 목조상서 자주 볼 수 있는 특징이다. 손은 아미타인으로 따로 만들어 끼었으며 몸에 비해 크게 조각되었다. 보관 역시 나무로 형상을 만들고 표면에 화염문과 운문, 새 등을 금속으로 조각해 부착했으나 다소 부식이 있다. 이 상의 조성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인근 제천 신륵사의 목조삼존불상(擁正 8년, 1730년 작)과 양식적으로 연관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18세기 전반 작으로 추정된다.

청련암의 목조대세지보살좌상은 비교적 큰 규모의 불상으로 제천 원각사의 목조관음보살상과 더불어 원 청련암의 아미타삼존상이던 유래가 있는 상으로, 양식적으로도 같은 특징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배 부분에 둥근 옷 주름이 옆으로 두 번 겹쳐 있는 점이 특징인데, 이와 같은 예는 제천 신륵사의 목조보살좌상(1730년)에서도 볼 수 있어서 양식적으로는 18세기 전반 충북지역에서 유행한 불상양식의 한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깎아지른 절벽에 위치한 칠성각은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야 하지만 '참나'를 만나기 위해 잠깐 좌정하며 속세의 번뇌를 조금 떨어내기에 안성맞춤이다.

단양=김주일 기자



목조대세지보살좌상(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 309호).



주변 광광지

산수화보다 더 그림같은 단양팔경

단양 최고의 명소다. 단양군을 중심으로 12㎞ 이내 자리한 명승지를 지칭하는 단양팔경은 이름처럼 아름다운 8곳의 명승지로 나뉘어 있다. 봄이면 철쭉이,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하선암과 중선암, 상선암을 비롯해 고려 말 학자 '우탁'이 사인재



관 벼슬에 있을 때 휴양하던 곳인 사인암, 거북과 같은 기암괴석이 돋보이는 구담봉, 퇴계 이황이 이름을 붙인 옥순봉, 정도전이 머물던 도담삼봉(왼쪽 사진), 무지개 모양의 돌다리가 걸려 있는 석문 등이다. 그 중 도담삼봉은 남한강 상류에 3개 기암으로 이루어진 섬이다. 짙푸른 강물 한가운데 우뚝 솟은 기암괴석이 고고한 자태를 뽐낸다. 특히 이곳은 정도전이 중앙봉에 정자를 짓고 경치를 감상하고 풍월을 읊었던 곳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이곳 이름을 따서 자신의 호를 '삼봉'이라고 지었다고 전해진다.

온달관광지

단양팔경과 더불어 단양을 대표하는 관광지 중 하나는 '온달관광지'다.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를 담은 이곳은 민속놀이장과 향토음식점, 온달촌, 온달관, 전통혼례장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자리한다. 또한 언제 세워졌는지도 가늠하기 힘들 만큼 오랜 세월을 머금은 온달산성과 신비로움을 간직한 온달동굴도 볼거리이다.



(1) 마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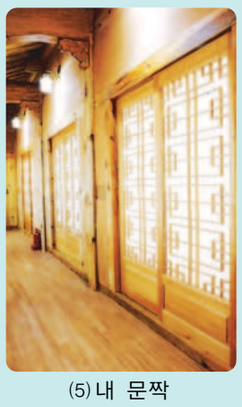
(2) 정원 전경



(3) 거실



(4) 주방시설



(5) 내 문짝



(6) 욕실



(7) 툇마루

스님!

우리절도 신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세요...

기도 명상 휴양 야외법회 펜션

1차 6개동 분양

강원도의 수려한 명산 치악산 자락에 국내 처음으로
나무와 흙으로 빚은 '붓다한옥마을'을 탄생시켰습니다.

특 징

❶ 부처님, 산신을 모실 수 있는 법당 (별채)
❷ 야외법회를 할 수 있는 넓은 잔디공간
❸ 신도 가족을 위한 펜션
❹ 건강을 위한 찜질방

※ 평일에는 일반인들을 위한 펜션 대여로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통편 (찾아오시는 길)

■ 2016년 고속철 완공으로 서울에서 30분 소요
■ 새말 IC에서 5분거리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 589-1)

분양 면적

대지 500평 한옥 44평 별채 10평
대지 300평 한옥 44평 별채 10평
대지 430평 한옥 44평 별채 10평
대지 200평 한옥 23평 (은행 융자 가능)

(주) 태백산업
직접분양 상담문의 010-5530-6814



김용태 교수의
한국불교 토픽 36選

승려 존재 개념 약화… 契會로 기반 다져

26. 조선후기 승역과 사원경제

17세기 이후 문파가 형성되고 법통, 교육 및 수행체계를 세우면서 불교가 존립할 수 있었던 데는 승려의 자격과 활동이 인정되고 사원경제의 토대가 어느 정도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이후 국가는 승려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대가로 승려의 특수신분을 용인하는 정책을 펼쳤다. 전쟁에 참여한 의승군에게는 도첩에 상응하는 선과를 지급하였고 팔도도총섭 휘하에 도별로 2명의 총섭을 두어 의승군을 조직, 통솔하게 하였다. 전란이 끝난 뒤 국가재조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광해군대에는 궁궐 등의 조영에 승군을 동원하였고 인조대에는 보다 제도화된 방안이 시행되었다. 즉 벽암 각성을 팔도도총섭으로 임명하고 삼남지방의 승도를 동원하여 남한산성을 축성하였고, 산성의 조영과 방비에 기여한 승군에게 도첩을 발급한 후 군역을 담당했음을 증명하는 호패를 지급하였다.

이처럼 임진왜란 이후 17세기부터는 궁궐, 산성, 능묘, 제방 등을 조성할 때 국역 체계 안에서 승려 노동력을 적극 활용하였다. 당시 양인 역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국가 요역체계의 원활한 운영이 쉽지 않은 상태였고, 이에 노동력을 직접 징발하는 대신 점진적으로 금납화의 방향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동원하기 쉽고 노동 효율성이 비교적 높은 승역에 주목하여 이를 국역체계 속에 편입시킨 것이다. 산성의 방비 뿐 아니라 〈조선왕조실록〉 등을 보관하는 4대 사고의 수호나 변방지역의 군역 일부도 승군이 담당하였다. 그 결과 17세기 후반부터는 승역을 직역의 하나로 보아 호적에 승려 호를 기재하게 되었다. 이는 승려가 더 이상 출세간의 존재가 아닌 일반 민과 다름없는 국가 체제 내의 구성원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지역별, 주요 사찰별로 부과된 승역은 불교계에 큰 부담을 주었지만, 역으로 승려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안정적인 인적 재생산이 가능해졌고 정치사회적 입지를 마련할 수 있었다.

숙종대인 1711년에는 북한산성 조성에 다시 승군이 동원되었고, 남한산성에 개원사를 비롯한 9개의 사찰이 있던 것처럼 북한산성에도 중흥사를 필두로 한 11개의 진호사찰이 두어졌다. 각 사찰에는 수승과 승장 각 1인씩을 두었고 남 · 북한산성의 승영을 관할하는 승대장은 전국의 승려를 총괄하는 팔도도총섭을 겸임하게 되었다. 두 산성에는 총 700명의 승군이 상주하였는데, 1년에 6차례 교대로,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6도의 승려들이 상번, 입역하는 의승방번제가 실시되었다. 이후 산성의 상번 입역이 각지의 사찰에 인적, 재정적인 부담이 되자 영조대인 1756년에 북한산성 도총섭을 역임한 호암 약휴의 건의를 받아들여 남북한산성에 윤번제 대신 방번전제를 시행하였다. 이는 승려들이 멀리서 교대로 입역하는 대신 매년 승려 1인당 40량씩 해당 사찰에서 분담하여 상주하는 승군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18세기 중반부터는 '승려 또한 백성'이라는 전제 하에 산성을 제외한 국가부역에서 승려를 과도하게 동원하지 못하게 하였다. 산릉역의 경우 1757년을 끝으로 종식되었고 지방의 기타 공역도 필요한 양식을 관에서 지급하게 하였다. 또한 각종 잡역과 종이 등 특정 공물의 납부가 사찰 재정에 큰 부담이 되어 산성 방번전 액수의 충당에 어려움이 있다는 불만이 일자 정조는 1785년 남북한산성의 방번전을 반감시켰다. 이처럼 승려 노동력을 직접 활용하는 방식에서 금납화로의 전환이 있었고 또 그 액수도 점차 주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조선후기 불교는 사원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계를 운영했다. 또 승역이 부과되면서 전문기술을 갖춘 승려들이 배출됐다. 승시(僧市)도 사원경제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불교문화창달에 앞장선 스님들이 수준 높은 작품을 내놓곤 했다. 사진은 팔공산 승시축제 봉행위원회가 주최하는 승시에서 한 스님이 불화를 그리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팔공산 승시축제 봉행위원회

17c 승려 노동력 국역 활용
균역법 시행에 승역 과중화
전문기술 갖춘 승려 배출도

이러한 불교 시책의 변화는 국역 및 국가 수취체제의 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1751년 균역을 대신하는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인 균역법의 시행으로 양인의 역이 경감되었고, 이는 상대적으로 승역이 양역에 비해 과중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기존에는 양역을 피해 승려가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 승역을 버리고 환속하는 '역피역'의 사례가 늘었다. 또한 승역이나 공물, 잡역 등이 과도하게 책정된 이름난 큰 사찰을 비우고 작은 사암으로 승려들이 옮겨가는 일도 생겨났다. 18세기 후반에 들어 방번전제의 시행이나 반감 조치, 잡역 혁파 등의 조치가 연이어 내려진 것은 이러한 정책적 변화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면 앞서 각종 공물을 미곡으로 대납하게 하는 대동법의 시행이나 균역법처럼 양인의 국역 부담을 경감시키고 금납화의 방향으로 전환된 정책방향과 궤를 같이 하여 불교시책도 변화한 것이다.

18세기 조선의 르네상스를 연 영조는 "유교의 도가 크게 성하니 이단이 어찌 해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불교에 대해 종전과 같은 방임정책을 취하였다. 영조대는 물론 이후에도 왕실 원당의 혁파령이 간혹 내려지기는 했지만, 이는 공론의 장에서 나온 언설일 뿐이었고 왕실의 경제기반과 밀착된 원당의 완전한 혁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그 결과 왕실 원당은 조선말까지 계속 존속하였다. 탕평 정치를 폈던 정조대에도 불교는 국왕의 보호와 관리를 받았고 왕권 강화에도 일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정조는 일부 혁파되었던 왕실 원당을 부활시키고 선왕의 원찰을 중수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국왕과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재정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그간 특수한 성격을 지니는 승역을 근거로 하여 조선후기 승려의 사회적 신분이 천인과 다름없었고, 승려가 8천의 하나였다는 잘못된 인식이 통용되어 왔다. 그러나 승역은 천인이 아닌 양인의 역에 준하는 의무였고, 기본적으로 승려는 대를 이어 세습하는 사회적 신분이 아닌 자신의 의지에 따라 출가한 선택적 존재였다. 또한 조선후기 승려의 출신 배경은 양인이 가장 많았고 양반부터 천인까지 다양한 신분을 포괄하였다. 특히 학승이나 고승들은 대개 한문을 읽고 글을 쓸 수 있는 지식인층으로서 양반 사류 출신도 적지 않았다. 승려가 8천에 들어간다는 인식은 일본인 학자 다카하시 토오루가 〈이조불교〉(1929)에서 불교가 침체되고 승려가 사회적으로 경멸을 받았다는 주장과 함께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인식상의 통념이나 개별적 사례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법제에 나오는 7종의 천인에 승려를 임의로 추가한 것일 뿐이며 조선후기 법전이나 다른 사료에서 전혀 그와 관련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조선후기에는 승역 및 잡역, 공물의 많은 부담 속에서도 사원경제의 자립적 기반이 만들어졌다. 현존하는 전통사찰 대부분이 17~19세기에 중창되었고 그 안에서 수행과 교육, 다양한 신앙 행위가 이루어졌다. 이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토대가 확보되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17세기 이후 사원경제의 기반과 관련하여 가장 큰 변화는 승려의 사유 전답 확대와 그 소유 및 상속이 제도적으로 용인된 점을 들 수 있다. 이전에도 승려 개인의 토지소유가 일부 확인되기는 하지만 조선후기에는 승려의 토지 소유와 상속이 공식화되었고 관행으로 이어졌다.

승려 사유지 발생의 직접적 계기는 전국토를 유린한 임진왜란이었다. 7년간의 전란을 거치면서 토지 황폐화와 소유권의 혼란이 일어났고 이는 사찰 소유 전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사원경제에 큰 타격을 가져왔다. 당시 폐허가 된 사찰을 재건하고 승군 활동과 문파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재정확보의 필요성이 절실하였다. 또한 현물 대신 곡식으로 공물을 납부하는 대동법이 시행되자 토지의 소유자가 납세자로서 중요한 법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승려 사유지가 늘어나고 그 상속이 문제가 되자 조선 정부는 처음에 승려 개인의 사유지를 사찰 내에서 제자에게 상속하는 것을 금하였다. 하지만 17세기 중반 속가의 친족뿐 아니라 승려 사제 간에 개인 토지를 상속하는 것을 결국 인정하였다. 이는 승려 개인이 부모나 스승에게 물려받은 전답을 제자에게 상속하고 결국 그 토지가 사찰이나 문파 소유로 대대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사찰의 재산증식과 재정운영을 위한 조직 결성 및 보사(報謝)활동이 활발히 일어났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찰계이다. 사찰계는 승려를 중심으로 신도까지 참여하는 신앙공동체의 성격을 띤 일종의 계회였다. 조직적 신앙 활동을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이를 매개로 이식을 늘려서 사찰에 기부하거나 전각을 조성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사찰계의 종류는 동년배들이 결성하는 갑계, 같은 문파 승려들이 조직하는 문중계, 사찰의 전각 단위로 조성 및 중수를 추진하는 불량계 등이 있었다. 또 신앙 위주의 사찰계로 가장 대표적인 염불계를 비롯하여 칠성계, 미타계, 지장계 등을 들 수 있다. 이밖에도 사찰 주변 산림을 육성하기 위한 송계, 승려교육을 위한 학계, 범패의 전수를 위한 어산계 등 특수한 목적을 지닌 다양한 계가 존재하였다. 한편 보사청은 고위직 승려들이 중심이 되어 사찰의 재정 자립을 추구한 일종의 사설 금융기관이었다.

이밖에도 유력가의 후원이나 재회, 기도 등을 통해 들어오는 시주금 등 전통적 방식의 수입원도 여전히 존재하였다. 특히 사찰이 왕실, 궁방의 원당으로 지정되면 공적인 재정 부담이 줄고 공권력 침탈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으며 후원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거짓으로 원당임을 사칭하는 사찰이 나올 정도였다. 한편 조선후기에는 잡역 및 각종 잡물의 공납 등을 수행하면서 사찰의 승려들이 수공업 등의 전문기술자로 활동한 경우가 많았다. 사찰에서 주로 담당한 종이 생산과 목판 인쇄 기술의 축적은 물론 뛰어난 목공과 석공, 화승 등이 배출되었다.

전란의 피해를 극복하고 국가재정이 전쟁 이전 수준을 만회한 17세기 후반부터는 각지에서 큰 불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일반 사회는 물론 사찰의 재정기반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기에 가능한 일로써 여러 사찰에서 대규모 전각이 중창되었다. 또한 많은 불상과 불화의 제작, 이를 담당한 다양한 화승 집단의 존재, 야외 법회를 위한 대규모 괘불 그림의 조성 등 물적 증거를 통해 사원경제의 기반이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불교신앙을 매개로 한 왕실 및 유력가, 일반 민인들의 기원과 후원이 지속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후 19세기에는 왕후와 외척 세력을 중심으로 정국이 운영되는 세도정치가 시작되었고 특혜와 비리, 사회적 혼란이 거듭되면서 공적 기강이 무너지고 중앙과 지방의 국가 운영시스템이 와해되었다. 이는 경제적 모순과 양극화 현상의 심화를 낳았고 각지에서 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불교계의 경우에도 지방관이나 토호들이 사찰을 침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 등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였다. 물론 왕실과 정부 차원에서 주요 사찰의 잡역을 혁파하고 원찰에 특혜를 내리기도 했지만, 불교도 일반 사회와 마찬가지로 많은 곤경을 겪었다. 그리고 그러한 어두운 기억이 20세기에 들어 조선후기 불교 쇠퇴론과 승려 천인설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로 고착화된 것이다.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축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육과정

(1) 초 · 중급과정
◆ 조석예불 ◆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달림
◆ 바라춤 : 요잡(막바라), 관욕바라, 천수바라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게
◆ 49재, 천도의식

(2) 상급과정 – 초 · 중급 이수자에 한함
◆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신중작법(104위, 39위), 욕건이
◆ 다게나비춤작법, 운심게작법
◆ 가지게

◆ 개강일시 : 수시모집 가능
◆ 교육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6시
◆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포함), 월 10만원 (3개월 선납시 10% 할인)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사진 1매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연 락 처 : 054)975-4339

■ 강주스님 : 성 우

▣ 접수처 및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교구종무원 (전화접수 가능)
경북 칠곡군 가산면 인동 가산로 1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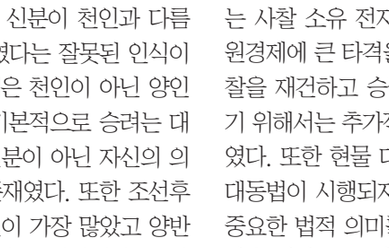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교구종무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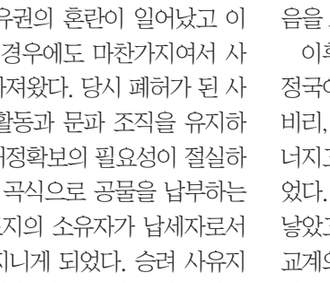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대出力 믹싱앰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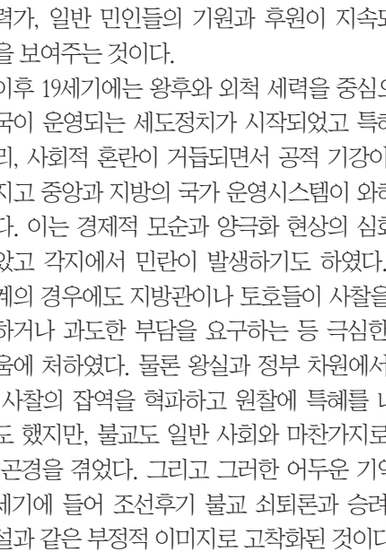
오래된 앰프를 『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니까야서 길을 묻다 2. 다양한 불교 용어의 독법(讀法)

불교 大意 효과적 설명 필요

현존하는 초기불교 경전인 팔리어본 다섯 〈니까야(Nikāya, 모음집/분류한 것)〉와 한역(漢譯)된 네 가지 〈아함(阿含, 전승된 것)〉에 담겨 있는 수많은 언어들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것일까? 또한 거기에서 제시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의 길이란 과연 무엇일까?

흔히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간단한 형태로 등장하는 이 질문은 불교의 '목적'과 '특징'이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월포라 라훌라'의 저서에서 보이듯이 '부처가 가르친 것'에 대한 파악이 이러한 질문에 답하려는 노력이다.

초기불교 경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불교 용어들은 대단히 많다. '삼법인(三法印), 오온(五蘊), 십이처(十二處), 연기(緣起), 중도(中道), 사성제(四聖諦), 팔정도(八正道)' 등의 개념들은 사실상 오늘날의 전문용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체의 체계 속에서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끈기 있는 사색의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나아가 이와 같은 개념들은 서양의 학문전통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의 이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삶의 여정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모습을 제시하기 위해서 마련된 설명체계라는 점, 그래서 처음부터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성격을 띠고서 우리들 일상의 삶의 문제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지금 여기에서 체험되고 실현되어야 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불교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불교 개념들의 존재는 부담을 주며 그 의미가 모호하고 어려울수록 하나의 장애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 먼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불교의 대의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설명하는 길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두 가지 접근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 길은 수많은 불교 용어들이 불교의 교리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암호처럼 여겨지지 않도록 분명한 언어를 구사하여 설명하려는 태도의 확보이다. 다시 말하면 불교 용어를 쓰지 않고 불교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자기 성찰적인 태도의 필요성이다. 비록 어설프고 부족한 언어라 할지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의 언어로써 풀어내려는 노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이 확산될 때 이웃 종교 그리고 다른 사상들과 대화 가능한 언어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길은 경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지평을 확보하는 일이다. 곧 경전의 내용 전체를 입체적으로 탐구한 이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읽어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지침 또는 독법(讀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른바 하나의 텍스트에 내재되어 있는 기획의도를 읽어내는 관점의 확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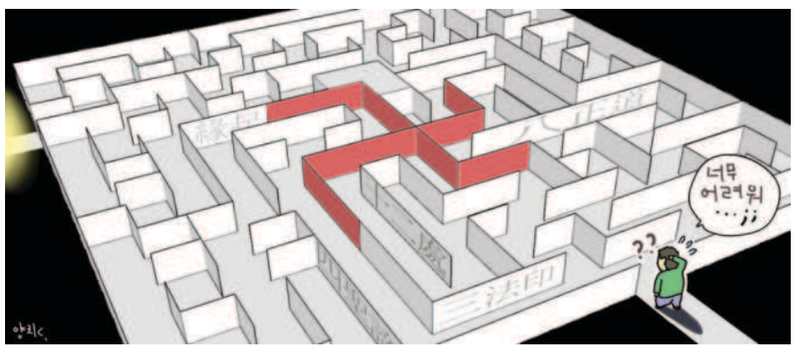


그림 · 양경수

이를테면 '유익함과 청정성의 추구'라는 말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 〈니까야〉에 등장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것이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하나의 정신을 읽어낼 수 있다. 이는 세 가지 단계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나에게도 남에게도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가이고, 둘째는 자신의 행위와 마음을 정화하여 욕망이나 집착에 오염되지 않는 청정함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한 점검이며, 셋째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소멸되어 참된 평온을 이룩함(涅槃)'에 있다. 그러나 유익함과 청정성의 지향은 불교적 삶을 추구하는 하나의 과정이지만 궁극의 목표는 아니다. 해탈과 열반의 길의 성취가 수행의 여정에서 가장 정점에 있으며, 이것이 바로 불교의 목적인 것이다.



김준호(불교철학/울산대 연구교수)

지역 내 무료급식 40년…

부산사하사암무료급식소


부산사하구불교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사하사암무료급식소'는 1995년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매주 월, 화 무료급식을 진행하고 2013년 6월 현재 사하보훈회관 지하로 자리를 옮겨 나눔을 진행하고 있다. 2010년부터 매년마다 장수사진을 무료로 촬영하며 장학금 전달, 불우이웃돕기 김치 · 쌀 나눔, 경로잔치, 산사음악회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2013년 사하구청장상, 2015년 부산시장상을 수상했다. 스님들도 공로를 인정받아 부산시장상, 부산경찰청장상, 사하경찰서장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여러 명이 먹을 밥과 반찬을 혼자 만드는 일은 어렵다. 하지만 백짓장도 맞들면 나은 법, 많은 이들이 일손을 보태면 달라진다. 그만큼 함께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일도 가능케 하는 무궁한 힘을 갖고 있다.

200명을 위한 공양을 만드는 일 역시 불가능할 것만 같았다. 대형 사찰도 없었을 뿐더러 지역형편도 썩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사하구 불자들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쳤고, 40년간 그 기적을 이어오고 있다. 바로 부산 최고 빈민지역으로 불렸던 사하구에서 지역민들을 위해 매일 한 끼 식사를 정성으로 대접하고 있는 '사하사암무료급식소'다. 부산사하구불교연합회 스님들과 불자들이 보살행을 펼치고 있는 현장을 지난 11일 방문했다.

정성과 배려로 공양 올려

머리가 희끗한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계단을 내려가며 꾸부정한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한걸음 한걸음이 벅차다며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어르신들은 발걸음이 급한 기자를 위해 길을 내어주며 연신 쉬었다 내려가길 반복했다. 사하사암무료급식소는 부산 괴정1동에 위치한 사하보훈회관 지하에 둥지를 틀었다.

오전 10시 30분, 급식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미 빈자리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붐볐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자리에 편히 앉아 배식을 기다렸다. 한 할머니가 음식을 받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봉사자가 "앉아계시라"며 일일이 식사를 배달했다. 식판에는 뜨끈하게 끓인 소고기국과 오색으로 예쁘게 빚은 송편, 각종 나물들이 먹음직하게 담겼다.

"1년에 250만원이 넘는 월세를 내고 있지만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나마 어르신들이 찾아오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물에 비해 계단도 적고 오는 길도 많이 가파르지 않고…."

사하구불교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회장 혜우 스님(약수사)은 말끝을 흐렸다. 어르신들을 위해 값진 봉사를 하고 있음에도 죄송하다고 했다. 지금보다 더 편한 장소로 어르신들을 모시지 못해 아쉬움이 가득하단다. 혜우 스님은 오랜 숙원 사업이 바로 '어르신들을 위한 편안한 식사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의 급식소도 하얗게 도색해 정갈한 벽과 넓은 공간, 직접 조리할 수 있는 깨끗한 부엌까지 별다른 부족함은 없어 보였다. 스님의 '조금 더 나은'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혜우 스님은 "사하구불교연합회관을 하나 마련해서 추울 때는 더 따뜻하게 모시고 더울 때는 시원하게 모시고 싶다. 계단이 없으면 어르신들이 더욱 편하게 방문할 수 있고, 사랑방처럼 문화생활도 하기 좋을 것 같다. 이 공간이 단순한 급식소가 아니라 종이 접기, 이발 등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인 바람을 밝혔다.

스님과의 인터뷰 중 식사를 마친 한 어르신이 합장인사를 올렸다. 스님의 손을 잡으며 감사 인사를 거듭 전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정리하는 모습도 보였다. 스님에게 엄지를 '척' 들어 보이며 만족스러운 웃음으로 격려하는 어느 할머니의 미소가 퍽 행복해보였다.

40년간 빈민지역 위해

지금의 급식소는 1976년 사하시장에서 진행하던 무료급식현장이 모태다. 당시 사하불자회가 매주 월 · 화에 무료급식에 동참했고, 사하사암무료급식소 스님들은 수 · 목을 담당했다. 현재 사하사암무료급식소에서 급식을 돕는 사찰은 10개, 그 가운데 8개 사찰이 함께 했었다.

"당시 연세 많으신 스님들이 저희를 이끌어 주셨어요. 지금은 많이 연로하셔서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선배 스님들께서 저희들의 귀감이 되어주셨죠. 굶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았지만 당시에는 무료급식이란 말조차도 생소했습니다. 그때 사하시장에서 무료급식을 한다는 말을 듣고 발벗고 동참했죠. 누가 주관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부살이였어요. 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어 아쉽다는 것만 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봉사를 더 늘려 나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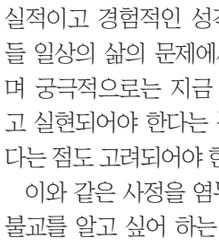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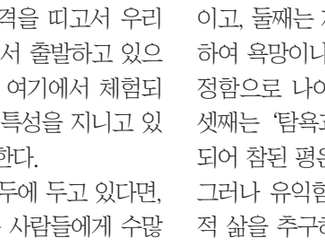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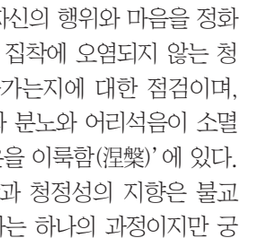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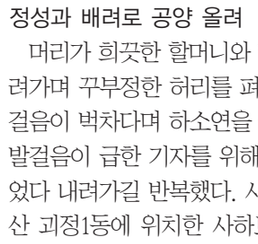
이후 1980년 스님과 불자들은 부산 용두산 정수사에서 진행하는 무료급식소에도 찾아갔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공양을 담당했다. 여름에는 800명, 겨울에는 600명 정도가 그곳을 찾았다. 여름보다 겨울에 사람이 줄어든 이유는 동사자가 그만큼 많았기 때문이란다. 그만큼 어려운 시절이었다. 1984년 스님들은 다시 사하구 지역에 집중하며 독자적으로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정확히는 사하구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단다.

"전쟁 고아원 집결지였습니다. 버림받은 할머니들이 모여 살던 모자원, '빈민굴'이란 표현이 어울릴 겁니다."

당시 부산에서는 도시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가난했던 전쟁 피난민들의 정착지를 철거하고 변방이었던 사하구로 강제 이주시켰단다. 그런 그들에게 제


• 공단등(6㎝) @2,500원
• 공단등(8㎝) @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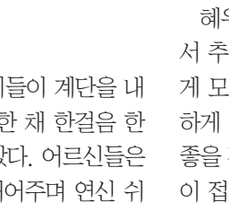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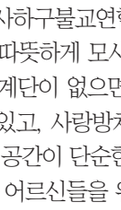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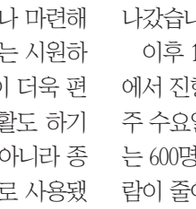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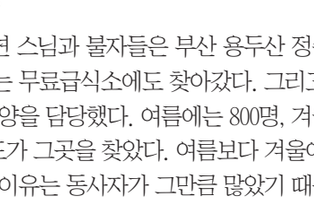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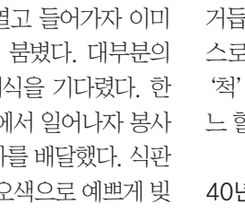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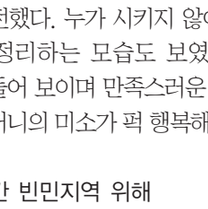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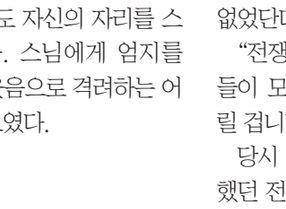
• 바림등(8㎝) @3,000원
• 황금등(8㎝) @3,3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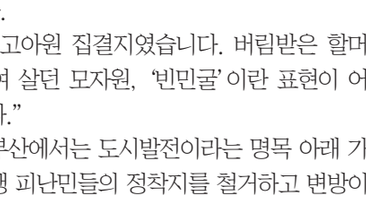

일반연잎 6,000

바림연잎 7,000

한지바림연잎 8,000

국산 LED전구(50개) 90,000원

방수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 22㎝ (50구) @65,000
• 23㎝ (50구) @65,000
• 25㎝ (50구) @65,000
• 30㎝ (50구) @65,000
• 35㎝ (50구) @70,000
• 40㎝ (50구) @73,000
• 50㎝ (50구) @75,000
• 1 m (50구) @90,000
• 2 m (25구) @80,000

고급 국내산양초
밀 대(70)
돈타레(40)
원기둥(20)
박스@90,000원

한지 삼재풀이
할인가 700원(100개이상)
정 가 9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삼베 삼재풀이
할인가 800원(100개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한지입춘대길(大/2도)
판매가 12,000원 大 (10×43cm)
10,000원 2도 (7×30cm)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경면입춘대길
판매가 6,000원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 크 기 : 7.5×30㎝

입춘대길(大/小)
판매가 3,000원 / 2,500원
• 포장 : 100매 비닐포장
• 크기 : 大 7.5×28.5㎝ (흰색/노랑)
小 5×19.5㎝ (노랑)

금지경면 종합부
판매가 800원 (개당)
• 크 기 : 60×7㎝ (빨강/노랑)
• 포 장 : 개별 봉투포장

경면삼매삼재부
판매가 6,000원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 크 기 : 10×15㎝ / 9×14㎝

경면삼재부
판매가 6,000원(100매)
• 크 기 : 9×20㎝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경면삼재부
판매가 6,000원(100매)
• 크 기 : 9×20㎝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한지 세뱃돈봉투
판매가 10,000원 (100매 포장)
A : 흰색 / C : 노랑-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B : 흰색 / D : 분홍- 참 좋은 인연입니다.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0-3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356-0976-5320-43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각 사찰 十匙一飯 정성 전해”

공됐던 땅은 겨우 10평 남짓, 쫓겨나 갈 곳이 없었던 이들은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야 했다.

이들을 위해 스님들은 1995년 6월 정식으로 무료급식소를 열었다. 그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오직 십시일반으로 정성을 모아 문을 열었다. 돈뿐만이 아니었다. 스님들과 불자들은 청소를 하고 식기를 닦으며 깨끗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바삐 움직였다.

“그때 처음 임대했던 장소가 어느 가정집 지하였습니다. 이전에 불이 났던 곳이었는데 손 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죠. 곰팡이는 말할 것도 없었고 배관 시설, 상수도 공사, 조리 시설 까지 새롭게 장만해야 했습니다. 인력을 부를 수 있는 형편은 안 됐고 스님들과 불자들이 나서서 모두 함께 청소하고 준비했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급식소를 찾아 매주 월 · 화요일마다 60여 명의 사람들이 찾아들었다. 아침 일찍 시장에서 장을 보고 식자재를 다듬어 위생적이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자 금세 입소문이 퍼졌고, 점차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확실한 위생을 위해 냉장고도 두지 않았다. 그날 마련한 재료를 당일에 소비하기 위해서다.

“지금도 저희는 냉장고를 두지 않습니다. 신선함을 위해서는 냉장고가 있어야 할 거라 생각하지만 가장 신선한 것은 그날 사서 그날 바로 조리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가장 맛있는 음식을 위해 저장한 것을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성과 배려로 마음을 다한 공양은 소문이 났고 100명으로 늘어난 사람들을 더 이상 수용하기는 어려웠다. 35평의 공간으로는 턱 없이 부족했다. 어르신들은 줄을 서서 기다렸고 스님들은 이런 상황이 마음 아팠다고 한다.

“어르신들이 추운 날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너무 속상했습니다. 어서 다른 공간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더 좋고 따뜻한 공간에서 모시고 싶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스님들은 새로운 공간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넉넉지 않는 형편이었지만 다시 십시일반 돈을 모았다. 그 원력으로 2013년 6월 지금의 사하보훈회관 지하 1층에 100평의 공간을 얻었다. 매주 월, 화 오전 11시가 되면 2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 자리를 잡는다.

올해 급식소 운영비로 필요한 예산이 총 8000만원이다. 소소하게 드는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오직 급식과 시설 유지에만 소요되는 금액이다. 스님들은 보금자리가 된 이곳에서 자신들의 주머니를 털어 내놓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한다. 또 가장 의미 있다고.

나눔은 삶이 되어

오랫동안 큰 스님들과 함께 활동하며 그 삶을 면면히 봐왔던 사하사암무료급식소 스님들은 “나눔이 곧 습관이 됐다”고 했다. 이웃을 살피기 위해 마을의 통장을 알아두는 것은 필수라는 용주암 정홍 스님은 나눌 수 있기에 행복하다고 말했다.

“통장들은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잖아요. 그분들을 알아두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 좋더군요. 그분들을 통해 손주를 데리고 폐지를 주우며 어렵게 사는 할머니들을 알게 됐어요. 밤에 몰래 쌀을 전달해드리려 갔는데 깜짝 놀라시며 어느 교회에서 왔느냐고 묻기도 했죠. 하지만 나눠드리러 가는 길은 정말 행복합니다.”

사하구 10여개 사찰 동참
지역민 사랑방으로 거듭나
불교연합회관 건립 발원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펼쳐
지역 6개 병원 인연 맺고
환우들 찾아가 위로봉사도

칠보사의 승공 스님은 급식소를 찾는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에도 슬리퍼를 신고 오면 곧장 뛰어가 털신을 사서 신겨드린단다.

“별다른 건 없습니다. 자동으로 몸이 움직이는 거죠. 요즘에는 인재불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급식소 앞에 종립학교인 해동고교가 있어요. 해동장학회에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다. 매년 김장을 담아 동사무소를 통해 전달하던 약천사 법인 스님은 3회째가 되던 해 직접 김장김치를 이고 배달에 나섰단다.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을 봤습니다. 매년 그분들에게 김치가 전달됐겠지 했어요. 근데 속상하게도 전달이 안 됐더군요. 보살님들과 함께 직접 김치를 가져다 드리면 사실 감사해 하는 건 결국 보살님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봉사를 하며 알게 됐다는 거죠. 살아있는 가르침의 현장이 됩니다.”

사찰을 찾는 신도들에게 어느 집이 형편이 어렵냐고 묻는 게 버릇이 된 대부암 선혜 스님, 소리 소문 없이 보살행을 하는 것이 가슴 속 보배처럼 됐다는 무학사 보승 스님, 무슨 일이 있어도 급식소를 찾아 봉사하는 보살들이 가장 고맙다는 문수암 묘덕 스님, 총무 소임을 맡아 매달 회원 스님들과 불자들을 격려하며 살림을 보살피고 이끌고 있는 해장암 송우 스님, 성불사 혜원 스님, 길상사 자인 스님, 그리고 스님들을 따라 보살도를 실천하고 있는 재가불자 모임 지장회 이귀연 회장까지 사하사암무료급식소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행복 위한 사회운동으로

스님들의 활동은 무료급식소에서 사회운동으로 발전해 나아갔다. 시대적 변화의 필요성에 맞춰 스님들은 매달 첫 주에 월례회를 개최하고 더 나은 나눔은 무엇인지 논의했다. 그렇게 스님들은 지역에 있는 병원들을 방문해 환우들을 찾아 손을 잡기 시작했으며, 그들을 위한 위로연을 두 달에 한 번씩 베풀었다. 그렇게 방문하고 인연을 맺은 병원만 6군데다. 또한 무료급식소에서 경로잔치, 장수사진 촬영, 다대포 해수욕장 청소년 선도 및 성폭력 · 가족폭력 · 학교폭력 · 불량식품 4대악 근절 캠페인, 사하구 관내 쌀 전달,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 불자의 밤 한마당, 고혼영가 수륙재, 을숙도 낙동강 철새먹이 지원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스님들은 무료급식소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로 ‘화합’을 꼽았다. 활동하는 스님들과 불자들만이 아니라 지역민들과 하나가 됐다고.

“처음에 급식소 문을 열 때만 해도 주민들의 우려가 많았어요. 지금은 주민들이 이곳을 찾아 봉사도 하고 쌀을 기부하기도 해요. 지역민들이 나눔을 실천하는 구심점이 됐죠. 그래서 이제는 급식소가 지역민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길 발원합니다.”

음식은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주는 필수요소다. 이런 에너지에 보살핌과 사랑이 더해지면 사람들은 삶의 만족을 얻는다. 나눔으로 얻은 행복으로 고슬고슬 지은 밥이 온 세상을 두루 밝히길 발원한다. 〈후원계좌 부산은행 101-2007-6614-08(사하사암무료급식소)〉

부산=하성미 기자


급식소 스님들의 요양병원 위문공연.



2013 사하구자원봉사의 날 시상식.


환우에게 위문품을 전하는 사하구 스님들. 왼쪽서 두 번째가 회장인 혜우 스님.

전법일기

한 지붕 세 가족 포교

대한민국의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존재가 바로 국군이며, 그 가운데 가장 병력이 많고 전국 각지에 퍼져 있는 것이 바로 육군이다. 최전방 휴전선을 지키는 부대부터 내륙 곳곳의 안전을 지키는 향토사단까지 그 수만도 50만 명을 넘는다. 하지만 그 중 군승법사는 몇 명일까? 89명뿐이다. 이렇게 적은 인원이 50만 명의 장병들을 대상으로 불법을 전하고 한 명이라도 더 불법에 다가서게 하기 위해 포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은 비단 군승법사뿐만이 아니다. 현재 군에는 목사와 신부 그리고 원불교 교무까지 군종장교로 파송돼 있다. 종교적으로 추구하는 바와 신행의 형태가 다른 사람들이 지만 군에서는 군종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뭉쳐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모습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성탄절에 교회나 성당에 군승법사들이 가서 축하해 주고, 장기자랑 등에 심사위원을 맡기도 하며, 축하 선물을 나누거나 생일축하 기념으로 꽃이나 케이크를 보내기도 한다. 또 부처님오신날에 목사와 신부들이 법당에 방문해서 부처님 관욕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본디 각각의 종교를 대표해서 군에 파송된 것이기에 미묘하게 자존심 문제가 대두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

과거 이러한 자존심 문제가 군내 종교 인구 조사에서 불거졌다. 사회에서 인구 조사를 할 때 종교인구를 조사하듯 군에서도 간부를 포함한 모든 병력들의 종교를 조사하고 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마다 임관하는 군종장교의 종교별 인원 배정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물적 · 인적 지원의 우선순위나 규모가 결정된다.

군종장교들에게는 은근히 자존심이 걸린 문제기도 했다. 부대의 불교신자가 전군 평균치보다 한참 부족하기라도 하면 포교를 잘못해서인 것 같고, 군승법사의 책임인 것처럼 자책하게 된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하고 포교 잘하는 덕분인 양 기분이 좋기도 했다.

덕분에 한동안 부대에서는 신자수를 늘리기 위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하는 시기가 있었다. 종교행사를 하는 일요일마다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종교간 주고받는 총알은 간식이었다. 성당에서 햄버거를 주면 다음에는 교회에서 피자를 주었다. 그러면 다음 주엔 법당에서 국수를 말아 나눠주었다. 장병들에게는 그야말로 간식의 풍년이었겠지만 한주 한주 그 간식을 준비해야 하는 군종장교들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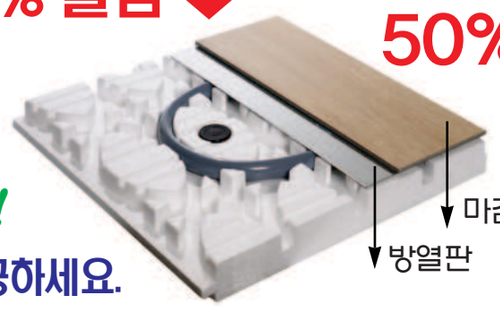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특히 군법당은 지금처럼 자매결연이나 후원이 많던 시절이 아니었기에, 지급되는 봉급이 고스란히 장병들의 간식비와 부대 위문비로 들어갔다. 다행히 지금은 이러한 소모적인 경쟁에서 많이 벗어났다. 서로 자존심만 세우느라 정작 신경써야할 수행자로서의 자세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조에서 비롯된 반성을 했기 때문이다. 본질은 얼마나 ‘불교에 많이 오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올바른 불자를 키워내는가’가 아니겠는가? 숫자놀음에 일희일비하는 우를 없애기 위해서 종교신자 파악도 이제는 중지됐다.

한 지붕 세 식구의 입장에서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 지붕 아래 세 가족, 아니 몇 년 전부터는 네 가족이 되었다. 서로 다른 뜻으로 한 지붕 아래 살게 되었지만 나라 위해 젊은 나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그들이 건강한 심신으로 지극한 신심을 갖고 전역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모두의 마음을 모아본다.



박영민 군승법사(호국청원사)

JJUN Heating System Module
“쭌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4 D.I.Y 시공 가능
05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설치장소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 시 공 대 상 :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www.jjunheating.co.kr
■ 지역 대리점 [10월 현재]
서울 : 010-5097-8291 부평 : 010-2310-0404 의정부 : 010-5759-8804 남양주 : 010-9183-9729 광명 : 010-7526-3300 안산 : 010-2487-3393 오산 : 010-2043-4336
화성 : 010-3168-9250 기흥 : 010-8378-3375 용인 : 010-9807-4862 광주 : 010-6890-0365 여수 : 010-3612-7784 익산 : 010-6610-2337 김천 : 010-9091-4583
대구 : 010-3259-3520 울산 : 010-4597-5577 진주 : 010-3583-7139 양산 : 010-6294-6126 통영 : 010-3592-2447 고성 : 010-4578-0961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연등(등표)사다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행렬 용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대승은 바로 '중생의 마음'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주제를 세우는 〈입의분〉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대승을 논한다. 대승을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한다. 법(法)과 의(義)로 나누어 말하면서 법은 다름 아닌 중생의 마음을 법이라 하였다. 대승 자체가 무엇이냐 할 때 무엇이다 하고 지칭되는 그 자체가 '법'이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의'이다.

대승을 밝히기 위해 저술된 기신론에서 대승을 중생의 마음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기신론의 근본핵심이 되는 말이다. 왜냐하면 다음 장에서 진여를 설명하면서 말하듯이 마음의 참되고 한결같은 진여의 모습이 바로 대승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또 마음이 생겼다 사라지는 생멸의 원인과 조건들의 모습도 대승 그 자체이며 동시에 그 모습이 드러나 작용하는 것이라 하고 있다.

법인 마음이 세간과 출세간의 법을 거두어들인다고 밝히고 있다. 세간법이란 시간과 공간적인 상황 안에서 인연에 의한 생멸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이를 유위법이라고도 한다. 출세간법이란 세간법의 반대다. 인연생멸을 초월해 있는 무위법의 경계이다. 다만 무위법 자체를 닦는 인연도 출세간법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승의 의(義)을 설명하면서 삼대(三大)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삼대란 체대(體大), 상대(相大), 용대(用大)로 바탕이 되는 본체와 모양 그리고

〈입의분〉서 대승 대해 논해

참된 진여의 마음이 곧 '대승'

망념 떠나면 차별심은 없어져

그 작용 말하는 것으로 이 셋이 무한히 크다는 것을 밝히면서 쓴 말이다. 기신론의 전체 내용의 줄거리를 파악해 말하면 일심(一心), 이문(二門), 삼대(三大), 사신(四信), 오행(五行)으로 요약된다. 여기다가 염불수행을 권하여 육자(六字)를 덧붙이기도 한다.

대승인 중생의 마음 일심에 진여문, 생멸문 두 문을 열고 진여의 체, 상, 용을 삼대로 설명하고 믿음의 대상을 삼보 앞에 진여를 바로 생각하는 신근본(信根本)을 두고 이어 삼보를 믿는 네 가지 믿음을 말한다. 그리고 수행 덕목인 육바라밀을 선정과 지혜를 하나로 묶어 지관(止觀)으로 줄여 오행으로 말하고 있다. 육자란 '나무아미타불'의 여섯 자를 말한다.

마음의 본체가 일체의 사물과 더불어 있으며, 그것은 영원하고 무한하여 절대평등한 것이며 언제나 한결같아 느는 일도 줄어드는 일도 없기 때문에 모든 차별을 떠나 있는 것을, 본체가 크다는 체대로 설명이 된다. 또 마음이 여래를 갈무리하고 모든 일을 성취하는 공덕을 갖추고 있다 하면서 이것이 마음의 본래 크고 큰 모습이라 하여 상대라 하고, 다시 일체 세간과 출세간의 좋은 원인과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작용을 용대로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 마음은 삼대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대승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중생을 실어 열반으로 운반해 주는 큰 수레며, 부처님과 보살이 이 수레를 타고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한다는 것이다.

〈해석분〉은 기신론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는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먼저 마음의 진여는 '한 법계의 모든 것이 크게 어우러진 법의 본체라고 하면서 마음의 성품은 생겨나거나 소멸되지 않음을 밝힌다. 일체 법은 오직 망념에 의해 차별이 있을 뿐이라 하였다. 만약 망념을 떠나면 일체 객관경계에 나타나는 차별의 모습은 없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일체 법 곧 모든 존재자체는 말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며, 마음에 관계된 조건의 상태도 없는 것이라 마침내 어떤 차별도 보이지 않고, 변하거나 달라지는 일도 없다. 오직 부서지지 않는 한 마음뿐이다. 이것을 진여라고 한다. 일법계대총상법문의 체라는 본문의 말을 빌려 기신론 법문을 요약해 대총상법문이라 일컬어 오기도 했다.

총상(總相)이란 일미평등(一味平等). 차별의 모양을 여의는 것을 말한다. 영원하고 무한하고 전체적이고 보편적인 마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말하자면 모든 것을 내포한 총상이요, 만법의 근원이 되는 법이요, 모든 것이 현상으로 전개되어 나올 때의 문이며 또한 바탕인 것이다. 다만 생기지도 아니하고 없어지지도 않는 심성 자체는 아무런 차별이 없는 절대의 경지인데 망념에 의해 차별이 있게 되었다.

망념이란 미혹의 생각으로 여실한 참 이치를 모르는 착각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를 물든 마음 곧 염심(染心)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범본 10만 게송 전래한 구법승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③ 번역자 북량의 도태 스님은?

北涼沙門道泰譯(북량사문도태역)

번역

북량 사문 도태(道泰)가 번역하였다.

해설

여기서 사문(沙門)이란 용어는 출가수행자를 의미한다. 지금은 출가승을 통칭해서 사문이라 부르지만, 원래는 초기불교 시대 B.C.5~3세기 무렵 인도의 전통적 종교지도자인 바라문에 대항하는 새로운 정신적 지도자를 일컫는 말이었다.

사문은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이미 이 시대의 혁신적 사상가들의 총칭하여 부르던 말이기도 하다. 이들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두루 돌아다니며 숲 속에서 수행하고, 시골이나 도시로 가서 가르침을 설하며, 설법의 보수로 보시 받은 음식물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자 종교적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공동체를 승가(samgha)라고 불렀다. 불교의 승가(僧伽)라는 말도 여기서 유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파미르 고원 다니며 구도행

논장 漢譯에 높은 식견 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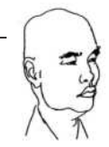
인도의 종교지도자로서의 바라문은 혈통의 순수성을 주장하며, 제사장으로서의 정당성을 주장한 반면, 사문의 공동체는 신분을 묻지 않고 그 출가를 인정한 것이 특징이다.

예로, 인도 자이나교의 개조(開祖)가 바라문 혈통이 아닌 귀족 혈통의 크샤트리아 출신이었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크샤트리아 출신이었다.

다음으로 〈대장부론(大丈夫論)〉은 북량사문 도태(道泰)가 번역하였다고 되어 있다. 북량(北凉, 397년~439년)은 중국 오호십육국시대 감숙성(甘肅省)에서 건국된 나라이다. 초대 왕은 단업(段業)이지만, 실질적인 창업자는 흉노계(匈奴系) 노수호족(盧水胡族)의 저거몽손(沮渠蒙遜)이다.

〈고승전권제삼(高僧傳卷第三)〉에 도태(道泰)에 대해 간략히 기록한 것이 있는데, 찾아서 원문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사문 도태(道泰)가 있었으니, 뜻이 굳세고 과단성이 있었다. 어려서부터 총우(𦘕右, 파미르 고원)의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녔다. 〈비바사(毘婆沙)〉 범본(梵本) 10만여 게송(偈頌)을 얻어 가지고 고장(姑臧)으로 돌아왔다. 그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비운 채, 눈밝은 장인을 발돋움하고 기다렸다. 부타발마가 이 논을 공부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번역할 것을 청하였다. 그 당시 저거몽손(沮渠蒙遜)이 이미 세상을 떠나, 그의 아들 무건(茂虔)이 왕위를 물려받았다. 무건이 재위에 있던 승화(承和) 5년(437) 정축년 4월 8일, 곧 송나라 원가(元嘉) 14년(437)에 양주성(凉州城) 안에 있는 한예궁(閑預宮)에서 부타발마를 청하여 번역하였다. 도태가 붓으로 받아 적고, 사문 혜숭(慧嵩)과 도랑(道朗)이 교리를 공부하는 승려(義學僧) 3백여 명과 더불어, 문장의 뜻을 바로잡기를 거듭 두 차례나 하여 비로소 마쳤다. 모두 1백 권이다. 사문 도연(道挺)이 서문을 지었다. 얼마 후 위(魏)나라의 오랑캐 탁발도(託跋燾)가 서쪽으로 와서 고장(姑臧)을 정벌하였다. 양(凉)나라가 멸망하는 난리통에 경서와 온갖 집물들이 모두 불타버려서 40권이 따라 소실되었다. 오늘날에는 60권만 남아 있을 뿐이다. 부타발마는 난리를 피하여 서역으로 돌아갔으며, 임종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게으름 없이 부지런하게

예전 장수하는 노인들은 보약을 먹거나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았다.

매일 매일 습관처럼 호미나 괭이를 들고 들에 나가 일을 했을 뿐이다. 틈이 나는 데로 잡초 뽑는 일을 하였고, 허드렛일을 찾아 부지런히 몸을 움직였던 것이다. 그들 장수 노인들에 있어 부지런함은 보약이었고, 힐링이었으며 장수 비결이 되었든 것이다. 장수노인들은 한결 같이 규칙적인 식사에 소량의 음식을 섭취하며 긍정적인 마음자세로 이웃 돌봄과 나눔을 생활화 했던 것이다. 이들은 종교를 모르나 종교인이었고, 신앙을 모르나 신앙인이었다.

종교 · 신앙의 목적은 보다 나은 행복과 열린 자유에 있을 터인데, 이들 장수 노인들은 주어진 생활여건에 순응하며 게으름을 병으로 알아 부지런한 삶을 엮어왔기 때문이다. 세상이 빛과 어둠으로 양분되어 있으나 게으름 없이 부지런하면 어둠속에서도 빛을 보고 빛으로 충만해 불평 · 불만의 권태로움이 녹아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실 때, '진리의 등불(法燈明) 마음의 등불(自燈明)'로 스승을 삼으라는 말씀과 함께 '게으름 없이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유훈을 남기신다.

수행자에게 있어 게으름은 병이요 방일(放逸)은 나태의 늪으로 이르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게으름 없이 정진하는 자세에는 하심(下心)하는 수행덕목이 수레의 두 바퀴가 되고 새의 두 날개가 되어 짝을 이룬다. 수행자가 거드름 피우며 점잔에만 방점을 찍어 무거운 행동을 일삼는다면, 그는 꼴불견이요 여러 겹의 인격체를 지닌 부끄러운 수행자다.

부처란 깨달은 사람이라는 의미와 함께 '임제록'에서 만날 수 있는 참 사람임을 잊지 말 일이다.

어느 사찰이 있다고 하자, 대계가 그 사찰의 구성원 중 밥 짓는 공양주가 있고, 마당 쓸고 허드렛일을 하는 부목 처사가 있으며 법당의 의식을 관장하는 부전 스님도 있게 된다.

하여, 주지 스님의 빨래도 바느질도 상 차리는 일도 담당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주지 스님은 끼니때마다 대중과 별도로 독상을 차지하며 작은 공화국의 군주처럼 대접아닌 대접을 받게 된다.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소소한 기쁨, 마당 쓸고 바느질하는 잔잔한 만족, 대중들과 어울려 한상에서 함께 식사를 즐기는 여유로움.

게으름 없이 부지런하면 몸도 마음도 가뿐해지고 개운한 건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불교TV에 나오는 몇몇 스님처럼 모시옷을 위아래로 걸치고 거기다가 천연 실크장삼에 가사까지 입고 부끄럼 없이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서글픈 마음에 안쓰러운 생각마저 일어서게 된다.

수행자는 누구나 검소해야 하고 시은(施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며 청빈이 생활화 되어야 하는 것이다. 돌 안경에 금테 두른 안경을 낀 스님이 있다고 하자 그게 어찌 수행자로써 돋보이는 모습일 수 있겠는가? 끼니때가 되어 어느 저자거리의 식당에서 스님을 만났다고 하자. 그 스님은 당연히 먹거리를 약으로 알아 소시민이 즐기는 부끄럽지 않는 메뉴의 식사를 하여야한다. 거나한 음식 차림을 당연히 비켜가야 하고, 부족함이 넘치는 것보다 아름답기 때문이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부처님의 유훈

게으름 없는 정진은 수행자의 덕목

언급하는데 조금은 조심스럽긴 하나, 나의 도반들 몇몇은 전화를 걸면 직접 받지 않는다. 시중드는 스님이 받거나 담당보살이 받아 용건과 전화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전화를 바꾸어준다.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고 나름대로 이유도 있겠지만 이쯤 되면 수행자의 삶이 번거로울 게 뻔한 이치이다. 수행자의 삶은 열려 있어야 한다.

베일에 가려 있거나 낮과 밤의 그림자가 다를 수 없는 것이다. 겸손까지는 아니더라도 거드름 피우며 속물화되는 부끄러운 풍토에서 벗어나야 한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기적이다. 수행자의 주머니는 비어 있어야 마땅하고 게으름 없이 부지런히 정진함이 당연한 덕목임을 두고두고 잊지 말이다.

가정에 수호신을 모셔 두십시오

황금 나한도와 달마도를 모셔두면 집안의 수호신이 되어 잡귀는 범접을 못하고 발산하는 성스러운 기운은 가정의 평안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릴 것입니다.

황금순금 나한도

(순도 99%순금)

- 작품크기 20㎝×30㎝ (액자전체 50㎝×40㎝)
- 16나한들의 내력과 이름들을 기록한 16나한집을 드립니다.
- 촬영상의 한계로 선이 검게 나왔으나 실제로는 99% 황금색임

진품소림달마도

- 작품크기 30㎝×30㎝ (액자전체 50㎝×40㎝)
- 청곡화백의 진품 소림달마도입니다.
- 진품확인서를 함께 드립니다.

작 품 가 격

- 황금 16나한도 + 진품소림달마도 : 178,000원
- 황금 16나한도 : 128,000원 (액자포함)
- 진품소림달마도 : 78,000원 (액자포함)

16나한님은 깨달음의 징표이며, 최고의 성자이신 위대한 열여섯분의 나한들 그 자유분방하고 신비한 모습들을 황용나한, 복호나한 두분을 추가하여 18나한으로 도판(평면도자기)위에 순도 99프로의 순금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나한은 아라한의 줄임말입니다. 나한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적인 나한이며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자로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번뇌를 떠난 성자이십니다.
황용나한은 미륵불의 화현이며 용 위에 복을 실어 중생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며 복호나한은 맹수를 다스리고 악귀를 물리친다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전 16난한들과 그의 권속나한들에게 미륵불께서 오실때까지 중생들을 제도하고 불법을 수호하며 중생들께 복전이 되어줄 것을 부탁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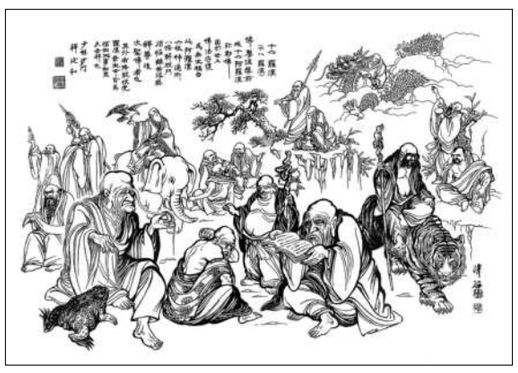
진품소림달마도는 달마대사의 34대 제자이시고 한국호국불교 소림선종 방장이신 석연화 스님께서 글을 쓰시고 중국소림사 한국본부문화원 운영위원장이신 청곡 이한동 화백께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완성하신 작품입니다.



황금순금 나한도 (순도 99%순금)



진품 소림 달마도



황금순금 나한도 작품〈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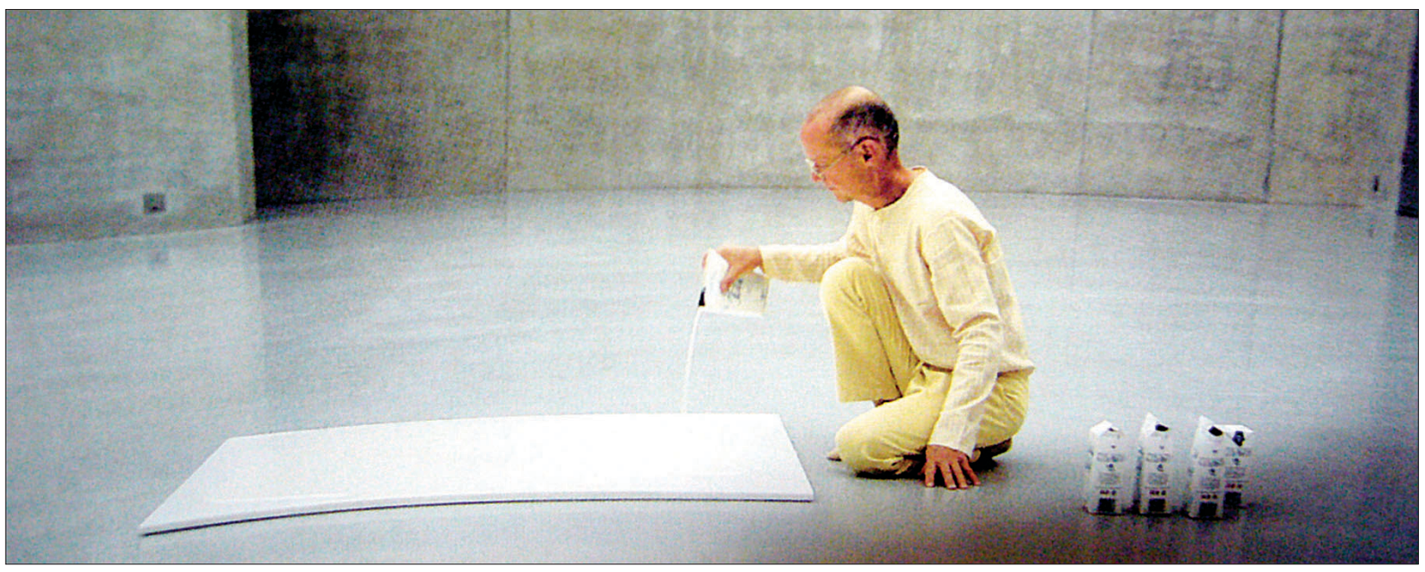


진품 소림 달마도 작품〈확대〉

▮ 제작 : 중국소림사 한국본부 문화위원장 **청곡** | ▮ 판매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지금 여기 나를 보라”… 존재의 사유 담다

禪과 현대미술
① 볼프강 라이프(Wolfgang Laib)


‘우유돌’을 작업하고 있는 볼프강의 모습. 아슬아슬하게 우유를 붓는 행위는 삶에 대한 관조를 의미한다.

들판에 핀 노란 민들레는 보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 삶의 무거운 짐을 잠시나마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민들레꽃밭을 한 수행자가 걸어가고 있다. 수행자와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은 민들레꽃은 아무런 말이 없이 묵묵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 뿐인데 그 수행자는 무엇인가를 얻은 듯한 흐뭇한 미소를 머금고 있다.

볼프강 라이프(Wolfgang Laib, 1950~, 독일)는 의사가 되어 고통 받는 많은 사람들의 육체의 병을 치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의대에 진학하여 의사가 된다. 하지만 그가 의대를 다니는 동안 인도, 티베트, 미얀마, 중국, 일본 등 아시아를 여행하며 많은 의식의 변화를 가져온다. ‘육체의 병은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그의 의문은 여행을 하는 동안 만나는 많은 수행자를 보면서 서서히 해법을 찾아간다. 육체를 움직이게 하는 마음에 따라서 육체의 병이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마침내 의사의 가운을 벗어 던지고 예술가의 옷을 입게 된다.

예술가는 마음의 병을 치유해주는 의사와 같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마음의 병은 불안, 초조, 절망, 우울, 강박감, 상실감 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일상의 삶의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이러한 감정들은 자신의 의지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감상하거나 등등 각각의 취향에 따라서 그 해법들을 찾아가고 있다. 여기에 볼프강 라이프는 자신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마음에 위안과 희망, 따뜻함, 사유 등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들을 찾아 작품으로 보여주고 있다.

명상과 수행의 작가로 잘 알려진 볼프강 라이프는 자신이 직접 재배한 민들레 꽃가루를 통하여 작품을 하고 있다. 민들레꽃을 건조하여 가루로 만들어 가는 망으로 걸러내어 아주 작은 입자가 된 꽃가루들은 그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는 미약한 존재이지만 많은 꽃가루들이 만나면 자그마한 산을 이루기도 한다.

작품 ‘오를 수 없는 다섯 개의 산’은 꽃가루를 쌓아올려 만든 자그마한 산이다. 개미조차 오를 수 없는 이 산은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고 있다. 허망한줄 모르고 늘 그 산을 오르고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며 라이프는 내면에 존재하는 자신의 진정한 마음의 산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는지도 모른다. 즉, 허망한 욕망의 산이 아닌 무념무상의 존재가치를 찾아가라는 화두처럼 보인다.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서 세상의 온갖 것을 성취하고자 고군분투하는 모습에서 그는 마음의 안정과 고요, 수행자의 삶을 추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암묵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스위스 바젤에 있는 현대미술관에서 그의 꽃가루 작품을 직접 보았을 때 받은 충격은 지금도 생생하다. 아주 가늘게 만들어진 꽃가루들이 전시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 광경은 다른 세계에 와 있는 느낌을 가져다주었으며 존재의 가벼움을 느끼게 해주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처럼 그 형상과 색을 떠난다는 〈금강경〉의 ‘이색이상분(離色離相分)’을 느끼게 해주었다. 우리가 살아가며 느끼는 오온(색 · 수 · 상 · 행 · 식)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진여의 세계로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 온몸에 전율을 느낀 경험이 그의 꽃가루 작품을 볼 때마다 새삼 느끼게 된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현재의 순간을 인식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은 필자에게 라이프의 작품은 현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게 하는 안내자와 같다.

‘우유돌’의 작품은 하얀색 돌의 가장자리를 들어가게 마모한 다음 그 곳에 하얀 우유를 붙는다. 바탕과 부어지는 우유가 같은 색이므로 그 상태를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다. 하지만 우유가 접점에 다다르면 순간 흘러넘친다. 바로 그 접점의 순간을 인지하는 것이다. 짧은 순간이지만 접점의 상태는 합일의 상태이다. 즉, 사물과 내가 하나 되는 순간이다. 흘러넘치는 순간 우유를 붙는 행위는 멈추어지며 다시 우유를 비우고 다시 붓기를 시작한다.

반복되는 행위를 통하여 라이프가 보여주는 것은 삶에 대한 관조이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무수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 변화를 감지하는 것은 어떠한 계기가 있어야 가능하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성찰에서 그는 수행의 방식을 터득해 가는 것처럼 보인다.

라이프의 작품은 언제나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필자에게 타인의 관점에서 나를 보게 하는 것, 점 더 객관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 나아가서 내가 아는 것을 모두 버리고 현재의 인식상태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찾아가는 과정을 있게 해준 좋은 스승님이다.

작품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좋은 측면이 많다. 하지만 라이프의 작품처럼 낯설고 어려워 보이는 작품은 결국 보는 사람의 인식의 범주 내에서 해석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명상이나 수행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그의 작품을 해석하고 수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오히려 작품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작품의 깊이를 잘 수용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다. 바로 관념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서 작품을 작품 그대로의 모습으로 수용하는 경우이다.

즉 자신이 설정한 어떠한 틀 속으로 작품을 넣으려 하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작품과 교감한다면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내가 어떠한 작품을 보고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 그러한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잠재된 의식에 자극을 주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라이프의 작품에 나타나는 특성들을 선과 미학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추상미술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상의 보이지 않는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며, 또한 대상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즉, 작가가 어떠한 특정한 목적이나 의도를 강조하지 않고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유동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작품을 통하여 자신스스로의 마음을 보는 것이다. 작가의 손을 떠난 작품은 스스로의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 독립된 존재로써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며 작가의 의도는 약화되는 경우도 있다.

둘째는 색의 사용이 제한적이다. 현대미술에 나타나는 다양한 작품들의 특성들이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여 많은 색의 특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1~2색을 사용하며 주된 색은 한 가지 색인 경우가 많다. 즉 색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문화적, 철학적, 종교적 특성들을 가능한 절제하기 위해서이다. 색은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때문에 색의 특성을 드러내면 색의 관점이 부각이 되어 마음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색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의 꽃가루 작품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는 반복성이다. 변화하는 가운데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무유정법(無有定法)의 이치를 찾아가는 것이다. 정해진 것은 없으나 반복하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라이프가 자신의 행위예술을 통하여 보여주는 대표적인 내용이기도 하다. 반복되는 행위 속에서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자신의 온 정신을 집중하여 천천히 행하는 의식처럼 보인다. 시간의 흐림이 정지한 것 같은 느낌마저 드는 그의 행위예술은 존재의 가치와 시간의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는 후각을 통한 현존재의 인지의식이다. 그가 사용하는 밀납 작품들은 가까이 가면 강한 기름 냄새가 난다. 순간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며 그 곳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독일 본(Bonn)의 현대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의 밀납 작품 ‘지구라트’를 접한 필자의 경험이다. 겉모습은 피라미드를 연상시키며 거대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가까이 가는 순간 코를 막게 된다. 호흡하기조차 힘들 정도의 강력한 냄새는 일정한 거리를 벗어나면 사라진다.

대상에 대한 인식은 외형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그의 밀납 작품을 사진으로 만 본다면 단순히 커다란 조각 작품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가 의도하는 것은 조각 작품이 아니라 후각을 통한 현존재의 인지를 위한 것이다.

라이프가 이러한 작품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은 현재의 자신을 인지하라는 것이다. 자신의 존재를 순간순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들에게 현재의 깨어있음을 인지시켜주는 이러한 조형어법은 수행에서 지금 여기를 강조하는 것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자신이 자신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념적 틀로 세상을 보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 라이프의 밀납 작품처럼 시각적으로 보여 지는 것으로 모든 것을 인식한다면 어떻게 될까?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에게서 출발하며 나로 끝난다.

이상과 같이 라이프의 작품에 나타나는 특성들을 살펴보았다. 그가 수행을 통하여 모든 집착과 욕망에서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가 보여주는 작품의 특성들은 순수한 영혼의 울림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정과 진정한 자유는 인식의 전환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의 작품들은 예술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어떠한 형식이나 틀의 구속에서 벗어나 행하여지는 그의 예술행위들은 마치 깨달음을 향한 수행자의 모습과 유사해 보이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윤양호(원광대 선조형예술학과 교수)


볼프강의 작품 ‘지구라트’. 거대한 조각 작품을 연상시키지만 주목해야 하는 것은 호흡하기 힘들 정도의 악취다. 그는 후각을 통한 현재 존재의 인지를 표현하고 있다.

병 치유코자 했던 의사 지망생
여행 중 수행자 만나 예술가로
‘예술=수행’ 화두삼아 창작활동

직접 재배한 민들레의 꽃가루를
작품에 사용… 덧없는 욕망 표현
‘관조 · 인지’ 메시지 통해 내면 성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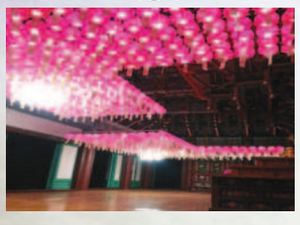
사찰고급연등 · 자동승하강시설

2016연등특별공급(한정분)
모든 연등 8cm 기준 전국 어느 상점에서나 3,000원에 구입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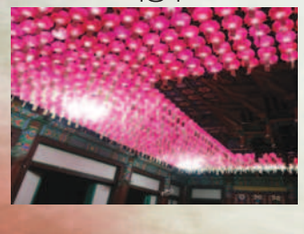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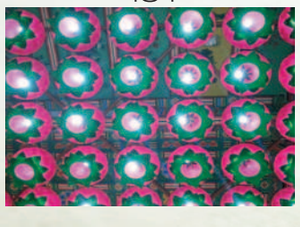
시공전 시공전



시공후 시공후




시공후 시공후

| 자동승하강장치 설명 |

자동승강장치란 기존 또는 신축법당에 고정으로 설치된 연등에 맞게 프레임을 제작하여 모터에 연결해 상하로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 자동승하강장치의 장점 |

1. 발원등표 교체가 편리합니다.
2. 법당이 넓고 화려해보입니다.
3. 법당내 구조와 면적에 비례하여 프레임을 제작하기 때문에 연등의 오와 열 정렬이 확실합니다.
4.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후관리를 책임집니다.
5. 아무나 조작할수 없도록 스위치에 잠금장치가 있으며 안전합니다.

▶가야자비연등 · 가야자비연등 6cm 줄등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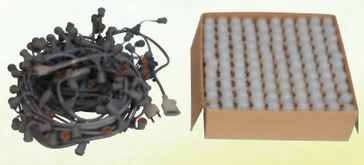

▶차걸이 · 연꽃차걸이/광명등연꽃차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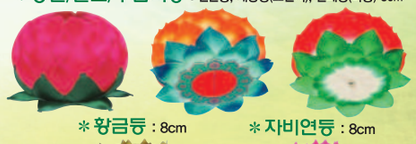

▶설화등 : 다홍, 연분홍 8cm


▶고급 칼라연등 : 보라, 다홍, 오렌지 8cm


▶가야 궁단등 : 다홍, 보라 8cm


▶비닐만월등


▶연등 및 각종 전선, LED 전구


가격할인예외품목
＊궁단/실크/수입사등 : 진분홍, 개방형(오렌지), 밀폐형(다홍) 8cm

＊황금등 : 8cm ＊자비연등 : 8cm


불교장엄용품전문 가 야 기 획 ※ 가까운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상담하십시오.

따뜻한 '감성 카툰', 불교를 품다

서주 스님, 2월 5일까지 부산 쿠무다 갤러리서 첫 개인전


'다워니 발원이 귀명례삼보'를 주제로 부산 쿠무다 카페 갤러리에서 카툰 전시회를 여는 서주 스님.

카툰은 응축의 미학이 담겨있다. 작가의 사상과 메시지를 단 한 장의 그림으로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응축의 아름다움이 내재된 카툰은 선(禪)의 미학을 표현하기에 매우 적당한 예술 장르다.

현재 용인 포교당에서 정진 중인 서주 스님이 보여주는 카툰들도 그렇다. 천진한 표정의 동자승이 찻잔을 들고 미소를 짓는다. 하늘 위로는 밤하늘의 별이 영롱하다. "별이 보이고, 차는 뜨겁네." 수행 중 잠시 한담을 즐기는 자적함이 느껴진다.

또한 수많은 세월호의 노란 리본 앞에 좌정하신 부처님 앞에서 동자승이 삼배의 예를 올린다. 지금까지 끝나지 않고 있는 세월호의 아픔을 보듬는 부처님의 대자대비함이 단 한 컷의 카툰 안에 담겨 있다.

이 같은 서주 스님의 카툰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오는 2월 5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카페 갤러리에서 열린다. 그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작품을 올렸던 스님에게는 첫 개인전이기도 하다.

전시 주제는 '다워니 발원이 귀명례삼보'로 '다워니'는 서주 스님의 카툰에 나오는 선재동자 캐릭터이다. '다워니'는 수 많은 근원을 의미하는 '다원(多原)'에서 비롯됐으며, 서주 스님과 친분 있는 어른 스님이 직접 이름을 지었다. 또한 '발원이 귀명례삼보(發願已 歸命禮三寶)'는 〈천수경〉의 한 구절에서 가져왔다. 선재동자의 구법과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이 전시를 관통하는 주제다.



수행 틈틈이 그린 카툰 40점 전시
천진불 '다워니' 보면 절로 미소가
수작업 위주… 아날로그 감성 담겨
3월 국제불교박람회서도 작품 출품

서주 스님은 전문적으로 그림을 배워본 적이 없다. 다만 어릴 적부터 손재주가 있어 대학 학보사에서 만평을 그렸고, 출가해서도 운문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며 계간지 〈운문〉에 '상(想)'이라는 주제로 카툰을 연재했다.

스님은 "전문 작가라고 불리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면서 "카툰이라는 장르를 통해 불교를 알릴 수 있다면 이것도 포교와 수행의 방편이라고 생각해 그림을 그려왔다"고 말했다.

선재동자 '다워니'를 중심으로 한 서주 스님의 카툰이 가지는 강점은 '따뜻한 감성'이다. 컴퓨터가 아닌 수작업으로 작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 연필과 먹선이 보여주는 질감과 수채화의 번짐, 파스텔이 만든 아련함은 스님이 전하는 메시지와 만나 관객들의 아날로그적 감성을 자극한다.

서주 스님은 "디지털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손으로 작업하는 것을 선호한다"면서 "연필로 그리는 그림을 가장 좋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린다"며 "미약한 재주로 그린 카툰을 보고 사람들이 부처님께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주 스님은 이번 전시에 이어 3월 24~27일 열리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도 '이와 같이 보았다'의 멤버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051)701-7559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진으로 그려낸 설악의 '진면목'

임채욱 작가, 3월 22일까지 아라아트센터서 전시회

설악산은 한국인에게 여러 의미를 가진다.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산이면서 수학여행지로 각광을 받았던 추억의 장소 중 하나였다. 빼어난 경관으로 관광지로 알려져 있지만 그 속살을 파헤쳐보면 다른 면모들을 만날 수 있다.

한국의 산들을 카메라에 담아온 임채욱 작가가 오는 3월 22일까지 서울 인사동 아라아트센터에서 개최하는 사진전에서는 설악이 감춰놓은 진면목들을 만날 수 있다.

'인터뷰 설악산- 아름다움에서 무한으로'가 전시회의 주제인만큼 구성도 마치 설악산과 인터뷰하듯 이야기가 만들어져 있다.

전시는 △설악이 열리다 △설악에 들다 △설악이 펼치다 △아름다움에서 무한으로 등 4개 파트로 구성됐으며, 1층부터 지하 4층에 걸쳐서 진행된다. 전시 작품은 총 60여 점. 사진과 설치, 영상 작품까지 다양하다.

이중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아름다움에서 무한으로'이다. 설악의 속살을 파고들면 궁극에 이르는 곳이 봉정암이라고 작가는 말한다. 실제 전시 작품 중 가장 대작인 '봉정암 부처바위'는 크기가 8m에 달한다.

이에 대해 임 작가는 "그간 설악산은 경관을 중심으로 조명됐다. 이제는 역사·문화·사상 등 인문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무한을 희구하는 사람들과 설악을 이어주는 매개는 봉정암의 사리탑이다. 봉정암에서는 설악의 아름다움을 무한으로 변모하는 순간을 목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설악의 면면 8년간 앵글에 담아
한지로 프린팅… 회화 보는 듯
"봉정암 뒤로 세우는 케이블카
진신사리탑 기도 의미 퇴색시켜"

임 작가의 작품은 사진을 '찍는다'는 말보다 '그린다'는 말이 어울린다. 이는 사진의 프린팅을 인화지가 아닌 한지에 하기 때문이다. 매끄러운 평면의 인화지에서 만날 수 없는 회화적 요소가 한지와 그 안의 종이 물결들로 인해 만들어진다. 사진이 아닌 한 폭의 진경산수화를 감상하는 느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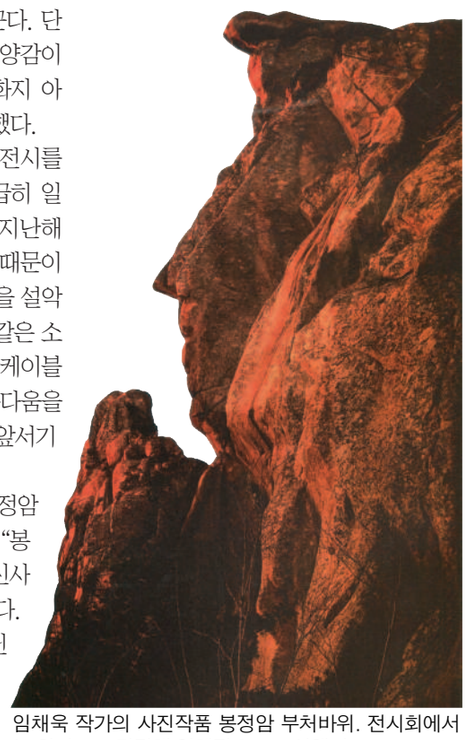
또한 한지를 구겨내 평면의 사진을 입체화 한 설치 작품들도 눈길을 끈다. 단순한 사진에서는 만날 수 없는 양감이 풍부하게 느껴진다. 이 역시 인화지 아닌 한지에 프린팅을 했기에 가능했다.

임 작가는 '인터뷰- 설악산' 전시를 올 가을로 예정하고 있었으나, 급히 일정을 앞당겼다. 이유는 정부가 지난해 오색케이블카 건설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2008년부터 8년간 100회 이상을 설악에 올랐던 그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다. 봉정암 사리탑 너머에 케이블카가 설치되기 전에 설악의 아름다움을 대중에게 전해야 겠다는 생각이 앞서기도 했다.

임 작가는 "오색케이블카는 봉정암 사리탑 뒤편으로 건설된다"면서 "봉정암에 오는 불자와 국민들은 진신사리탑을 향해 간절한 기도를 올린다. 케이블카 건설되면 사리탑이 아닌 케이블카와 승객들에게 기도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케이블카 건립은 정부가 설악산을 관광지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며 "설악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02)733-1981

신성민 기자


임채욱 작가의 사진작품 봉정암 부처바위. 전시회에서는 한지로 프린팅해 입체적으로 조성했다.

아비뇽서 만나는 '사찰 단청의 美'

파리 길상사, 23일까지

유럽 대표 예술의 나라 프랑스에서 한국 전통 사찰 단청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파리 길상사(주지 혜원)는 단청 전문 연구단체인 도화원(대표 구본능)과 함께 1월 12~23일 프랑스 아비뇽 시립 미디아텍(CECCANO)에서 단청 전시회를 개최한다.

'한국 사찰 단청으로의 여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조선시대 사찰 단청을 대표하는 통도사 영산전, 미황사 대웅보전, 개암사 대웅보전, 내소사 대웅보전 등 7개 사찰의 단청을 모사한 56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전시 기간 중에는 전통적인 기법과 재료로 단청 작품을 직접 시연·공개하며, 아비뇽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단청을 체험할 수 있는 강습회와 전통미술과 문학의 역해에 관한 강연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통도사 등 단청 모사 작품 전시
한국 사찰 아름다움 세계에 알려

이번 전시회에 대해 구본능 도화원 대표는 "단청 문양과 그림들에는 건축물의 외형의 화려함이나 기술의 완벽함보다는 성스럽고 소중한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동참하는 마음을 중시하는 한국만의 독특한 미학이 오롯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오래된 단청을 마음으로 천천히 읽어 보면 기분 좋은 감동이 전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시회를 기획하고 조직한 파리 길상사 주지 혜원 스님은 "사찰 단청을 주제로 아비뇽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전시회를 통해 프랑스인들에게 한국의 사찰 미술에 담긴 아름다운 미학을 소개하고 싶다"면서 "또한 상호간의 문화적 공감과 이해의 계기가 마련돼 지속적으로 한국불교미술의 숨겨진 보물들이 예술과 문화의 나라 프랑스에 널리 소개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통도사 영산전 대량머리초

국립경주박물관 日 '고훈문화' 특별전

오는 2월 21일까지

국립경주박물관이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오는 2월 21일까지 일본의 고훈(古墳)시대를 조망하는 특별전 '일본의 고훈문화'를 개최한다. 일본 나라국립박물관의 특별협력으로 이뤄진 이번 전시회는 일본 내 9개 기관에서 출품한 380점의 문화재가 전시한다.

이 가운데 일본의 국보가 29점, 중요문화재가 197점이다. 아울러 당시 한일교류의 일면을 보여주는 우리 문화재 20점이 비교자료로서 함께 선보인다.

'고훈'은 일본어로 '옛무덤'을 뜻하지만, 일본 고고학에서 '고훈'은 고대에 조성된 대형 무덤을 가리킨다.

이번 전시회는 고훈시대를 전반적으로 조망하는 국내 첫 특별전으로서, 고훈시대의 대표적 유적과 그곳에서 발견된 출토품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히미코(卑彌呼)의 유산, 고훈의 등장: 고훈시대 전기 △대형 무덤과 하니와의 세계: 고훈시대 중기 △사라지는 고훈: 고훈시대 후기 등 3부로 구성된다. (054)740-7500 신성민 기자

Buddhists of The World King
(사)세계불교법왕청

사단법인 세계불교 법왕청 정기 각료회의 소집공고



종교법인 :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사단법인 : 세계불교법왕청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도매인 세계불교법왕청.com

韓國佛敎 나라사랑 聯合協議會. 韓國佛敎 宗團 人權委員會. 大韓佛敎108宗正聯合會. 大韓佛敎 宗團 總聯合協議會.
世界佛敎 考試委員會. 大韓佛敎 大宗師 聯合協議會. 韓國佛敎 元老長老團. 韓國佛敎高僧長老團.

국제붓다봉사단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 303호 대표전화 02-733-5665. 733-5670. 팩스 733-5615. H.P : 011-229-6061

각료 회의 소집 공고

정기 각료 회의 2015년 12월 이전에 임명되었던 모든 각료는 모두 참석해 주십시오
새해 주요 안건 심의와 정책 안건 검토를 할 것이며
그동안 각료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회의를 계속 불참하는 각료들은
1월 정기총회에서 각료로서의 인성, 인격, 인품, 참여도, 출석률 등을 심의 의결후
재정비 차원의 임명장 회수 및 명단과 사진을 기재하여 해임사실을
신문지상에 공지할 것임.

■ 일시 : 2016년 1월 21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미얀마문화원

세계불교도들의 법왕 우꾸마라 사야도 보좌 기획관리 장로 목탁 합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303호 대표전화 02-733-5665

* 세계불교 포교와 봉사로 지구촌 구석구석 인간방생, 중생교화에 헌신할 인재를 기다립니다.
인간다운 인간 승려다운 승려이면 대환영합니다.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1.6~2015.1.12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한권으로읽는불교교리	지명스님	(주)조계종출판사
2	달라이라마의불교강의	달라이라마,톈첸화펀	불광출판사
3	숨-죽음을 통해서 더 환한 삶에이르는 이야기	능행	마음의숲
4	야단법석-법륜스님의 지구촌 즉문즉설	법륜지음	정토
5	지금이라도알아서다행인것들	원영	불광출판사
6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우룡큰스님,김현준	효림
7	나는그곳에서부처님을보았네	모과나무편집부	모과나무
8	법명해설사전	조계종포교원	(주)조계종출판사
9	가피-제2회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편집부엮음	모과나무
10	스님의공부법	자현	불광출판사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기다림은 미래 향해 '나'를 열어두는 일"

기다린다는 것

와시다 기요카즈 지음 | 김경원 옮김
불광 펴냄 | 1만 3천원



요즘은 기다리는 일이 지나치게 어려워졌다. 약속 시간에 만나기로 한 상대가 당장 눈앞에 안나타나면 잠시 기다려보기보다 곧장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건다. 전철역서도 몇 분 뒤 도착할 다음 전철을 기다리지 못해 자신의 몸을 만원 전철 안으로 구겨 넣는 풍경의 목격이 쉽다. 조직 생활도 매한가지다. 회사는 최단 시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 하나부터 열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향해 달린다. 그 과정서 포기도 빨라져 도중에 아니다 싶으면 지체 없이 방향을 틀어버린다.

조금씩 기다리는 일이 우리 시야서 사라진다. 즉 기다림의 미학이 쇠퇴되는 것이다. 이 책 〈기다린다는 것〉은 이렇듯 점점 희미해지는 '기다림'의 행위를 철학적 관점서 고찰했다. 저자 와시다 기요카즈는 미야모토 무사시, 다자이 오사무의 일화를 비롯해 요양시설서 치매 노인을 보살피는 과정, 문학작품에 묘사된 기다림의 양상을 두루 살핌으로써 기다림의 진정한 의미에 다가서고자 했다. 언어적 정의를 넘어 실제 삶에서 기다림이 어떤 모습으로 현상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 밝혔다.

이 책의 첫 장은 휴대전화 이야기로 시작한다. 저자는 대다수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하면서 기다리는 일이 힘들다고 말한다. 시공간상의 거리를 뛰어넘어 언제든 소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사람들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편지를 쓴다. 최단 시간을 계산해 마치 연인이 편지를 통째로 꿀꺽 삼키듯 읽어버리는 정경을 상상한다. 상상으로 인해 마음이 들뜨기도 가라앉기도 한다. 가슴 설레는 상상은 시간과 더불어 부풀어 오른다. 겨우 설렘을 가라앉히고 잠자리에 든다 해도 날이 밝자마자 쏜살같이 우체통으로 달려간다. 우편배달 시간은 아직도 멀었지만, 어쩌면 지난밤 사이 답장을 직접 우체통에 넣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우리는 이런 시간의 감촉과 꽤 멀어졌다. 기다릴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전에 손가락이 먼저 움직인다. 더 이상 마음 졸이며 상처받을 일이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상대를 마음에 새기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때가 차기를 기다리는 일, 무언가를 향해 자신을 부단히 열어두는 자세마저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기다림은 시간의 공백을 메우는 일이다. 때론 기대와 희망이 부풀고, 때론 불안과 초조함에 떨면서 버텨내는 시간이다. 그 끝에 어떤 결말이 기다릴지 기다리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그 불확정성으로부터 기다리는 사람은 한 줄기 가능성을 움켜쥐게 된다. 훗날 시간이 해결했거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사건, 아무런 예고나 징조 없이 찾아올 미래를 맞이할 가능성 말이다.

기다림 행위 불교적 관점서 고찰
"기다림은 시간공백 메우는 일"
기다림, 상대 제압하는 효과적 수단
우연의 작용 기대하는 일도 포함

기다리게 하는 것은 상대를 제압하는 효과적 수단이다. 기다리게 함으로써 타인을 불안정한 상태에 빠뜨리고, 타인의 마음이 바짝 타들어 가게 만들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야모토 무사시와 사사키 고지로의 간류지마 결투이다.

"승부는 한순간에 결정 났다. (…) 고지로는 기다렸다. 그러나 기다림에 지친 그는 차마 끝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 (…) 이것이 무사시의 전략이었다."

무사시는 기다리게 함으로써 이겼다. 일부러 약속 시간에 늦음으로써 기다림에 지친 고지로가 스스로 무너지게 했다. 하지만 기다리게 하는 일이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다.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길 기다리는 것은 역시나 무언가를 기다리게 돼 스스로도 무너질 가능성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자는 기다리게 하는 쪽의 괴로움을 기다리는 쪽의 괴로움이라고 바꾸어 말해도 좋다고 말한다. 오히려 기다리는 사람의 신뢰에 끊임없이 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기다리게 하는 사람의 괴로움이 더 크다고까지 주장한다.

"열흘이 지났는지 닷새 정도였는지, 더 이상 견딜 재간이 없어진 단 가즈오는 다자이 오사무를 찾아 나섰다. (…) 그는 이부세와 태평하게 장기를 두고 있었다. (…) 이런 소동 가운데서도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던 다자이 오사무가 단 가즈오에게 던진 한마디는 이런 것이었다. '기다리는 쪽이 괴로울까? 기다리게 하는 쪽이 괴로울까?"

누군가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다리게 함과 기다림을 당함'이라는 관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것이 언제나 삐걱거림 속에 파탄과 회복을 반복한다는 점이다. 그 속에서 사람이 상처받거나, 포기하는 일 없이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기다리고 있음을 잊는 길밖에 없다. 그 방식 중 하나가 바로 끊임없이 사소한 일에 얽매이기다. 사실 그 광경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아주 오랫동안 그런 삶을 지켜봤다. 다름 아닌 어머니로부터…. 저자는 어쩌면 일상의 반복에 몸을 파묻는 것은 기다리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지혜일지 모른다고 말한다.

기다림은 어딘가 애틋한 측면이 있다. 그것이 그리움이라는 정서와 이어질 땐 더욱 그렇다. 사실 모든 기다림에는 어느 정도의 기대나 바람이 내포돼 있다. 기다리는 사람은 그 기대와 바람만으로 무진장 둔중히 흘러가는 시간을 견뎌낸다. 상상만으로도 세상은 장밋빛으로 물든다. 하지만 또한 기다림은 초췌하고 격심한 소모다. 기다림은 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긋남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충분히 기다렸는데도 기다리는 사람이 오지 않으면, 그때부터의 시간은 오로지 고통의 연속이다. 온갖 상상이 머리를 어지럽히고, 사소한 소리나 움직임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선다. 상대를 미워하거나 자신을 상처 입히는 일도 벌어진다. 이때 기다리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망각뿐이다. 저자가 책에서 예로든 가와세 나오미 감독의 영화 속 대사를 빌리면 "잊어도 되는 것, 잊으면 안 되는 것, 그리고 잊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겨우 정리해야만 기다림은 가능해진다. 기다림의 보람 없음, 그것을 잊어버릴 때 사람은 비로소 기다릴 수 있다.

보살핌의 현장에서는 기다리는 일이 더욱 복잡하다. 기다리는 사람과 기다리게 하는 사람의 관계가 친구나 가족처럼 통상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나 치매 노인의 간호에서는 더욱 그러한데, 이런 간호사들이 사용하는 보살핌 수법 중 하나가 패칭 케어(patching care)다. 일상적인 행위들이 조각처럼 짜여서 알게 모르게 보살핌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신문을 펼쳐놓고 그 안에 끼워놓은 전단지 광고를 누군가에게 건네거나 한다. 슈퍼의 광고사진을 보고 좋아하는 음식 이야기가 나오거나 하면 자리의 공기가 평온하게 누그러지기 시작한다. 여기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말할 수 있는 것은, 분위기를 바꾼 원인을 누구 한 사람의 행위로 환원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재촉하거나 쫓아가는 일 없이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잡힐 때까지 기다린다는 점에서 이 또한 기다리는 일의 일종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딘가 우연에 기대는 측면이 있다. 누구도 자신을 내세우거나, 억지로 통제하려는 시도 없이 그저 시간의 힘이라고 부를 만한 혹은 자리의 힘이라고 부를 만한 것에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이다.

저자는 책에서, 이처럼 기다림에는 우연의 작용을 기대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것을 먼저 가두어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기다림이 미래에 찾아올지도 모를 무언가를 기다리는 일이라면, 우연처럼 무언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항시 내 안에 공간을 비워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단식, 영혼으로 통하는 문여는 법

음식을 끊다

스티븐 해로드 뷰너 지음 | 박준식 옮김
따비 펴냄 | 1만 5800원



새해에 가장 먼저 결심을 하는 것은 바로 '다이어트'이다. 그래서 새해벽두에는 헬스클럽을 찾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식단조절이라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몸' 즉 신체는 무엇일까? 한때는 잘 먹어 뚱뚱한 몸이 상징이었다면 이제는 유기농 식품을 먹고 피트니스를 통해 다져진 근육질로 바뀌었을 뿐, 현대인의 몸은 늘 부나 자기관리 능력 등을 '과시'하는 수단이었다.

음식 또한 몸을 만들기 위해 먹는, 혹은 끊어야 하는 물질일 뿐이었다. 유례없이 음식이 풍요로워진 현대에 이르러, 시중에 나온 단식 관련 책이 건강, 다이어트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당연하다. 〈음식을 끊다 — 단식, 자신을 찾는 여행〉은 몸과 음식에 대한 이런 인식 변화를 위해 기획됐다.

이 책의 원제는 〈The Transformational Power of Fasting〉로, '큰 변화를 일으키는' 단식의 힘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큰 변화'는 영적, 감정적, 신체적 변화의 총체를 뜻한다. 오랜 기간 힐링 분야에 종사한 저자 스티븐 해로드 뷰너는 단식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본다. 그는 단식이 건강과 다이어트의 수단으로만 인식되는 것은 우리가 이 세계를 좀 더 민감하게 느끼고 경험하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힘을 잃어버리기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종교 전통서 단식은 신과 접촉하거나 내면세계와 대면하는 명상의 일환이다. 이 책의 옮긴이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저자는 단식을 남용하지 말 것 또한 당부한다. 누군가 단식이 좋다고 떠들어댄다 하더라도, 단식을 할지 결정하는 것 또한 자신의 몸이다. 단식에 앞서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단식 할 이유가 자신에게서 충분히 넘칠 때 단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한 편의 시처럼 현대인의 아픔을 직시하고 그 대안으로 단식을 제시한 이 책은, 한편으로는 "여느 여행처럼 단식에도 준비가 필요하다. 영혼, 감정, 몸의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더 잘 알고 있을수록, 준비를 더 잘 할 수 있고, 거기서 얻는 것도 더 많아진다."라며, 단식을 어떻게 준비하고 마무리 하는지 꼼꼼히 짚어 주는 가이드북의 역할 역시 소홀히 하지 않는다.

1. 자신이 단식할 준비가 됐는지 판단하라. 2. 자신이 하려는 일에 어떤 종류의 단식이 가장 도움이 되는지 결정하라. 3. 단식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라. 4. 얼마나 오래 단식할지 결정하라. 5. 단식에 협조적인 환경을 마련하라. 6. 단식 전 2~10주 동안 새로운 식단을 섭취해 자신의 몸이 단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라. 7. 스스로 단식을 할 경우, 단식 동안 마실 좋은 물을 준비하라. 주스 단식의 경우에는 좋은 물과 더불어, 주스를 짜기에 적합한 좋은 과일과 채소도 준비하라.

모든 종교서 단식은 명상의 일환
단식도 영혼, 감정, 몸의 준비 필요

위와 같은 준비 과정의 7단계를 비롯해 단식의 영적, 감정적, 신체적 목표를 정하고, 시간을 마련한 뒤 단식의 과정과 마무리 단계는 다음과 같다.

12. 단식 동안 일지를 써라. 13. 각 과정에 집중하면서 단식을 진행하라. 14. 사랑과 자각으로 단식을 끝내라. 특히, 단식을 끝내는 음식으로 올바른 음식을 선택하라. 15. 단식 뒤에는 사랑하는 사람(당신을 사랑하고 당신도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이 겪은 경험을 이야기하라. 16. 단식에서 얻은 교훈들을 일상생활에 통합하라.

또한, 실제적으로 단식할 도움이 되도록, 부록으로 '10주간의 저지방 정화식단' 및 '단식용 주스'를 정리해 놓았다.

김주일 기자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元曉 神話 論述誤謬 1,400年만에 밝힌다
Critical Essay 評論

화제의 신간



원효기신론소에 依據하여 한역경전오류를 그대로 인용 記述(기술)하여 대부분 한문불교용어를 직역하여 기술하였다.
예컨대 薰習(훈습)을 世間衣服(세간의 복) 혹은 香氣(향기)라고 기술하였다.

훈습은 妄心이고 現妄境界이다. 즉 정각실체를 방해하는 작용이다.

如來藏(여래장) 思想(사상)에서 淸淨心如來藏(청정심여래장)과 識藏(식장) 如來藏(여래장) 즉 Alaya 識如來藏을 혼동하여 기술하고 있다. 元曉가 혼동 혹은 오류를 汎(범)한 부분을 29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評論하였다. 漢字佛教用語 5,000字를 梵語(범어)와 漢文으로 정리하고 論述하여 評論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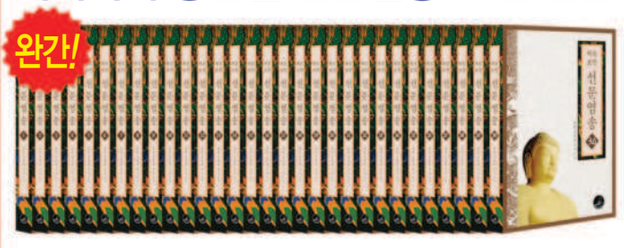
※ 目次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가격 150,000원
■ 저자 직접 구입 : 강상원
010-9134-4505 / 010-5213-6677
■ 교보문고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朝鮮明倫館學術院

대원 문재현 선사님 현재 74권의 저서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세계최대 공안집 선문염송30권 완간



세계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하다

1칙 도솔래의로부터 1,463칙 노파암자소각 공안에 이르기까지 각 칙마다 명안종사의 눈으로 꿰뚫은 번역에 살활자재한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으니 공안의 참 뜻을 가리키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공안의 교과서〉라 할 것이다.



바로보인 유마경

유마경은 가히 부처님법의 최정점을 찍는 경전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 대원선사 토끼뿔 〉로
유마경에 걸맞는 최상승법을
이 시대에 다시금 드날렸다.

www.zenparadise.com 참조
도서출판 문젠(MoonZen Press) ☎ 031-534-3373

“서양인 최초 승려는 아일랜드 출신 방랑객”

이언 로튼 감독, 담마로까 스님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담마로까 본명은 ‘로렌스 캐롤’
19세기 아일랜드 더블린 출생
미얀마·태국·네팔 등서 활동
영국 제국주의·복음주의자에 저항

서양인 최초 승려의 삶을 조명하는 애니메이션이 제작 중에 있어 화제다.

아일랜드 출신 이언 로튼(Ian Lawton) 감독은 아시아 지역서 기독교를 전파하려는 복음주의자들과 영국 제국주의에 맞서 저항했던 담마로까(U Dhammaloka · 1856~1914) 스님의 삶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제목은 ‘The Dharma Bum’이다.

“담마로까 스님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이 분이 오스카 와일드, 마이클 콜린스, 다니엘 오코넬처럼 아일랜드 역사에 이름을 남길만한 인물이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분명 아일랜드의 영웅이지만 아무도 그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이언 로튼 감독이 주목한 담마로까 스님의 본명은 로렌스 캐롤(Laurence Carroll)이다. 서양에서 첫 번째 승려가 된 후 아시아에서 반(反)제국주의 활동을 펼치며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로렌스 캐롤은 19세기 아일랜드 더블린의 이주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방랑가적 기질이 있었던 그는 농장 떠돌이 일꾼, 할부판매원 등으로 근근이 끼니를 때우며 사는 자유로운 사색가로 살았다. 그리고 증기선과 가축 운반차에 몸을 싣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증기선 항만 노동자가 되어 중국행 배에 올라탔다.

어수선한 안내에 따라 미얀마 양곤에 내린 캐롤은 숲속에 있는 한 사원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그는 방탕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서양인 최초의 승려가 되기까지 약 7년간 수행에 전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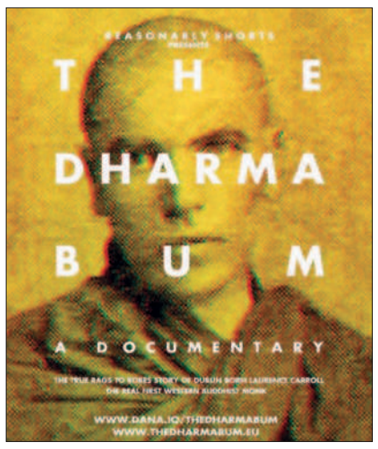
이후 캐롤은 불교의 평화로움을 좇는 대신 동남아시아에 단단히 뿌리내린 가톨릭과 엄격한 영국 식민지 규율에 저항하는 정치적 활동에 헌신했다. 그는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반도, 실론, 네팔 등에서 교육과 독립을 주제로 수천 번 법문을 했으며, 억압받는 이들에게 ‘로빈훗’ 같은 존재였다.

특히 캐롤은 미얀마 신문에 ‘담마로까’란 법명으로 “미얀마 지역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종교적인 글을 퍼뜨리거나 파는 행위를 금한다”는 경고문을 내는 등 당시 제국주의에 핍박받던 약자 편에서 싸웠다. 이밖에도 미얀마와 실론지역에서 활동했으며, 싱가폴과 태국 방콕에는 학교를 세우고 일본에는 네트워크를 형성, 네팔에서는 가르치는 활동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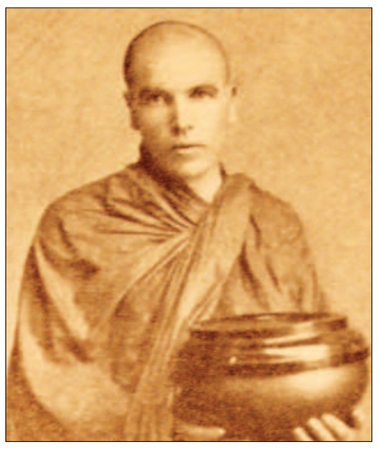
그의 이런 놀라운 삶은 로렌스 콕스 교수(아일랜드 메이누스대), 알리시아 터너 교수(토론토 요크대) 등 교수진들의 5년간 연구와 노력 끝에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로튼 감독은 “캐롤은 ‘영국인들은 미얀마를 빼앗고 미얀마인들의 종교를 짓밟았다’는 말을 한 이유로 재판에 섰다”며 “그는 지역종교(불교)가 강력히 방어한다면 제국주의 권력의 코를 비틀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종국엔 대중의 지지를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로튼 감독은 “우리는 그가 일생



‘The Dharma Bum’ 제작포스터.
사진출처=crowdgift.ca


담마로까 스님.
사진출처=thebuddhistsociety

동안 정부당국에 저항한 것을 발견했다”며 “그는 매력적이고 재치 있다. 또한 이야기꾼으로서 용기 있고 임기응변에 뛰어난 인물이었다”고 덧붙였다.

흥미롭게도 1900년 이전 캐롤의 26년간 삶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가 경찰의 지능적 감시로 인해 사망한 것처럼 위장한 채 활동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캐롤은 기독교 선교사들과 유럽 식민지 정책을 비난하는 연설을 해서 유명해졌던 것은 물론,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 특히 최하층 계급에게까지 자비심을 보여 존경을 받았다.

로튼 감독은 “캐롤이 여권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각국을 돌아다녔다는 점과 이름을 주기적으로 바꿨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그에 대한 중요한 증거들은 많이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캐롤에 관한 흔적은 그의 흐릿한 사진 1장과 작은 글귀들이 전부였지만, 그로부터 로튼 감독은 아일랜드인으로서 캐롤의 특유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캐롤은 신문에 1만5천 루피를 내 걸고, 성모마리아를 입증하는 사람에게 이 돈을 주겠단 글을 쓰기도 했죠.”

캐롤이 사망한지 100년이 넘었지만 로튼 감독은 후대들을 위해 그의 업적이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는 캐롤이 마틴 루터킹, 레니 브루스처럼 자신의 믿음에 신임을 갖고, 열정으로 맞서 싸우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이언 로튼 감독은 영화제작을 위해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후원금을 모으고 있으며, 애니메이션의 스토리는 교수진이 로렌스 캐롤의 삶을 추적·연구한 것을 토대로 한다.

로튼 감독은 “대부분 이야기들은 교수진과 인터뷰를 통해 얻어낼 것이고, 불교와 세계사에서 잘 알려진 내용들로 구성될 것이다. 현재 크라우드 펀딩 목표는 1만5천 유로다”며 “이번 애니메이션을 꼭 불자의 삶이나 역사적인 내용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단 역경을 이겨낸 한 영웅의 이야기로 담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英 600만 불 규모 전통사찰 건립

웨스트민스터 시에… 베트남 출신 틱비엔리 스님 “3월 완공”

영국 웨스트민스터에 600만 달러 규모의 전통 불교 사찰이 최초로 생길 전망이다.

온라인 매체인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Orange County Register)에 따르면 1월 7일(현지시간) “추아디우응(Chua Dieu Ngu) 사찰의 주지인 베트남 출신 틱비엔리(Thich Vien Ly · 60) 스님이 웨스트민스터 시에 최초로 불교 사원을 건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찰건립 공사는 2014년 5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틱비엔리 스님과 그의 형제인 틱 비엔 후이 스님 등이 감독을 맡고 있으며, 2개월 내로 완공 되면 오는 6월 성대한 개원식을 준비하고 있다.

틱비엔리 스님은 “법당 계단 앞에는 대형 불상을 놓을 것이다. 또한 전통스타일의 붉은 벽돌로 지붕을 꾸미고, 외벽은 밝은 오렌지색으로 칠할 것”이라며 “아름다운 사찰이 완공되면 웨스트민스터 지역과 어우러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6세 때 출가한 틱비엔리 스님은 추아디우응 사찰 뿐 아니라 산 가브리엘 사찰 주지를 맡고 있다.

틱비엔리 스님은 “웨스트민스터 내에 있는 사찰들 신도수가 점점 증가하면서 수용할 공간이 부족했다. 이에 대형 전통 사찰을 건립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웨스트민스터 시에는 3만6천 베트남계 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불자다.

트리 타(Tri Ta) 웨스트민스터 시장은 이번 전통사찰 건립에 대해 “가든 그로브와 산타 아나 등에 많은 사찰들이 있어, 이번 대형 사찰 설립은 지역사회를 위해 매우 발전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베트남 출신 틱비엔리 스님은 웨스트민스터에 600만불 규모의 대형 전통 사찰을 짓고 있다.

中, 독에 보관한 승려 시신 꺼냈다

1월 10일 공개… 금 입혀 ‘미라 불상’ 보관 예정

2012년 열반한 후 원통형 독에 보관돼 왔던 스님 시신이 공개됐다.

1월 10일(현지시각) 중국 남동부 푸젠성(Fujian) 진장(晉江) 시(市)에서 열린 ‘원통형 독을 열다(Open Cylinder)’ 행사서 3년 간 독에 보관돼 왔던 푸호(Fuhou) 스님 시신이 대중에 공개됐다. 푸호 스님은 2012년 향방 94세 나이로 별세했고, 푸자오(Puzhao) 사원은 ‘존경의 뜻을 기억한다’는 의미로 시신을 원통형 독에 보관해 왔다.

‘Mirror Online’은 12일 보도를 통해 “주목할 만한 것은 푸호 스님의 뚜렷한 형태”라며 “생전 스님의 턱수염, 눈썹 등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푸호 스님은 1919년 출생해 13살 나이에 불교에 귀의했다. 그 후 취안저우(Quanzhou)시에 위치한 푸자오 사원 주지를 맡았고, 보살행과 자비행 실천으로 지역 귀족들 사이에 숭배 대상이 되었다.


푸자오(Puzhao) 사원은 2012년 열반 후 원통형 독에 보관해 왔던 푸호 스님 시신을 1월 10일 공개했다.
사진출처=The Telegraph

한편, 사원 측에 따르면 푸호 스님 시신은 금으로 덮여, 미라 불상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중국 불교는 전통적으로 뛰어난 고승들이 열반했을 때 ‘미라 불상’을 제작한 풍습이 있다.

박아름 기자

英 가수 데이빗 보위, 부처님 품으로

1월 10일 암 투병 끝에 사망… 불자로서 삶 ‘눈길’

영국 출신 가수 데이빗 보위(David Bowie, 1947~2016)가 암 투병 끝에 사망한 가운데, 생전 불자로서 그의 삶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데이빗 보위는 1967년 6월 발표한 데뷔 앨범 ‘David Bowie’ 제작 중 티베트 불교에 심취하며, 불자로서 깊은 신심을 드러내 왔다. 이에 따라 해외 언론들은 그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데이빗이 불교 품으로 돌아갔다”고 일제히 애도를 표하고 있다.

온라인 언론매체 ‘patheos’는 1월 11일 “전 세계가 데이빗의 급작스런 죽음으로 슬픔에 빠졌다”면서 “특히 많은 언론들이 데뷔 이래 불교와 그의 연결고리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불교 언론매체 ‘Lion’s Roar’는 “1976년, 티베트 불교 지도자 초감 트룽파 린포체(Chogam Trungpa Rinpoche, 1939~1987)가 스코틀랜드 삼예 링(Samye Ling) 사원에 머물던 당시 유럽에선 불교에 대한 젊은 세대들 관심이 날로 높아졌다”면서 “많은 유명인사들도 불교에 대한 애정을 표했다. 삼예 링 사원에 오기 시작했던 데이빗도 그 중 한 명이었다”고 언급했다.


데이빗 보위(David Bowie, 1947–2016)
사진출처=The guardian

이어 ‘Lion’s Roar’는 “그는 스님이 되진 않았지만, 차임 툴쿠 린포체(Chime Tulku Rinpoche) 스승 아래서 불교를 성실히 공부했다”면서 2001년 티베트하우스에서 열린 자선음악회 자료를 인용하고, “데이빗은 이미 13살 때 〈The Rampa Story(롭상 람파 저작)〉를 읽고 불교에 대한 흥미를 키워갔다”고 설명했다.

한편, 데이빗 보위는 싱어송라이터이자 배우로서, 또 ‘글램록 창시자’로서 전 세계인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다. 사망 바로 전 주에는 새 앨범 ‘블랙 스타’를 발매하며, 암 투병 중에도 음악에 대한 식지 않는 열정을 나타내 대중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해외 셀러브리티들은 물론, 국내에선 아이돌그룹 ‘빅뱅(Big-Bang)’의 리더 지드래곤(G-Dragon), 배우 유아인 등이 SNS를 통해 보위를 추모했다.

박아름 기자

꿈바위 시대가 왔습니다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 자가용 운전자를 위한 무사고 안전 기도.
■ 조상숭배실천회. 세종대왕선양회 : 전국적으로 지회를 조직하오니 동참 바랍니다.
■ 포교활동 하실 분, 공양주 하실 분.
■ 지역사회에서 큰 활동 하실분 지도자 양성.
■ 꿈바위에서 크게 활동하실 화주보살님 모십니다.
■ 꿈바위에서는 각종 경전불사를 하오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말 천수경, 문수보살예찬문, 보현행원품, 관세음보살보문품, 지장경, 아미타경, 금강경, 약사여래경, 대불정능엄신주, 성철큰스님 불탄법어 신년법어, 영가천도, 대학 기타
■ 창업 개업 하실 분 상호, 좋은 이름 작명해 드립니다.
■ 대학입시 합격 기도 상담. (지금 상담이 중요함)
■ 치매 예방, 암 예방, 중풍 예방, 비만, 변비, 우울증, 코골기, 스트레스, 가족 갈등, 상담과 특별지도 및 기도.
■ 가정 방문, 회사 방문, 조상 산소, 상담과 기도해 드림.

• 태아영가 조상영가 천도 / • 부산 – 일본 오사카(선상천도)
확실한 천도가 됩니다.
선상에서 천도하며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참여함.

꿈바위불교교육원
대전시 중구 대흥동 468-1 H·P 010-6789-5008

불법의 정수를 담은 최고의 논서!

대지도론 (전5권)

용수 著, 구마라집 漢譯, 석법성 韓譯
전5권(총 4,000여쪽)/신국판 양장
세트가 270,000원

용수보살의 불교대백과전서!
반야사상을 총괄한,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논서!
방대한 불교사상의 바다를 헤쳐 나가는 필수 길잡이!
신수대장경과 중국 고간본을 대조하여,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현대적 언어로 풀어낸 역작!



2월 초 출간,
사전 주문 예약 중!
300질 한정 판매!

① 270,000원 → 243,000원 / 예약금 100,000원
② 교감본 원문 아래한글 파일과 PDF 파일을 담은 고용량 USB 증정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계좌번호: 농협 029-02-223253 예금주: 김시열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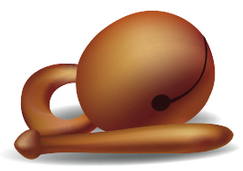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4×5.8) 4만원, 1회 1Box (8.8×5.8)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피로한 사람에게 길은 멀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생과 사는 아득하니 바 른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 출요경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살풀이,극락무,회심곡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5511-7000

허리병고치는법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대학
학인모집 실전교육
작법,천수바라,법고,송주북,
정근북,태징,양고장,난타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 (구, 용화사) 대진 합장
055)745-3624
010-7579-820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점안식 · 범음범패
이인연으로 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17-1242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842-1070
010-9944-1075

수강생 모집
서예,문인화,선묵화
– 대상 : 스님,학생
(회비없음,무료지도)
– 원장 : 정선스님(박용국)
대한민국미술대전 우수상수상,
개인전5회, 대구 길상사 주지
주소 : 대구 중구 대봉2동 744-21
문의 : 삼소정 서예문인화 연구원
대구 향교앞 010-6797-3223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영통 철학
1개월 완성
1개월 책임지도
즉시상담가능
사찰 고승비급 전수
010-2586-7938
동국대대학원졸업(석사) 정광 합장

명리첩경의 저자 혜공
혜공철학원
지리산 청학동에서
명리공부와 수련 하실 분
010-3054-3345
전화상담

건강태극권수련
출장지도가능
20년수련
사주, 풍수
031-591-9023
보현수련원

황토와 편백나무로 지어진 집
암환자나 난치병 환자를 받습니다. 바위와 소나무가 어우러져 있는 아름다운 풍광, 항상 산소가 녹아있는 1급수 약수터, 주위 숲속 산책로, 서울에서 가까운 용인에 위치. 저렴한 금액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031-333-5014. 010-7105-5013
수정산 수정사

신심깊은
공양주
모십니다
010-8916-0408

비구니 기도 스님
모십니다
(50–60세)
공부하시면서 기도하실 분
010-9340-3921

비구,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경남 창원)
010-8543-0464

신심깊은
공양주 모십니다
(출퇴근, 숙식가능)
경북 경산시
010-3955-1657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용담사
02-387-3216
010-9350-3216
서울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126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서울 금호동 관음사)
010-6260-3310

수목장
건립 동참하실 분
소액투자로 정말 큰 성
과 이룰 수 있습니다
위치 : 부산,울산,경주에
서 1시간 거리
010-3410-6200

부지갱이 비빔밥 법회
4월1일부터 – 6월30일까지
한정예약 / 울릉도 부지갱이
+ 육지부지갱이 / 입장료
균일 3500원 10명할인 예매
한학마을 041-542-9955
아산시 도고면 신통길 192-21

귀신을 부리는 방법을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북부역 소명사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빙의(퇴마) 전수해 드립니다 (최면)
– 빙의된 본인 입으로 어떤 영가인지, 언제 들어왔는지, 몸에서어떤 일을 했는지 등 명확하게 찾아 내어서 천도합니다. (몸이 아닌 집안이나 사업장도 마찬가지)
– 이유없이 아픈 몸, 분노, 불안 등을 가진 분이나 멀쩡한 분들도 누구나 빙의 되어 있습니다.
절,포교당,점집 운영시 꼭 필요함(그외 다수 전수)
만경사 051)757-7925. 010-3156-6414 운유 합장

지극한 신심으로
기도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010-5121-3347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영대네거리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163만원)으로 장례발생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영재 철학관 수강생 모집
암기없이 바로 적용하는 '필살기'
네이버, 다음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중국 귀장술, 일본 도궁술 단기 완성
문의전화 010-8558-2345

비구,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010-3499-3721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①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② 역학(기문둔갑) 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③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귀접/귀신들림/알콜중독/게임중독/도박/상습폭행등
모두 빙의현상일 수 있으며, 귀신을 확인 시키고,
책임치유, 사후관리까지... 원인을 알면 처방이 있다!
빙의치료의 대가 화엄스님 010-4293-7075
고민, 고통 해결사 060-900-8181



빙의치료 화엄선원 명리교육관
원격상담문의 010-4293-7075 부천 상동역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한국불교전체 종단 · 단체 법인연대
사단법인 세계평화불교종단 연합회



● 종단법인 설립
사암등록 안내
● 민법 · 문화광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 법인 설립문의
● 종무행정
010-2500-0111 / 011-356-3427
사찰홍보동영상제작방송
연 합 불 교 방 송
010-2500-0111,010-5334-9008

新 풍수원리강술
※ 산승이 수십년간 산야를 섭렵궁구해오다
◆ 산세를 자연과학으로 풀어내고
◆ 장심통으로 땅속혈맥 읽어내며
◆ 발복현상으로 반드시 증명되고
◆ 백발백중 감정 및 점혈 할수있는
정통 혈맥지리에 달통 전수코자 합니다
강습생 모집
◆ 모집자격 : 위 원리를 꼭 달통코자 할 분만
덕숭산 방술(평생)회원으로 접수 합니다.
◆ 강 습 장 : 절로암 참설당과 덕숭산내 간산실습장
◆ 강습일정 : 3월초부터 강습예정 (혈맥이론 실습 병행)
수시강습(1:1 집중강습) 정기강습 및 간산 (월1~2회)
◆ 회원가입비 : 일정의 시주금(천년마애삼존불사)
◆ 교구재 무료제공 : 부교재, 패철, 혈맥기봉
문의 010-4600-7399 / 041-338-5595
충남 예산군 덕산면 광천동막길 81(광천리 866)
전국좋은터잡기선양본부 덕숭산 방술회
태극산수혈맥지리원
덕숭산인 지 천 공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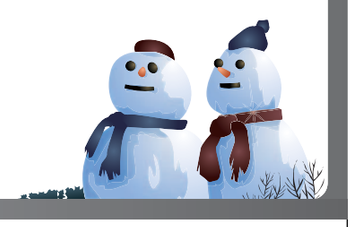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 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경을 자세히 널리 배우고 공양을 탐하지
않으면 속히 이 경의 가르침을 얻으리라

- 반주삼매경 -



사 찰 안 내

▶ 넓은 터전 아름다운 사찰◀
- 위치 : 삼량진
- 총부지 : 33,000평
- 건물 : 목조법당(10평), 암벽위 목조 산신각, 요사채(5동), 계곡물 철철 흐름
- 가액 : 6억 6천

051-863-6622/010-3560-8522

▶시원하게 트인 멋진 조망권◀
- 위치 : 거제 도심지(롯데APT, 버스종점 인근)
- 총부지 : 약 400평 남향 주차, 사진
- 건물 : 법당 25여평, 요사채 50여평 기타3동
- 가액 : 협의조정 종교단체 양도
- **전, 월세 임대 가능 비밀보장**

직통 010-9906-3631 혜관

※ 사찰 전문 30년 역사 전국 2,000여개 사찰 탐방 ※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계사

주소: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504호(만덕동 302 다산타워)

원주시 추천사찰안내 (www.이박사.com)

- 기와법당 50㎡ 요사채 80㎡
- 창고 20㎡, 토지 760㎡
- 위치 : 원주 IC에서 7분거리
- 저수지부근 마을 뒷편 사찰
- 가액 : 2억 2천만원
- 조정가능함(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서울	◎ 위치: 경기
◎ 대지: 100평	◎ 대지: 1300평
◎ 법당: 30평	◎ 법당: 50평
◎ 요사: 60평	◎ 요사: 100평
◎ 양도: 17억 5천	◎ 양도: 16억8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 임야: 종교부지 합 2,000평
- 법당: 조립식 16평
- 요사채:조립식 30평
- 가액:대출 7,500안고 1억 1천만원

010-7188-7723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불국역 부근
- 대지 200평, 건평 25평 (대웅전), 산신각
- 요사채 12평, 대웅전 및 방3개 주방
- 가액 : 2억 9천(조절가능)
- 최고 입지적 조건 갖춘 암자임

010-5427-3699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 IC부근 목조사찰
- 토지 730㎡, 주차장별도로 있음
- 목조법당 65㎡, 목조요사 130㎡
- 노천불 산신각
- 원주시 근접거리, 교통편리함
- 가액 : 5억5천만원(융자2억 포함)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찰(급)안내
- 위치 : 포항 도심속 전통양식
- 아담한 사찰
- 인법당 30평, 2층 방 한칸, 칠성각, 용왕단, 독성각
- 문수동자 200불, 소불 1,200불
- 공양간, 사무실, 주지방, 화장실 3개
- 가액 : 3억 3천만원

010-4606-7253

사찰 부지 안내
- 위치 : 순천시 상사면 와룡길 55-105 순천역에서 20분거리
- 해돋이 명소, 해발 350미터
- 종교부지로 허가 나왔음 (분할도 가능)
- 부지 1050평, 건물 60평
- 가액:4억

주인직 010-3228-978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무안면
- 대지 183평, 요사채 60평 (큰방4, 큰거실2, 화장실2)
- 인법당 20평
- 가액 : 2억 5천만원

010-9330-5860

사 찰 안 내
- 위치: 대전시내 보문산부근
- 전망좋고 위치최상
- 식장산과 보문산공원이 바로 앞에 보이는 보문산 자락에 있음
- 사찰에서 보문산 50미터, 대전역(택시)8분거리
- 대지 70평, 건물 1층 요사채 35평
- 2층 법당 25평
- 삼존불, 산신, 칠성, 신중탱화, 인등
- 시설완비 몸만오시면 됨
- 가액 : 3억 3천(가격절충)

010-8701-9608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 현재는 주택이나 8년간 절 운영했음
- 대지 578㎡, 전 274㎡(3필지)
- 건물 30평, 삼존불, 법당1, 방 3개, 화장실 2개
- 대문 입구 500년된 똘밤나무 있음
- 기도스님이나 보살님 대 환영
- 가액 : 7,800만원

010-3321-6831

사찰(급)안내
- 위치: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총1,420평, 법당 20평, 관음전, 종각
- 요사채, 공양간, 창고, 차고, 외부화장실 등등
- 대형주차장 등
- 스님 건강상 문제로
- 가액 : 3억 3천

010-4628-5699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지역 문막 IC에서 5분거리
- 평수 280평, 대지200평
- 법당:목조로된 황토 건물 임법당 30평 요사채 15평
- 특징: 마을 끝 산 밑에 위치함 (전원 주택가능)
- 가액 : 3억 2천 (원주시내 10분거리)

010-9070-9380

사찰(급)안내
- 위치:경남김해
- 평수 248평
- 법당23평.요사채.방가루
- 마당잔디.조경전망좋음
- 시청, 은행, 관공소도보10분거리
- 가액:5억7천5백만원
- 대출2억7천안고 양도3억5백만원 (현시세땅값만6억7천만원)
- 불사관계로급 양도

010-5019-5385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 (버스 정류장 앞)
- 3층 건물 중 2층 약 80평, 방 5
- 종무실, 화장실, 샤워장 (냉, 난방완비)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 현재 법회중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4805-5950
(산중 불사중)

도심 속 포교원
- 위치 : 부산 사하구
- 반지하 150평 상가건물, 시설완벽
- 별도로 사용공간 약 20-30평 공간있음
- 주위에 대단지 아파트
- 꼭 하실분만 연락 요망
- 가액 : 2억 5천 전세 8천만원에 월 100만원

010-4519-7780

대형 포교원
- 위치: 대구 시지 지하철 신매역 1번 출구 1분거리
- 8층 건물 5층 120평,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10만원, 관리비 50만원
- 남향이라 환하고 겨울 따뜻, 법당 기둥 하나 없는 넓은 공간
- 큰법당 +큰방+종무실+종무실방+주지실+기도실+탈의실2+주방 (전체 강화마루+보일러+방음벽+이중창 시공으로 조용)
- 불교대학, 선방, 명상요가수련원으로 적합
- 주말 주변 주차 대량 가능
- 주변에 상가, 학원, 병원, 학교 대단위 아파트단지 밀집
- 인테리어 1억 이상 완벽한 시설 일체 보시 (청도에 대형 템플스테이 불사 완료한 복 많은 포교원임)

문의 : 010-3487-0035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건평 1층 요사채 35평
- 2층 법당 30평, 산신각 6평
- 아래채 황토방 2개, 화장실, 주방
- 집기 일체, 즉시법회 가능
- 조경 주차장 시설 완비
- 급양도, 방문요

010-3186-0361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구암동
- 평수 : 50평
- 3층 건물 3층 전체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세50만
- 시설비 1,500만원 (답사후 협의 결정)
- 급안내 : 스님 불사 이전 관계임

010-3292-241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쌍림면 신곡리 163번지
- 대지 466㎡
- 아미타삼존불
- 공양간, 방3개
- 가액 : 9천만원

010-3697-3521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시 울주군 소재
- KTX 역세권, 조용한 산사
- 교통편리, 주차장완비
- 대 197평, 법당 30평
- 요사 1동(방3), 산신각1동 5평
- 양도가 : 3억 5천만(절충가)

010-6658-1681

포교원안내
- 위치 : 중량구(우림시장)사거리
- 2층, 약 30평
- 삼존불, 신중, 집기
- 가액 : 보증금 2,000에 70만원

시설비 2,600만원(가격절충)

010-5387-6767

암 자 안 내
- 위치: 경주시 충효동 981-3번지
- 구미산(대지) 64평
- 아담하고 깨끗한 절
-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약사불, 지장보살, 신중(산신)
- 땅값만 주세요
- 가액 : 6천5백만원(조정가능)

폰 010-4040-3588
집 054-742-8780

사찰 및 요양원 안내

뒤에는 산이요 앞에는 큰 저수지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전망 최고의 요양지

- 사 찰 -	- 명당 터 -
● 위치: 경남 밀양	● 1층 90평, 2층 90평
● 2층: 법당 3존불(25평) 1층: 칠보관음궁전 천불상(30평)	● 입소정원 25명, 현원 24명
● 요사채 45평, 큰방 3개 황토방 1개	※ 요양원만 분리 양도 가능

● 총 대지면적 약 900평 / ● 가액: 19억

010-9567-0813

포교당. 토굴안내
- 위치 : 부산 남구 감만1동
- 2층. 법당, 거실
- 방2개, 화장실
- 총25평
- 법당이나 토굴로 적합함
- 가액: 보증금 5백만원 월25만원(시설비 없음)

010-6548-9191

포교원(급) 사찰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북안면
- 대지 75평 (만불사 인근 2차선도로)
- 가옥건물 건평 15평 (마당 활용가능)
- 포교당 및 사찰용도로 적합함
- 최근 리모딩 했음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람
- 가액: 1억 5천만원

010-5277-0259

포교원(급) 안내
- 위치: 부산 해운대구 송정 해수욕장 부근
- 평수 : 50평 2층 방1개 화장실, 주방 별도
- 가액 : 보증금 1,7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000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10-3794-5215

건 물 안 내
- 위치: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193
- 정남향집(급) 단층 슬라브
- 대지 41동, 건평 19평
- 방큰방 1, 작은방 3개
- 가액: 은행 3천만원 안고 6천 800만원
- 비구니 스님에게 좋은집

주인직 : 053-852-1810
010-3598-5470

사 찰 안 내

도심속 현대식 건물 사찰

관심 있으신분

전화주세요

- 가액 : 13억

010-3860-1228

도심속의 작고 아담한 포교원
- 위치: 대구 서문시장 부근
- 철학이나 영으로 포교하실분
- 관세음보살, 호신불, 신중
- 방2개, 주방, 욕실, 창고
- 총 13평
- 가액 : 6,500만원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8439-1231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거제(앞바다, 뒷산)
- 대지 252평(터밭 50평)
- 2층건물 1층 큰방 2칸, 상담실, 샤워장, 화장실, 2층법당 23평, 삼존불
- 요사채:창고 10평, 방2칸, 공양간 심야보일러, 남 녀 화장실
- 해수관음, 다보탑
- 가액 : 4억 7천(대출 1억 안고) 3억 7천(절충가능)

010-5121-334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진구
- 대지 약 42, 건평20
- 법당(상단, 신중, 산신 용왕 등)
- 방2 공양간 욕실 실내외 화장실
- 도심밀집, 뒷산, 동남향, 기도처
- 집기일체 시설포함 (몸만 오시면 됨)
- 몽땅 7천백만원

연락처 010-8503-6000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건평 1층 요사채 35평
- 2층 법당 30평, 산신각 6평
- 아래채 황토방 2개, 화장실, 주방
- 집기 일체, 즉시법회 가능
- 조경 주차장 시설 완비
- 급양도, 방문요

010-3186-0361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시장입구 시내
- 버스승강장, 장소 최적 3층 건물중 2층
- 삼존불, 108소불, 주방, 욕실, 방1, 창고, 에어콘1, 냉장고1, 즉시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1,000만, 월3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4880-1533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진구
- 대지 281㎡(외 국유지 있음)
- 법당, 산신전, 약사여래불
- 방3, 공양간, 주차가능
- 정원과 텃밭
- 등산로 입구 조용하고 전망 좋음
- 가액 : 4억

금호부동산 연산가 -13-1645(이찬수)
부산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18(연산동)

051)861-2233
010-5346-4138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내에서 6분거리
- 법당 : 23평
- 삼존불, 산신, 용왕, 목탱화
- 노천 : 약사여래불좌상
- 요사채 20평, 평수 445평
- 주차시설양호, 즉시법회가능
- 가액 : 2억 3천 (가격절충)

010-2384-0327

포교원 안내
- 위치 : 동작구 사당동 역 5분거리
- 2층 전체 약 35평, 욕실, 주방, 방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에어컨, 큰냉장고
- 금장문연등 3개, 가족연등 2개, 영가연등 15개, 인등 15개
- 주차 2대가능, 종교인은 누구나 가능
- 아주 깨끗함, 관리비 없음
- 2층 전체 도시가스 보일러 (몸만 오시면 바로 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10만원, 시설비 3,500만원(조정가능)

010-4646-3638

2016년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8기 수강생 모집 안내

그동안 **제1기에서 제7기**까지 전국에서 **9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배우신 모든 스님께서 큰 만족감과 보람을 느끼심>

강의 특징

7개월 동안의 교육기간중 5개월은 초보부터 고급, 비법까지 완벽하게 전수 2개월은 사주팔자를 뽑아 놓고, 운세나 운명을 정확하게 직접 통변 할 수 있는 통변술(추명술)을 가르쳐 드림.

명리학을 배우시고 통변을 못하면, 아무소용이 없습니다. 통변이 자신 없으신 스님들께서도 이 기회에 신청하셔서 배워보십시오.

대 상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 교육기간 : 2016년 3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7개월간
◆ 수 강 료 : 7개월 교육전기간 강의료 무료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 책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 (책자 대금 20만원)

상담문의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사람을 찾습니다

■ 성별 : 여자
■ 나이 : 32세 갑자생 1984년생

이름은 미상이고 헤어질 때 경주 이씨라는 쪽지만 품에 넣었다 함.

헤어질 때 출생 후 4개월 정도였음. 32년전, 아기 할머니가 서울 강남구 세곡동 소재 법수선원에 주석하시다 열반하신 성수 큰스님을 친견 하러온 비구니 스님을 만나 사전에 협의하고 몇일 후 만나 아기를 맞겼다 함. 꿈에도 잊지 못합니다.
아가를 넘겨줄 때 품속 쪽지에 생일은 음력 2월 1일이고, 아빠는 이씨라고 써서 넣었답니다.

아시는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 : 엄마 010-7553-8463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기적의 명상치료

비디아말라 버치 · 대니 펜맨(명상 지도자)

〈7〉 6주차: 치유호르몬으로 면역력 높여라

‘분노vs사랑’ 싸움서 이겨내라

하얀늑대와 회색늑대의 싸움

그레이트 스모키 산맥에서의 상쾌한 가을날이었다. 한 무리의 체로키 인디언 아이들이 할아버지 주변에 모여들었다. 다들 호기심과 흥분으로 가득한 얼굴이었다. 몇 시간 전 두 남자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서 부족의 원로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아이들은 이 원로가 여기에 대해 무슨 말을 할지 무척이나 궁금했다.

제일 어린 아이가 물었다. “사람들은 왜 싸워요?”

원로가 대답했다. “그건 말이지, 우리 마음속에 늑대가 두 마리 살고 있는데 이 둘이 끊임없이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이란다.”

또 다른 아이가 물었다. “우리들 속에도 있어요?”

원로가 대답했다. “그럼, 모두의 마음속에 살고 있단다. 한 마리는 하얀 늑대고 다른 한 마리는 회색 늑대야. 회색 늑대는 분노, 두려움, 씁쓸함, 질투, 부러움, 탐욕, 오만으로 가득 차 있단다. 하얀 늑대는 사랑, 평화, 희망, 용기, 겸손, 연민, 믿음으로 가득 차 있지. 이 두 마리 늑대는 항상 싸우고 있단다.”

또 다른 아이가 물었다. “그럼 어느 늑대가 이겨요?”

원로가 대답했다. “우리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지.”

지금 이 글을 읽는 동안 당신은 마음속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가? 당신의 고통을 달래 주는 하얀 늑대인가, 아니면 당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통증을 악화시키는 회색 늑대인가?

통증과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동안에는 자신에게 이런 부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 두려움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한다. 행복하고 건강했던 시절을 떠올리다 보면 장밋빛 기억들이 오히려 씁쓸한 비통함으로 물들기도 한다. 걱정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은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느낄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회색 늑대’는 당신의 삶의 질을 신속하게 무너뜨릴 수 있다. 2차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주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엄연한 부정적 편향이다. 이것은 그 자체로도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이런 마음 상태가 몸의 치유를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회색 늑대에 의해 야기되는 스트레스는 면역계를 약화시켜 몸의 치유 능력을 저해한다. 또한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만들어 내는 진통제의 분비도 막아 괴로움을 악화시킨다.

‘적자생존’, 즉 ‘가장 적응을 잘 하는 자가 살아남는다’라는 말을 다들 익숙하게 들어 보았을 것이다. 우리는 이 말에 너무 익숙해져있다 보니 이것이 100퍼센트 정확한 세계관이라고 가정해 버린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가장 친절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말 역시 진화의 작동 방식을 그와 같이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앞 장에서 살펴본 뇌의 부정적 편향이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부정적 편향은 생존의 필요성에 의해 생겨난 것이고, 모든 것에 조심하는 방식으로, 즉 인생이 휘두르는 ‘채찍’을 피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것은 ‘회피(avoidance)’ 시스템이다. 생존 본능의 또 한 가지 측면은 새로운 기회와 자원, 말하자면 인생의 ‘당근’을 찾아 나서려는 욕구가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성취(achievement)’ 시스템이다. 이 두 가지 원동력 때문에 초기의 선조들 가운데 제일 꾀가 많고 적응을 잘하는 자들만이 살아남았다. 하지만 우리의 생존 본능에는 세 번째 측면이 있다. 이것 역시 우리가 세상에 접근하는 방식을 지배하는데, 바로 ‘진정과 만족(soothing and contentment)’ 시스템이다.

새로운 시야

자신과 타인에게 연민의 감각을 불어넣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의 시야를 넓히려 애쓰다 보면 이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 여기에 대처하는 비법은 바로 그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어려움이 현재로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제이미는 친절과 연민을 두고 힘겨워했던 것을 가혹할 정도로 솔직하게 말한다.

“솔직히 말해서 완전히 바보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영국 북서부의 샐퍼드 시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내가 연민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바보 같은 소리로 들리더군요. 마치 계집애라도 된 듯이 너무나 나약한 소리 같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말랑말랑해 보이고 나약한 흔적이라도 보였다가는 뒤통수 맞기 십상 아닙니까? 대체 누구한테 연민을 가지라는 겁니까? 아파트 수리도 제대로 안 해 주는 위원회한테요? 나한테 마약 한번 팔아 보려고 어슬렁대는 길바닥의 쓰레기 같은 인간들한테요? 저는 이번 주 프로그램에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저한테 이 명상은 너무나 힘드네요.”



“가장 친절한 자가 살아남아”
채찍 · 성취 본능 벗어나
‘진정과 만족’ 추구해야
받아들임 후 일상 소중히 여겨

하지만 제이미는 프로그램을 고집스럽게 밀고 나갔다.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었다. 으깨진 왼발의 통증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처음 다섯 주 동안의 명상 프로그램은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지만, 이 과정에 와서 명상을 포기하자 통증이 다시금 살금살금 기어들었다. 결국 몇 주 후에 그는 열린 마음 명상부터 다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냥 앉아서 명상을 했습니다. 이번 한 주만 어떻게 버텨 보자,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도중에 그는 자신도 스스로에게 연민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마음은 전적으로 그의 것이었기 때문에 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누구도 알 필요가 없었다. 그도 자기가 바라는 만큼 자신에게 친절해질 수 있었다. 제이미는 겉으로 보기에는 어제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내면에서는 그가 말한 대로 자기의 숨통을 틔워주기 시작했다. 며칠 후 그는 받아들임이란 포기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고 했던 강사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은 수동적인 체념도, 무관심도 아니다. 그것은 실제 세상, 자기 주변과 자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온전히 의식하는 능동적인 속성이다. 이 과정을 통해 그는 자기가 강인하고 억센 사람이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 왔던 것이 오히려 그를 약화시키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끝없이 경계하고 걱정하면서 내부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쌓아 왔고,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지 못하도록 막아왔던 것이다. 지게차에 밟혀 으깨져 버린 그의 발은 결코 완전히 회복되지 못할 테지만, 그렇다고 그가 지속적인 통증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정착해서 확립하기

이 단계의 프로그램에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규칙적인 페이스 조절 리듬으로 정착하기 시작한다. 정신없이 이어지던 활동 중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자리잡기 시작했을 것이다. 매일 쉬는 시간이 더 잦아지고, 성취하는 일도 더 많아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속 가능한 리듬이 확립된 상태라면 자신의 기준선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아기가 발을 딛듯 아주 조금씩 높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매주 기준선을 최대 5퍼센트 정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적당하다. 현재의 기준선을 20으로 나누어 그 값을 기준선에 다시 더하면 된다. 예를 들어 20분간의 산책인 경우 계산하면 21분이 된다. 겨우 1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정기적으로 페이스를 늘려 나가면 힘과 지구력이 붙는 속도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기준선을 높였더니 불편이 지나치게 높아지기 시작한다면 다시 뒤로 후퇴하자. 급할 이유는 없다. 이것은 체력 단련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님을 명심하자.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삶의 질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체력 증가는 그것에 뒤따라오는 기분 좋은 부수적인 작용이라 여겨야 한다.

현재의 기준선으로 충분하다고 느껴지면 기준선을 한 주 더 유지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서두를 이유는 없다. 기준을 높이고 싶다면 그럴 기회는 앞으로 얼마든지 있다. 부끄러워 할 필요는 없다. 그래도 당신은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며, 실험에 시간을 좀 더 투자하는 것은 마땅히 가치가 있는 일이다.

다음으로, 일상의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자. 이 단계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일상생활에서도 마음챙김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어쩌면 당신도 가던 걸음을 멈추고 태양, 하늘, 햇살, 호흡의 의식 등에 감사해 하는 날이 많아졌음을 느낄지 모르겠다.

이번 주의 습관 행방시키기는 매일 5분 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거나,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편안한 자세를 취하자. 앉아도 좋고, 눕거나 서 있어도 좋다. 그러고는 경험들이 당신의 감각에 와 닿을 수 있게 놔두자. 그 풍경이나 소리에 이야기를 붙이려 하지 말자. 하루는 소리를 가지고 실험해 보고, 하루는 눈에 보이는 풍경을 가지고 실험해 보자. 만약 시각이나 청각에 장애가 있다면 자신에게 가장 생생한 감각을 선택해서 대체하면 된다.

소리의 경우, 감각의 인상(sense impression)으로서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소리 자체가 있는 그대로 귀에 온전히 도달하게 놔둘 수 있는지 본다. 좋아하지 않는 소리를 밀어내거나 차단하려는 성향이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본다. 좋아하지 않는 소리를 밀어내거나 차단하려는 성향이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본다. 소리들 중에 당신을 끌어당겨 의식이 몸을 빠져나가 그 소리를 향하도록 하는 것은 없는지도 확인해 보자. 그 소리가 무엇인지 알아내려 하다가 그 소리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만들어 내고, 결국은 공상으로 끝나게 될 수도 있다. 이 수련은 넓은 의식 속에 통합되고 거기에 근거를 둔 상태에서 소리를 그냥 소시로, 계속 변화하는 경험으로 의식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소리를 받아들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는 즐기자. 그 소리들을 모두 인정해 주고 매 순간 그대로 놓아두자. 소리가 어떻게 끊임없이 변화하는지 확인해 보자. 그러다 보면 아마도 가만히 있지 못해 들썩이거나 지겨워지고, 자의식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전체 과정 중에 일어나는 정상적인 부분이다.

시각에 대해서 마음을 열 때도 똑같이 한다.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에 마음을 열자. 창밖을 바라보거나, 방안을 둘러보거나, 야외에 누워 나무나 하늘을 바라보아도 좋다. 서로 다른 다양한 모양과 색에 열려있는 넓은 의식을 가질 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 그중 어느 한 측면에 시선을 고정하는 일 없이 이런 인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그대로 지켜볼 수 있겠는가? 시야에 담긴 서로 다른 모든 속성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정신적 · 감정적 과정에 대해 의식하자.

정리=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이 글은 〈기적의 명상치료〉(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건강에 좋은 신비의 효능
마가목(원탕)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 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7시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4년 7월31일 목요일 - 오후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 「마가목」 건강식 방영
■ 2014년 10월6일 일요일 - KBS-1 TV 오전5시10분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방영
한방문헌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상담문의 031-773-7838, 011-9049-2848 야간전화 사절
※ 제방선원이나 수행스님께 대중공양 올릴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조원 : 구암식품 · 식품제조업 : 대구 북 제00619호

불교계의 가장 권위있는 학회가 출범시킨 “서울 승가대학” 개강
서울 승가대학
신입생 모집 공고
초발심자경문에서 대방광불화엄경까지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셨던
인명논리로 바라본 나란다식 경율론 삼장교육
대 상 종단을 구분하지 않고 비구스님과 비구니스님을 포함한 승가교육을 희망하는 분들 (재가자 -남신도, 여신도 포함)
모집인원 20명
학 비 연 100만원
개 강 일 2016년 2월 27일 (토요일)
강 사 진 학회장 스님과 학회소속 지도교수와 특강강사
교육과정 전문과정:2년 / 연구과정:4년 / 교수사과정:7년
강의시간 주 2회 6시간 (금요일 저녁 3시간, 토요일 오전 3시간)
■ 문의 : 서울승가대학 교학과 사무실 / 02-414-1222
010-8969-9444 (지암스님)
010-7225-8426 (명혜스님)

BTN 드라마 '붓다'

본방 | 매주 수 · 목 저녁 9시 재방 | 월 · 화 오후 4시 / 목~일 새벽 1시

진리를 향해 끊임없이 정진하라, 그리고 전하라

지난 줄거리

부처님은 살인마인 앙굴리마라를 제도하는 등 활발한 전법행을 펼친다. 아난을 비롯해 마하빠자빠띠의 출가 등 수많은 이들의 출가도 이어진다.



쿠시나가르의 사라쌍수 아래서 반열반에 드신 부처님의 모습. 부처님은 이 세상에 궁극적인 진리의 길을 밝힌 큰 스승으로 남아 있다.

늘어난 출가자로 인해 승가는 북적거린다. 이런 승가에서 분란이 생겨나니 바로 데바닷타로 인함이었다. 데바닷타는 앞서 마가다국에서 아자타삿투로 하여금 부왕인 빔비사라왕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도록 부추겼다. 이 과정에서 자식을 사랑한 빔비사라왕이 억울하게 죽게 됐다. 데바닷타가 이런 악행을 저지른 데에는 불자였던 아자타삿투의 공양을 탐한 데 있었다.

부처님은 공양을 받더라도 부자와 가난한 이의 공양을 똑같이 여기라고 했다. 하지만 데바닷타는 달랐다. 아자타삿투의 호사에 마음을 뺏겨 결국 부처님을 몰아내고 승가의 주인이 된다면 더 큰 공양과 권력이 생길 것이라 여겼다.

데바닷타는 어느날 부처님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제 연세가 드셔서 힘드실테니 그 책임을 벗어버리고 은퇴하시지요. 상가의 경영은 제가 맡겠습니다."

부처님은 마하카사파나, 목갈라나, 사리붓다 등 승가 내 연장자에게도 운영을 맡긴 바 없음을 들며 완곡히 거절한다.

데바닷타는 이에 승가 내에서 "부처님이 애지중지하는 비구는 모두 왕족이나 브라만"이라고 폄하하는가 하면 "부처님의 계율은 너무 헐거우며 고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부처님은 이런 엄격한 고행주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중포교를 위한 방편이 필요함을 인정하신 것이다. 데바닷타는 동생인 아난다와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마하카사파는 데바닷타를 승가에서 추방할 것을 공지했으며, 데바닷타는 따르는 비구들을 데리고 승가를 나오게 된다. 목갈라나와 사리붓다가 데바닷다의 승가로 가 사람들을 설득해 다시 데려왔지만 이로 인해 교단은 일시적으로나마 화합이 깨지게 됐다.

50회에서 데바닷타는 무서운 계획을 꾸미기 시작한다. 승가의 화합을 깨는 데바닷타를 아자타삿투가 멀리하기 시작했고 이에 부처님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입히려 한 것이다.

하루는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내려오는 길이었다. 데바닷타는 벼랑 위에 숨어 있다가 부처님이 아래를 지나는 순간 바위를 굴렸다. 하지만 그 바위는 부처님의 머리 위로 지나가고 부서진 돌조각이 부처님의 발가락에 약간의 피만 흘리게 했다.

드라마 속에서는 데바닷다가 바위를 굴리다 자신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는 것으로 표현된다.

승가의 화합을 깨던 데바닷다가 사라진 후, 승가는 더욱 커지게 된다. 부처님이 아자타삿투에게 설한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일곱가지 방법' 은 지금도 유효한 가르침이다.

첫째, 많은 사람이 모여 자주 회의를 열어 의견을 나눌 것. 둘째, 함께 집합하고 일을 시작하며 자신들이 해야 할 것을 행할 것. 셋째, 이미 정해진 것을 깨뜨리지 않으며 옛날에 정해진 오래된 법에 따라 행동할 것. 넷째, 노인들을 존경하고 환대하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것. 다섯째,

교단화합 · 중생제도 최우선시

쿠시나가르 사라쌍수 아래서 반열반

부인이나 아이들에게 폭력을 쓰거나 꾀어내지 않을 것. 여섯째, 조상의 사당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공양하며 이전에 바친 공양물을 버리지 않을 것. 일곱째, 깨달은 수행자들을 올바르게 보호하고 깨닫지 않은 이들을 편히 머물 수 있게 할 것 등이다.

또 출가 전 어머니 생각에 고뇌하는 목갈라나를 위해서도 법문한다. 목갈라나는 매일 밤 어머니에게 다가가 먹을 것을 주려 하지만 음식이 불이 되어버리는 꿈을 꾸고 있었다.

부처님은 "어머니의 죄업이 뿌리가 깊다. 하지만 남은 삶을 평화롭고 의롭게 살고 그 공덕을 회향한다면 죄가 사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 백중의 시작이다.

이런 목갈라나가 전법과정에서 순교하게 된다. 목갈라나는 수로나 국으로 전법을 떠났다. 여기서 목갈라나는 마을에서 질시하는 이교도를 만나게 된다. 전법행의 전에 부처님은 목갈라나에게 묻는다.

"그 지방 사람들이 성격이 흉악하다는데 만일 비난하고 비방하면 어떻하려는가?"

이에 목갈라나는 "지팡이나 돌멩이로 때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한다.

부처님이 "결국 칼로 그대를 죽인다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목갈라나는 "인생의 온갖 고뇌가 따르는 것을 실허해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 한 자도 있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번거로움을 덜어 준 것이라 생각하겠다"고 답한다.

결국 어떤 고난도 각오하고 수로나국으로 간 목갈라나는 이교도의 손에 순교하고 만다.

부처님은 목갈라나의 순교 소식을 듣고 다시금 무상함을 느낀다. 그로 인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없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대중들에게 설법하게 된다.

"봉사의 삶 입니다. 이 진원이 모든 인류를 변화시킬 것이다. 모든 인류를 자비로 대하십시오. 부자든 빈자든 사람은 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 정도나 양이 다를 뿐입니다. 사랑하는 비구, 비구니여 오늘까지 내가 가르친 모든 것들을 제대로 잘 공부하도록 하고 체험하도록 하십시오. 공부를 게을리 마십시오. 먼저 자신에게 시험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오늘 여기 모인 여러 비구, 비구니들은 궁극적 진리를 모든 이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각자가 확신이 들 때까지 의심하고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전한 말이라도 말이지요. 만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매순간 깨달음을 향해 전진하십시오. 지금부터 석달 뒤 나는 열반에 들 것입니다."

또 법회에서 부처님이 연꽃을 들자 마하카샤파는 가르침의 뜻을 알며 눈물을 흘렸다. 부처님은 아난다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한다.

"말로 설명하는 것은 내가 비구들에게 말했다. 말로 할 수 없는 것은 모두 마하카샤파에 전했다. 꽃 한송이의 기적을 우리가 명상 속에서 볼 수 있다면 우리 삶 전체가 달라질 것이다."

부처님은 춘다의 공양을 받고 문제가 생긴다. 병든 몸을 이끌고 쿠시나가르에 도착한 부처님은 사라쌍수 아래에서 완전한 반열반에 들었다. 부처님은 떠나셨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영원히 우리곁에 남아있을 것이다. <끝>

그동안 드라마붓다 리뷰를 애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불교TV 드라마붓다는 1월 13일부터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저녁 9시에 재방송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반열반에 들기 전 대중들에게 설법하는 부처님



부처님을 해하려다 해를 입은 데바닷다의 모습

리뷰 – 법현 스님이 본 드라마 '붓다'

신화적 붓다를 재구현하다

부처님은 19살에 야소다라와 혼인하여 29살에 아들 라훌라를 낳고 인생의 괴로움을 영원히 해결하는 길을 찾아서 위대한 결음인 출가수행자의 길로 들어섰다. 그리고 선정삼매를 닦는 수행자들인 알라라깔라마와 웃다까라마뿟다 등의 가르침을 받아서 다른 이들보다는 아주 뛰어난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완전히 깨달음을 이룬 붓다가 되지는 못했다. 그래서 극심한 고통을 참고 견디는 고행을 해서 다른 수행자들에게 존경을 받는 경지에 이르렀으나 역시 깨달은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쾌락은 말할 것도 없고 고행마저 깨달음의 씨앗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고행을 버리고 다시 그 때까지는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수행을 홀로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마도 위빳사나라고 하는 이치를 깊이 관하는 수행을 하여 바로 얼마전인 북방불교력으로는 음력 12월 8일 새벽, 남방불교력으로는 음력 5월 보름에 깨달음을 얻어 붓다가 되었다.

붓다가 되어, 자신을 오해하고 떠나간 다섯 수행자를 향해 가서 중도설법을 하고, 60여 명의 수행자를 제도하여 아라한이 되게 한 뒤 전법하게 한 내용이 〈마하박가〉〈승색경〉에 나오는 '신들과 인간의 이익을 위하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나중도 좋게 하라' 는 전도선언으로, 이는 우리 불자들이 가슴깊이 새겨야 할 가르침이다. 이후 부처님은 석가족과 양 어머니 마하파자파티, 아내 야소다라를 비롯한 500여 비구니, 불의 신을 숭배하던 가섭 3형제 그리고 먼 나라에서 온 우리가 잘 아는 마하 가섭, 붓다의 두 다리 같다던 사리불과 목건련, 눈이 멀어서도 수행하여 도를 깨쳐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 제일인 아나율, 최하층 천민 출신으로 계율을 잘 지킨 우빨리, 스님들을 잘 지도한 사리불에 비해 신도들을 잘 지도하여 설법제일로 불린 부루나, 교리문답을 잘 한 가전연, 붓다의 아들이면서 온전히 수행을 잘하여 맘과 말과 몸이 늘 하나로 수행 잘한 라훌라 등 많은 제자들을 교화하셨다. 지역적으로는 석가족의 나라말고도 마가다, 바이샬리, 밧지, 코살라 등 큰 여덟 나라, 작은 여덟 나라 등으로 인도의 중원을 교화하였다.

후반부는 대승사상도 섞여

교화 궤적 그리기엔 분량 부족

드라마에서 이야기 하듯이 붓다의 생애에 커다란 마디는 탄생과 네 대문을 나가서 보았던 인생의 모습을 보고 궁극적 진리를 향한 출가, 수행 뒤 성도와 전법 그리고 열반이라고 할 것이다.

드라마 붓다의 뒷 부분은 초기불교의 가르침과 대승의 사상을 적절히 배합하여 흥미롭게 그리고 있다. 뒷날 중국의 선불교에서 3처전심(三處傳心)이라고 전해지는 이야기가 사실적이면서도 흥미롭게 전개되었다. 설법하실 때 내린 꽃비의 연꽃을 들어 보이니 가섭이 미소 짓고, 부처님이 다자탑에서 설법하실 때 가섭이 두타행으로 행색이 초라하여 알아보지 못한 것을 부처님만 알아보고, 멀리 전법하러갔다가 늦게 와서 부처님 발에 예배하니 다비가 시작되었다는 이 세가지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부처님은 살아서도 전법이요, 죽어서도 전법이어서 선불교에서 유정설법, 무정설법이라고 하는 양면의 설법을 선교방편(善巧方便)으로 보여주셨고, 그 절정이 수많은 사리로 출현하신 것이다. 사리를 여덟 나라가 공평하게 나누어 모심으로써 뒷날 아쇼카 대왕이 석주를 세우고 '붓다가 열반 하신지 몇 년 뒤 이 기둥을 세웠다' 라고 써둠으로써 이 기록을 발굴한 사람들이 서구에서 신화적인 인물이라 추측하던 붓다를 역사 속에서 다시 보게 한 것이기도 하다.

부처님의 일생을 그린 드라마붓다는 다시 보아도 좋을 것이다. 55부작이라는 거대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부처님의 일생과 교화활동의 궤적을 그리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시간이다.



법현 스님(열린선원장 · BTN 자문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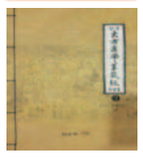
華嚴經 論講
(화엄경 논강)

청량국사의 청량소+통현장자의 화엄론
+진귀가 지은 진귀론으로 논강함

◆ 강의용 화엄경책 사진 첨부
한글 화엄경 강의용 출판



◆ 강의용 사경집 사진 첨부
한글 화엄경 사경집 출판



◆ 2016년 2월 출판예정
진귀 수행 화두집〈平溫〉출판

– 책 구입은 입금후 1899-9532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우리은행 1005-002-700714 화엄경 강원

平溫 眞歸의 행장

대다수 불자나 종교인 들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理解가 불가능하고 믿기 힘든 不思議 수행자로,비영리단체 華嚴經 講院의 講主로 재임하면서, 방대하고도 심오한 깨달음의 경계를 設한 80권 화엄경을 대본없이 즉설로 청량국사의 청량소와 통현장자의 화엄론과 스스로 지은 眞歸論으로 논강하며 또한 팔만대장경을 즉문즉설하는 희유한 괴짜 修行者 이다.

2015년 현재

화엄경 眞歸論을 500p×100권 분량으로 한국불교 역사상 최초로 80권 화엄경 주석서를 80화엄 한자원문 + 80권 한글완역 + 80화엄 영어완역 + 진귀론 한글주석 + 진귀론 영어주석으로 집필중이며, 競爭과 政爭,論爭,鬪爭,戰爭,등으로 온 우주가 갈등하고 화택속인 말법시대에 超국가 超민족 超종교 超종파 超반연 의 화두인 〈평온〉을 강론하고 힐링하는 財團法人〈평온센타-보림〉를 건립 추진중 이다.

문의 1899-9532

룸비니 꽃배달

불교전문 전국 꽃배달 서비스
"룸비니 꽃배달"이 불자님들을 찾아갑니다.

홈페이지 http://lumbiny.co.kr 대표전화 1644-9108 / 팩스 : 02-733-1018

계좌번호 하나은행 481-910003-86105 (예금주 : (주)느티나무커뮤니케이션)

룸비니 꽃배달서비스는 불자 꽃가게 네트워크를 위하여 꽃가게 회원을 모집 하고자 합니다.

주변에 불자 꽃가게 사장님이 계시면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모집문의 : 1644-9108

불교전문 꽃배달서비스 "룸비니" 는부처님 가피와 함께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자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룸비니 홈페이지 바로가기 (오른쪽QR코드 스캔)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080호 현대불교
2016년 1월 20일(12월 11일) 수요일 / 불기 2560년

상하(上下) 사방(四方)이 탁 터졌으니 거칠 게 없느니라!



그림 · 최주현

사람마다 다 마음이 간사해서, 간사하다기보다는 사람 사는 게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새해를 맞이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출렁거리고 새로운 무엇을 찾아보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정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의 도리를 잘 알 수 있다면 경거망동을 하지 않고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침착하게, 질서와 도리를 지키면서 기꺼이 삶의 보람을 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길을 아마 택할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회사든, 또 어떤 사찰이든, 어떤 가정이든 사회든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데 대해서 예전에 부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한 식구라면, 한마음으로 단결해서 모든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에 울력의 마음을 조금도 잃지 말아라. 그것이 그대로 여여함이니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사찰이나 이런 도량을 가진 모든 단체나 어디를 막론해 놓고 얘기죠. 뭐, 사찰뿐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몸을 버리자니 마음이 울고, 마음을 버리자니 몸이 운다.' 이런 말이 있죠. 물질을, 즉 몸을 배척한다면 마음은 보이지 않고 마음을 배척한다면 몸이 또 송장이 되니 보이지 않느니라. 그래서 마음과 몸은 동시에 작용과 울력을 통해서 질서를 지키고 화목을 지키고 또는 도의, 의리를 지키면서 모든 일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아끼면서 살아나간다. 그것이 바로 선(禪)과 교(敎)가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절에서도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마음이 넓고 지혜로우면 어리석은 짓을 안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권속이 만약에 백 명이라 하더라도, 단 세 명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과 둘이 아니요, 내 생명과 둘이 아니요, 내 모습과 둘이 아니라면 잘못하는 걸 봐도 '전자에 내가 잘못할 때의 내 모습 같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역시 둘이 아니게 돌아갈 수가 있고 자비를 베풀 수가 있고, 모든 면에서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마음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이 또 그러니까요. 그대로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권속들이 일을 할 때나 좌선을 할 때나, 좌선을 할 때면 같이 좌선을 하게 되고 또 울력으로서 일을 할 때는 같이 일을 하게 된다. 그건 왜냐하면 울력이라는 이 자체가 바로 몸이 닥치는 대로 움죽거림을 말하는 거죠, 너 나가 없이. 그런데, 움죽거리는데 움죽거리는 거를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앉아서 좌선하는 것만이 공부라면, 좌선하는 사람은 방에 앉아 있을 가치도 없고 먹을 가치도 없고 입을 가치도 없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남이 해 놓은 옷 입고 남이 모든 것을 대치해 놓은 것, 그거를 먹고 그러면서 물질세계의 모든 움죽거림을 거부한다면 바로 죽은 도를 믿는 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상하(上下) 사방(四方)이 탁 터졌으니 거칠 게 없느니라.' 이런 말이 있죠. 거칠 게 없느니라. 그대로 작으나 크나, 짧으나 기나, 일하는 거나 앉아 있는 거나 서 있는 거나 모든 게 걸림이 없느니라. 이 통 속을 벗어나야 우리가 어리석음을 다 태워 버리고 걸림이 없이 자유자재할 텐데도 우정 그저 앉아서 '내가 마음공부를 꼭 해야지.' 하는 것은 물리가 터지질 않은 지혜롭지 못한 이런 이치다 이런 겁니다.

또 '우리가 그냥 생활하는 것으로는 도를 배울 수 없다.' 이렇게 해도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생활 떠나서는 불교가 없고 불교 떠나서는 생활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래(如來)요 여러분이 바로 부처인데 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 그렇게 행동한다면 부처가 어딨고 도가 어딨고 불교가 어딨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떨쳐 버리고, '우리가 앉으나 서나 일하나 모두가 도 아닌 게 없고 참선 아닌 게 없다.'라고,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게 침착하게 다스리면서 관(觀)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회향입니다. 마음의 회향!

옛날에 백장 선사(百丈禪師)도 그랬듯이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마라.' 그건 왜 그랬을까? 미워서 그랬을까? 그렇지도 않아요. 정맥과 동맥은 동시에 움죽거려야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가르치느라고 그랬지요. 마음이 없어도 육신은 태어나지 않았을 거고 육신이 없어도 마음이 없을 거고, 그러니 '마음과 육신은 항상 같이 동일하게 움죽거리는데 어찌 자기 몸을 버리겠다고 하느냐?' 이런 뜻이죠. 몸이 없으면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맛과 모든 것에 부닥침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못 하는 거죠. 양면이 다 가지런히 동시에 움죽거리는 바로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이 선장이 돼서 다스리는 것, 안과 밖을 평등하게 다스리는 것을 '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도 바로 그놈이 몸을 다스리는 거요, 또 가만히 앉아 있게 하는 것도 그놈이 다스리는 거요, 자기가 있다고 깨닫게 하는 것도 그놈이 하는 거요, 물리가 터지게 하는 것도 그놈이 하는 거요. 그래서 그 내면 한 구멍에, 한 구멍에 일체가 들고 일체가 난다, 한 구멍에서만이 바다를 삼키고 바다를 토한다 이 소립니다. 그 구멍이 아니라면 딴 구멍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불교가 도대체 무엇이며, 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너, 너희 어머니 자궁 속에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구나! 몸은 탄생했으나 마음이 탄생을 못했으니 다시 한 번 들어갔다 나오너라." 하는 선사의 말들도 있었습니다.

그랬듯이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고 어리석게, 현실을 똑바로 보지도 못하면서 현실을 취하고 어설프게 나가는 그런 행동과 마음들이라면 개선해야 할 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바쁜 세상에, 일분일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시공을 초월한 이 세상에, 고정됨이 없이 공(空)해서 돌아가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일하는 게 다르고 공부하는 게 다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활 속에서 공부를 하겠습니까? 한 시도 쉴 사이가 없이, 애들 기르랴, 애들 먹여 살리려고 사회에 나가서 벌이하랴, 이러고 저러고 하다 보면은 하루 24시간이 그저, 눈 몇 시간 딱 붙이다 보면 24시간이 그냥 다 흘러가는데 말입니다. 무슨 공부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것을 떠나서는 진리도 없는 것이고, 그걸 떠나서는 참선도 없는 것이고, 그걸 떠나서는 부처도 없는 것이고, 그걸 떠나서는 중생도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그랬죠. 육조(六祖) 당시에 이 토굴에 들어가서 모두들 공부한다고, 좌선한다고 떡 틀고 벽을 쳐다보고 앉아 있는데, 들여다보고 하는 소리가 "참선을 하려면은 밥도 먹지 말고, 오줌도 누지 말고, 일어나지도 말고, 옷도 택하지 말고, 남이 해 오는 물도 먹지 말아라. 일어나면 선(禪)이 끊어지고, 오줌을 누다 보면 선이 끊어지고, 옷을 입다 보면 선이 끊어지고, 밥을 먹다 보면 선이 끊어지는데 어찌 일어나겠느냐?" 했더랍니다.

가만히 생각들 해 보세요. 모두가 혼자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 회사를 들어가 본대도 혼자 살 수 없는 것, 우리가 아무리 농사를 짓고 산다 하더라도 혼자 살 수 없는 것, 회사를 경영하고 산다 하더라도 혼자 살 수 없는 것이죠. 또 어느 사찰이라도 혼자 살 수 없는 것은 시주자들이 없다면 스님이 살 수 없으며, 스님이 없으면 시주자들이 믿고 배워 나가고 행할 수 없는 문제가 따르고 이 첨단의 도리를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서로서로가 둘이 아니게 시공을 초월해서 고정됨이 없이 화(化)해서 나툼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찰나찰나 마음이 바뀌지면서 나투면서 응(應)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자생 중생들을 먼저 제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제도하기 이전에 먼저 모든 걸 한 구멍에다, 모든 일체사는 거, 모든 움죽거리는 거 안 움죽거리는 거를 다 거기 놓고 돌아간다면 앞서의 입력

☞ 26면으로 계속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 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 고 제 작
www.yangjikukak.com

쉬었다 가는 길에, 요 교차로에서 네가 깨달아라

☞ 25면에서 계속

이 없어지면서 새 입력이 들어가면서 새 입력으로 현실에 나오니, 얼마나 그것이 심성과학적이고도 천체물리학적이기도 하고 의학적이기도 합니까. 나중엔 철학적이기도 하고 천문학적이기도 합니다. 이 모두가 하나도 빠짐없이, 새끼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병신이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도 빠짐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회인들보다도 스님들은 더한층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생각지 않고 개선할 줄 모른다면 마음의 계발이 있을 수가 없고, 마음의 광력이라는 빛이 바로 발현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어떻게 창조를 일으키며 노력과 생각 없이 어떻게 계발을 해서 앞장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처음에 내디딘 발자국이나 나중에 내디딘 발자국이나 항시 똑같았습니다. 잘 배우고 잘못 배우고 이걸 떠나서 진실한 내 마음이 지혜롭게 포용력 있게 팔을 벌리고 다 집어먹어야 다 집어먹을 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다 집어먹어 보지 않는다면 다 집어먹을 게 없다는 걸 몰라요. 또 다 버려 보지 못한다면 다 버릴 게 없다는 사실을 몰라요. 다 버려서 얻는다고 한다면 바로 다 삼키고 다 토해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한 사찰에서도 울력을 제대로 못하고 질서를 제대로 완화시키지 못하고 또 화목을 갖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해서 집어삼키고 토하고 할 수 있겠느냐 이 소립니다. 안 그래요?

이 몸뚱이의 집은 못생겼든 잘생겼든, 커다랗든 좁쌀알만하든 상관이 없어. 이 우주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를 다 집어넣어도 좁쌀알도 작지 않으니까. 못생기고 잘생긴 모습을 보거나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그건 언어도단이야. 그건 무슨 까닭인가. 집이 작든 크든, 만 명이든 천만 명이든 수십만 명이든, 헤아릴 수가 없이 나가서 활약을 하는데, 다 화(化)해서 응(應)해 달라는 대로 모습을 화해서 나투시는데 그 활약하는 모습이 말이야, 그 나툼이 전부 다르니 어떤 거를 꼭 집어서 '이거는 나다.' 이럴 수가 있겠어? 그러니 그렇게 나고 들고 나고 들고 함이 여여해서 어떠한 모습을 집어서 '나'라고 할 수 없는 한 개체의 집이다 이거야.

이 집은 일체제불의 마음이 들락날락해도 손색이 없는 집이요, 일체 중생이 다 들랑거려도 손색이 없는 법이요, 다 둘이 아니게 들랑거려도, 하나로 몽땅 다 들어온다 해도 작지 않은 그릇이다 이 소리야.

이 도리를 알려면 무조건 겸손하고, 무조건 고개가 숙여지고, 무조건 닥치는 대로 집어삼켜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글렀으니깐 안 하고 이건 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이거는 미우니까 밉고 이건 고우니깐 당기고, 이렇게 해서는 다 삼킬 수가 없어. 부처님까지도 삼켜야 하는데 어떻게 시간이 남아서 그렇게 허방지방할 때가 있어?

그래서 여기는 물건을 사 와도 모든 스님네들이 다 나가서 울력으로서 해 들이고 모든 걸 같이 해. 누가 적게 하고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없어. 아시다시피 나까지도 같이 울력으로서 '아휴, 저것들이 애를 쓰는데 나도….' 또 아랫사람들은 '아휴, 저 스님이 저렇게 애쓰시는데 나도….' 이렇게 울력으로 하고 나간다고. 현실에 그렇게 행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발전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발전이 될 수가 없거든.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몸을 일으킬 수가 있어. 또 거기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생각 없이, 발전 없이 그 창조력을 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을 켜고 앞장설 수가 없거니와 그건 목석과 같은 거다. 오늘 살다가 내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래요. 지금 살다가 이따 죽는 한이 있더라도 쾌활하게 발전 있게 그냥 살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빠지면 이 옷은 그냥 남아 있겠죠. 좀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이 모두가 그냥 웃을 것만 아니라 하루 한나절 울어도 시원치 않아요.

탤런트들이 왜 서슴지 않고 소임을 맡아 가지고 일하는 줄 아십니까? 한번 생각들 해 보셨어요? 탤런트들이 왜 거지 소임, 죽는 소임, 임금 소임 또 머슴 소임, 허허, 뭐 사기 치는 소임, 사기 치는 소임을 막는 소임 이런 것들로 다 나오죠. 그렇게 어려운 소임을 맡아 가지고도 좋다고들 하고 소임들을 다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아시겠어요? 왜 그나마도 소임을 맡지 못하면 안 되고 소임을 맡아야만 좋아할까요? 그걸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요거 막을 내리면, 요거를 다 마치면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소임이 그냥 바뀌어지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공부 하는 사람들은 나온 자리를 알고 갈 자리를 알아야 합니다. 나온 자리를 알고 갈 자리를 안다고 탤런트들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하는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온 자리가 어디고 갈 자리가 어딘가? 그래도 이해가 안 갑니까? 우리 스님들이라도 이해를 하라고. 하하하.

또 한마디 더 하겠지만, 이 탤런트들이 잠시 잠깐 자기가 소임을 맡아 가지고 대사를 외우고 행을 했다가, 거지로 소임을 맡든지 임금을 맡든지 상관없이 그냥 감독한테 뽑힌 것만 좋아서 그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아주 쾌히 응낙하고 행을 하는데, 그것은 무슨 까닭이냐? 아마 내내 그냥 "너는 거지로 박혀서 살아라." 이런다면 아주 전부 꽁무니를 빼고 안 가죠. 그러나 잠시 잠깐이거든요. 잠시 잠깐이니깐 이거는 벌어먹고 살랴 또 활약하랴, 또 이름을 가져야 되겠고 또 그렇게라도 나가지 않는다면 아주 끊어질까 봐 겁도 나고. 모든 게 그렇죠. 꼭 그 말대로가 아니지만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가서 활약을 하듯이 그 모든 것을 다 끝내고 나면은 다시 와서 속이 후련하게 술 한잔을 마시든가, 뭐 드러눕는다든가, 뭐 아주 그냥 탁 털어놓고 '이젠 본 원점으로 돌아왔다.' '또다시 맡아야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면 그 한 구멍에서 일체가 들고 일체가 난다.
그 한 구멍에서만이 바다를 삼키고 바다를 토한다.
그 구멍이 아니라면 딴 구멍은 없다.

그런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무렇게나 듣지 마세요, 이거.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럼 어디로 가기 이전에 무엇을 하는가? 탤런트들과 똑같은 얘깁니다. 우리가 지금 그 도리를 '어, 원점에서 와서 원점으로 가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소임을 맡아 가지고 나오겠지.' 요거를 안다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소임을 맡아 가지고 하든지 겁이 나지를 않아요. 잠시 잠깐이기 때문이죠. 우린 탤런트들처럼 잠시 잠깐 쉬었다 가는 길입니다. 이 쉬었다 가는 길에 부처님께서, "너는 쉬었다 가는 길에 요 교차로에서 네가 깨달아라." 이런 겁니다. 만약에 그것들을 모르고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도로아미타불이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또 모습을 가지고 형성이 돼서 이 세상에 다시 나와서 또 그렇게 고비를 치러야 하니까.

그래서 이 마음을 아주 팽팽하게 가지면서 지혜롭게, 그 폭이 넓게 다 주고도 준 사이가 없이 다 내주라 이거야. 또 들여놓을 때는 들여놓는 사이 없이 다 들여라 이거야. 이 모두가 내 한 마음이 조금 너그럽고 좀 더 지혜로우면 다 포용력 있게, 질서를 지키고 도의 의리를 지키고, 나와 너와 둘이 아니게 지킬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수억겁 광년을 돌아올 때 무엇은 안 됐겠고 무엇을 어리석게 안 했겠나. 이걸 한번 침착하게 생각해 본다면은 나 아님이 하나도 없어요, 미우나 고우나. 잘못한대도 불쌍하고. 그 잘못하는 것이 그 사람 개인이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냥 모르고 산 것이 고만 그렇게 된 거지요. 그러니 얼마나 눈물 나는 얘깁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깁니까? 강도질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기짓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과거로부터 오는 것도 있지만 현실의 가정환경으로부터 짊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픈지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저 사람 저거 괜히 그러는 거 아니야?' 괜히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내 자식 아님이 없고 환경에 따라서 내 부모 아님이 없어요. '공동묘지에 가니까 남녀노소도 없고 여자 남자도 없고 모두가 평등하게 늙었더라.' 이런 말을 한 예가 있죠. 하여튼 여러분이 앞으로 잘 참작해서 지혜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전부터 군더더기가 붙는 말은 싫고요. 그래서 되나 못 되나 그냥 말을 더듬거리든 말았든, 내가 실천을 했던 '참(眞)' 그런 거를 얘기할 뿐입니다. 남들이 듣기 좋게만 하는 사람은 못 됩니다. 참 삶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시길 빌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묘지를 쓰고 제사를 지내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이사를 갈 때는 무슨 손을 보고 뭐 한다고 합니다마는 이것이 모두 통합된 이치입니다. 이사를, 나쁘다고 하는데 가면은 안 된다는 그런 거, 제사 지내는 거, 묘지 쓰는 거, 묘지를 파내는 거 이 여러 가지 문제가 모두가 하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 둬야 할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묘지를 쓸 때엔 우리 자체가 바로 지수화풍인 까닭에 이 지신(地神)과도 둘이 아닙니다. 지신, 이 땅을 관찰하는, 관리하는 흙신이라는 얘깁니다, 얼른 말해서. 흙도 생명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흙이 생명이 있다는 거 아시죠? 물도 생명이 있고, 바람도 생명이 있고, 불도 생명이 있고 그래서 한데 모여 동참을 하니까 공기로서 인간을 살릴 수 있다, 이런 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신도 나요, 목신(木神)도 나요, 그 영혼 자체도 둘이 아니요. 이 영혼과 이 영혼을 한 물에다 집어넣으면 한 그릇이지 두 그릇이 아닙니다. 영, 영 해도 둘이 아니요, 영, 영, 영, 영 해도 둘이 아니요, 영 하나를 해도 둘이 아니요. 이런 것을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 둬야 앞에 닥칠 때 어떻게 커버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하는 얘깁니다. 이게 문제가 아주 큽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묻을 때도 감사하게 세 번 마음에 절을 하고 네 번째 가서 자기의 주인공에 '아, 감사합니다!' 하면은 모두가 혼합이 돼서 전부 빈손이 돼 버려요. 네. 그래서 이건 산 사람들한테도 아무 탈이 없이 오히려 좋은 일만 생기죠.

또 땅을 쓰기 위해서 산소를 파내라 이럴 때, 이건 예를 들어 얘깁니다. '파내라.' 이래서 묘지를 파낸다 이럴 때 내 형제라도 그렇고 부모라도 그렇고 남이라도 그렇고, 모든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참, 여직껏 지켜 줘서 감사하구나.' 이 흙이 지켜 줬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흙 속에 묻혀서 지켜졌으니까. 흙의 그 은혜 받은 거를 갚기 위해서 즉 물 한 그릇에, 어떤 사람은 떡 한 그릇을 해 놓고, 그것도 두 층 세 층이 있습니다. 이 도리를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 물 한 그릇을 안 떠 놔도 바다를 갖다 놓고 할 거고, 하하하, 이 도리를 아는 사람은 말입니다. 하기야 바다를 갖다 놓고,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갖다 놓고 지내면 되지.

그런데 그 도리를 모르는 사람에 한해서는 물 · 향 · 초 또는 땅의 고마움을 보은하기 위해서, 또 산 사람들이 그걸 파내려니 모두 힘들고 그러니까 막걸리 한 통을 갖다 놓고 지내야죠. 허허. 그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북어, 안주하게끔 북어 한 서너 개 가지고 가서 뜯어서 하면서 막걸리도 끼얹고 그 북어 대가리도 끼얹고 그럭하고선 삼배 올리고 나서 사배째는 자기한테 모든 거를 맡겨 놓는다. 그러면 아무 지장이 없어, 파내도. 그런데 아주 모르는 사람, 이 도리를 완벽하게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스님한테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으니 마음 좀 내 주십시오." 하고 가서 해라 이거야. 자기가 거기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전부 따로 흩어지니까. 그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마는 모두들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은 그걸 모르고도 당하고 알고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4년 1월 16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성불상
부처님 조성 | 도금(진공)
개금 | 기계개금(순금증착)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장인의 손을 거쳐 지금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불사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표 한광식







신 성 불 상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62-6
전화 031-533-7724. 010-5223-5174

동불 | 특수불 | 바베트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자연의 향으로  를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실외 양초 공양집

신제품
소이(SOY) 왁스 양초
미국산 LOTUS 향초
· 로터스 양초 특징 :
1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2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 식물성입니다.
규 격 : 59Ø × 18㎜
연소시간 : 60 ~ 70시간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심산자


란단향

일본 직수입


후리지아


라일락향


밀감향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www.shcandle.com

불자 세상보기

아이마저 매매하는 부도덕사회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후진국에서나 있을법한 영아유기와 신생아 매매가 엄연한 현실이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당사자들의 부주의와 생명경시 풍조만 탓할 수도 없어 가슴은 더 답답해진다. 그 배경에는 우리사회의 물질만능주의와 도덕의식부재가 단단히 한몫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백번 양보해서 아이를 얻는 것이 간절한 불임부부가 뜻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된 10대 미혼(부)모를 경제적으로 보상하고 기꺼이 자기 아이로 받아들이겠다는, 선의의 제안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인터넷에서 아기를 사고파는 행위는 고귀한 생명을 그저 인터넷 상거래상의 물건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것 같아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생명체의 가치를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불살생계를 수지하고 있는 불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암울한 사회현상은 인간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전통적으로 체면과 혈통을 중시하는 유교문화의 영향이 여전한 한국사회에서 정식 혼인관계 이외의 출생은 처음부터 차별과 불행을 타고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원하지 않은 임신과 낙태, 유기 혹은 살해, 돈을 받고 사고파는 행위들은 대부분 임신한 여성들이 혼자 감당해야 할 불합리한 사회적 조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전근대적인 성윤리의식과 사회적 편견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젊은이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기 일쑤다. 사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들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보듬어줄 형편이 못된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 몰래 산부인과로 데려가거나 어쩔 수 없이 출산을 하더라도 비밀입양을 권유하게 마련이다.

이 와중에 아무런 죄도 없는 어린 생명들이 '버려지고, 죽임을 당하고,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똑같이 소중한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비혼모(非婚母)의 아이는 당당한 여성권리의 실현으로 치켜세우면서 미혼모(未婚母)의 아이는 애써 외면하는 사회 일각의 이중적 잣대도 당사자들에겐 커다란 상처가 될 듯하다. 혹시라도 미혼모와 그 아이를 어딘가 비뚤어지고 불쌍한 사람들인 것처럼 바라보는 시선이 내 마음 속에 들어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자문자답을 해본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우리들의 공업(共業)이 만든 결과이거늘 누가 다른 누구를 탓할 수 있겠는가.

그래도 아쉬움은 남는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의 '출생 신고제'를 '출생 자동등록제'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아이가 출생하고 난 뒤 한 달 안에만 신고하면 되는 현행제도가 이 기간 동안 엄청난 심적 갈등을 겪게 될 미혼모에게 불법입양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외 입양의 경우 반드시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더 나아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입양특례법이 오히려 영아의 밀거래와 유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미혼부모와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성숙된 시민윤리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0여 년 전 영국에서 잠시 사는 동안 많은 미혼(부)모들이 전혀 위축되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은 일을 하면서 동시에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부모나 다른 이웃 사람들과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방종하고 철없는 커플들이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 일찍 사랑하고 어쩌다 아이를 낳게 된 보통 젊은이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우리도 이제 10~20대 청춘의 성(性)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오히려 직업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을 서두르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는 생각이 든다. 그럴 때 비로소 아기를 사고파는 개념 없는 사회라는 자괴감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발언대

'깨달음 무엇인가' 논쟁

새해 벽두부터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의 현응 스님에 대한 반론으로 시작된 '깨달음 논쟁'이 불교계를 달구고 있다. 현재 온라인 상에서 불교계 학자들의 논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중 본지에 기고한 김홍근 동국대 불교학과 겸임교수의 글과 홍창성 미국 미네소타주립대학 교수의 〈미디어붓다〉 기고문 요지를 발췌 · 정리했다. 〈편집자주〉

'이해하는 깨달음'은 초지성 영역



홍창성
미네소타주립대학 교수

간화선을 대표로 하는 선문의 가르침은 분별지를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지성주의'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초(超)지성주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는 많은 경우 선문의 초지성주의가 실제 수행 현장에서는 반(反)지성주의(anti-intellectualism)와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없다고 느낄 때가 많다. 오히려 현응 스님의 '지성주의'가 설법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즉 말을 통해) 결국 말과 개념이 가진 한계를 보게 하고 따라서 그 한계를 넘어서 나아가게 하는 (즉 지성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초(超)지성주의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선문이 이해의 중요성을 처음부터 부정하기만 한다면 선의 전통이 초지성주의가 아니라 반지성주의라는 오해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선문의 수행자들도 부지런히 지적 정신적 훈련을 통해 높은 지성의 수준에 도달한 것을 증명한 다음에야 비로소 지성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초지성주의를 논하고 추구해야 함이 합당할 것이다. 그렇게 증명하지도 않은 채 처음부터 선문 수행자들의 최상근기를 믿고 선(禪)을 통한 초지성주의와 최상승만을 주장한다면 이는 다른 이들에게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현응스님의 '이해하는 깨달음'이 반지성이 아니라 초지성의 영역임을 보여주는 올바른 견해라고 결론짓는다. 더 나아가 뭇삶(衆生)의 역사의 현장에서 깨달음을(즉 연기와 공의 관점을) 적용하고 실천하며 그 옳음을 확인하고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깨달음의 깊이를 더해가야 한다는 현응스님의 주장은 나와 같은 재가자에게는 합리적인 수행의 길일 뿐더러 순간순간의 삶이 깨달음의 순간들이라는 확신도 가질 수 있어서 무척 고무적이기도 하다.

"'무아'라는 흙덩이를 쫓는 행위"



김홍근
동국대 불교학과 겸임 교수

홍창성 교수는 화두를 넌센스라고 보고 있다. 넌센스를 통해 말과 개념이 가진 한계를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면 묻고 싶다. 말과 개념이 가진 한계를 넌센스를 통해 '깨달으려면' 거실 소파에 편안히 앉아 개그콘서트나 보지, 그 많은 출재가 수행자들은 뭐 하러 안거에 들어가 피눈물 나게 정진하고 있는가? 나아가 넌센스를 통해 깨달을 수 있다면 생사문제의 해결이 목적인 스님들이 꼭 출가까지 하실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모든 수행자들더러 홍 교수처럼 학자가 되라는 말인가, 그도 아니면 개그맨이 되라는 말인가?

선문에는 "흙덩이를 던지면 강아지는 흙덩이를 쫓아가고, 사자는 던진 사람을 문다"는 말이 있다. 홍 교수는 지금 부처님이 던진 '무아'라는 흙덩이를 쫓아가서 물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단멸무아'로 착각하고, 그 '허무의 논리'로 멀쩡한 선문을 걱정해 주고 있다.

'흙덩이를 던진 사람'을 무는 사자라면, '흙덩이'는 바로 온갖 언어로 시설된 방편개념들이고, '사람'이란 바로 '연기중도의 불이법'인 것을 안다. 무명칠통을 부수고 전도몽상에서 깨어난 선사들은 '불이법'을 곧 '마음'이라고 불렀다.

불조께서 연기중도의 불이법을 깨달으시고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사용하신 '불이법의 다양한 방편이름들' 중의 하나가 곧 '무아'요, '마음'이요, '공'이요, '진여'이다. 그 수는 헤아릴 수없이 많은 것이다.

불이법은 어떤 이론이 아니라 법계실상이며 우리가 현명하게 살아가는 반야지혜이다. '공'도 그 낙처는 '지혜로운 공'에 있고, '무아'도 그 낙처는 '지혜로운 무아'에 있으며, '마음'도 그 낙처는 '지혜로운 마음'에 있다.

社說

불교계 호스피스 사업 준비하자

지난 1월 8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하 연명의료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회생가능성 없는 환자는 조건적으로 심폐소생술 · 항암제 투여 · 혈액투석 등과 같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됐다.

그간 존엄사에 대한 논쟁은 1990년대 후반부터 있어왔다. 실제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뗀 의사와 가족이 살인죄로 기소됐으며, 2009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 달라는 가족들이 재판을 청구해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한 경우도 있다. 존엄사가 인정된 사회의 변화는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에 따른 현상으로 보여진다.

'웰다잉'이 구현되기 위해 빠질 수 없는 제도가 호스피스와 완화치료다. 현재 불교계도 뜻있는 스님들이 중심으로 호스피스 시설을 운영 중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2018년 '연명의료법'이 본격 시행되기에 앞서 △호스피스 시설 확충 △독자 프로그램 개발 △인적 자원 확보 등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영적 돌봄을 원하는 환자가 많아 적지 않은 병원에서 스님들을 요청하지만 현재로서는 활동할 수 있는 스님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또한 몇몇 병원에 호스피스센터가 있지만 대부분 기부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익기반이 불안정한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이제 종단은 종립대학 등에 재학 중인 스님들에 대해 호스피스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종립 의료원에 호스피스 · 완화의료 시설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은퇴 출가자' 출가 절벽 해법되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1월 13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한해 종무기조와 세부 계획들을 발표했다. 제34대 핵심과제인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와 중앙 및 교구 균형발전, 승려복지제도 현실화와 함께 저출산 및 청년 실업, 고령화 문제 극복 방안이 대거 담겼다.

이들 계획 중 눈길을 끄는 것이 전문직 은퇴자들의 특수 출가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 맞춰 은퇴 후 수행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에게 일정 자격과 전형을 통해 출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점차 줄어드는 출가자에 대한 대책이기도 하다.

그간 조계종은 사회 고령화로 노령 출가가 대폭 증가하자 출가 연령을 하향 조정해왔다. 1996년 출가 상한연령을 50세로 낮췄고, 2002년에는 40세로 추가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출가자 급감하자 2006년 상한 연령을 50세로 환원한 바 있다. 은퇴 출가가 허용되면 사실상 출가 연령이 폐지되는 것이다.

조계종 출가 담당 부서인 교육원은 올해를 '출가 진흥의 원년'으로 삼고 적극적인 출가 진흥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전문직 은퇴자와 미래세대의 출가를 동시에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퇴 출가와 출가 홍보는 단기적인 방편이다. 어디까지 미래세대들이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계층 포교가 되살아나야 한다. 또한 불교와 스님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돌려놓을 필요도 있다. 지금까지 전무한 출가 전담 부서 역시 개설돼야 한다. 제도 마련도 중요하다. 그만큼 투자도 함께 선행돼야 한다. 투자가 없는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굳이 올해 조계종의 출가 예산이 얼마인지는 언급하지 않겠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우)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경 라디오 成佛
디자인,조작 upgade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가요를 담은 SD 메모리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FM 버튼을 누르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FM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자동 주파수 검색됩니다.)
제품구성 성불라디오(가로12cm × 세로5.7cm × 두께2.5cm) + 4GB불경SD카드 + 1200AM베터리 + USB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불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한국 불교가 바르게 하고 있는지 다 같이 고민합시다

오래전에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있는 ○○ 스님께서 한국불교를 접한 후 귀국길에 하신 말씀이 "한국에는 불교가 없다." 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외국인 스님이 우리나라 큰 절에서 몇 년간 수행하다 산문을 나서면서 역시 "한국에는 불교가 없다." 라고 했다. 그 소리를 변방에 있는 소납도 알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크고 작은 절집을 지키는 큰 주인공들이 신문이나 방송 그 어디에서도 말이 없다. 오로지 수행차원에서 아직도 벙어리 ○년, 귀머거리 ○년, 봉사 ○년 중이신가? 분명한 것은 곰팡이는 햇볕을 쏘여야 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기에 그런지 부처님 전에 고해성사라도 해 보자.



* 부처님 저희 절은 돈 액수에 따라 큰 등, 작은 등 .....등을 구분해서 달아 주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월급쟁이 부전스님을 두고 공양주가 해 주는 밥을 먹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법당 바닥에 구멍이 있어 그곳을 통하여 밑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제 몸에서 광채 나는 사진을 찍어 그것을 나눠주고 간직하게 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인등, 108등, 사업성취의 등, 재수의 등, 합격의 등, 승진의 등 ..... 등을 달고 축원을 합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영가 천도 전문 도량으로 사주나 점을 보아 천도재를 지내게 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49일로서는 안되어 1029일 천도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신도들과 밥상을 같이 하지 않고 독상을 받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조상을 항시 모시는 뜻에서 고액을 받고 만년위패를 모시고 있고, 또한 권장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그림에 소질이 있어 신도들에게 신심을 고양시키고자 생년월일에 맞게 달마도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가피법회를 정기적으로 열어서 줄을 서게 한 다음 사례비를 받고 이마와 손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신도들에게 제 생일을 알려주고 해마다 찾게 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부처님 몸속 법당이 있어 그 곳에서 극락발원 티켓을 팔고 있고, 소지자에 한해 극락발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만 염주가 있어 그것을 일일이 잡고 도량을 돌게 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사주, 철학, 점, 관상, 수상, 명리..... 등등을 전문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을 원칙으로 사부정진을 천일동안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띠삼재(들삼재, 묵은삼재, 날삼재)를 풀이 및 기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삼재 해당되는 이들에게 남녀 속옷을 부처님 전에 올려놓고 그에 해당하는 부적을 방편으로 팔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생전예수재시 전생의 빚을 계산해서 재물과 돈을 부처님전에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큰 행사시 부처님 말씀인 대장경을 머리에 이고 도량을 돌게 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어쩔 수 없이 기부금확인서를 떼어주고 그에 대한 성의 표시로 등도 달고 보시를 받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신도가 많아서 품위유지상 그에 맞게 최소 00급 이상 고급 차를 타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000 다라니 기도를 00만 번을 했고,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풍수지리에 입각해서 집터 및 묏자리..... 등등을 봐주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해마다 산신제와 산신기도, 용왕제와 용왕기도를 꼭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옛 조사 00스님이 창건한 절로써 한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영험한 도량입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바위구멍과 탑 속에 금개구리가 있는데 보통 인연이 아니면 볼 수 없습니다.
* 부처님 저는 치매 예방차원에서 화엄경(화투)공부 및 카드놀이를 꾸준히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종단내 중책 소임과 관장, 원장 등등의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기업식으로 조직(총신도회, 관음회, 지장회, 반야회,보현회, 정진회.... 등등)이 잘 되어 있어 행사시 걱정이 없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우리 절 큰 스님, 우리 절 스님들 가르침만 따르게 합니다.
* 부처님 저는 선방 수좌로서 몇 십 안거째 정진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간화선이 최고라 평생 앉아서 화두 탐구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위빠사나 수행을 평생 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경내에 신비한 바위가 있어 그곳에서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경내에 돌덩어리가 있어 소원을 빌고 들었다 놓았다 합니다.
* 부처님 저희 경내에 우담바라가 피어 그것을 친견케 하여 신심을 증장시키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경내에 목탁 소리를 내는 소가 있어 불자들로 하여금 친견케 하고 있습니다. (전생에 스님이었다나.....)
* 부처님 저는 재를 지낼시 저승길에 노자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놓게 하고 절을 시키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제가 쓴 시를 고급스럽게 제작하여 절 입구에서부터 진열해 놓고 그것을 읽게 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부처님을 뵙기 위해 정기적으로 신도들과(○○암, 해외○○성지.... 등등) 바깥으로 성지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산과 들, 강을 찾아 물고기, 조류방생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경이란 경은 모두 염송하는 염불만 하고 있고, 제 염불소리에 노보살님들이 흥얼대기도 합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신심을 돋우기 위해 철야정진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00 문중에 00 상좌입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절 수행으로 108배, 1000배, 3000배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사부대중으로부터 큰 스님이란 칭호를 듣고 〈금모자 및 금색 옷〉을 입습니다.
* 부처님 저는 부처님 덕에 법사로서 미리 예약을 해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고비를 받는데 그 단위가 꽤나 큽니다.
* 부처님 저희 절 신도들은 일제히 유니폼을 갖추어 입고 법회에 참석토록 합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신도 카드 작성시 입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신도들과 더불어 술과 향도 합니다.
* 부처님 저는 평생 도량 불사에만 힘을 쏟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1년에 100일씩 수험생 합격 발원 기도 (사진 부착)를 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새해엔 꼭 운맞이기도(운수대통기도), 재수대통기도를 하고 있고 매일 축원을 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주지 진산식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성대히 치르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제가 대중 앞에 입장시 00 스님 입장하십니다 하며 전부 일어서게 하고, 그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합창단과 음악도 함께 합니다.
* 부처님 제가 수하고 있는 가사, 장삼을 비롯해 모든 승복이 꽤 값나는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불보살님의 가피 받은 손이 있어 그 손으로 기 치료도 해 주며 침도 놓고, 피도 빼고, 전신을 어루만져 주기도 합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큰 행사시 해신 굿과 살풀이굿도 합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소원을 빌고 동전을 바위에 붙이게 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에는 신비한 솥이 있어 손으로 힘껏 문지르며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죽비로 내방객들에게 등짝을 쳐주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는 선방이 최고다 하여 앉아 있음을 즐기다 보니 육신이 원활하지 못하고 잦은 병치레를 많이 합니다.
* 부처님 저는 불학에 매진한 결과 석,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 부처님 저는 권력과 명예를 가진 세속인들과 가까이 하다 보니 고급 스포츠인 골프나 스키..... 등등을 즐겨하는 편입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세계 최대 부처님을 모시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조성할 겁니다.
* 부처님 저희 절에 계신 부처님께 제일 화려한 금으로 도금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경내에 납골당과 수목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부처님 옆에 은사 또는 창건주 영정을 모시고 조석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 저희 절은 전각을 많이 지어 노전에 불전함을 두어 보시케 하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가르침은 경전, 조사어록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장사꾼과 무당들이 보는 잡귀 책에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행운과 명복을 비는 기복 불교, 소비성 불교와 비생산적인 불교는 샤머니즘에 준하는 것이므로 사라져야 할 것이다. 만약 이대로 가다가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아예 불교의 존립 자체가 있을지 의문스럽다. 당연히 법사가 입으로 〈중생은 재보시, 출가자는 법보시〉를 강조했으면, 누구보다 먼저 출가자는 무주상보시가 되어야 마땅하고, 또한 비구는 걸사라 했는데 걸사는 걸식으로 살아가며, 누더기를 의지해 살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것으로서 출가자는 청빈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중의 벼슬은 닭 벼슬보다도 못하다고 했거늘 왜 명예와 권력을 버리지 못하는가? 버리라고 법문은 많이 하면서..... 놓고 비우면 편안하고 고요해진다. 그리고 움직여야 한다. 4조이신 도신스님으로부터 시작되어 백장회해로 이어진 그 유명한 스님의 일화가 있지 않는가? 일일부작이면 일일불식(一日不作一日不食)이라. 이 말을 잊었는가? 이른바 수행자는 농사를 짓는 농선쌍수(農禪雙修)로서 이는 도신으로부터 비롯됐음을 바른 길을 가는 납자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산을 개간하여 밭을 만들어 수행자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데....

굳이 골프, 스키..... 등 고급스포츠를 해야 하는가? 백장스님의 선화(禪話)중에는 노동을 근본으로 하는 공안이 많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이정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불교수행의 목적은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깨달음의 삶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또 엄청난 돈을 들여 국내외로 부처를 찾으러 밖으로 밖으로 쫓아다니지 말고 내 안으로 살펴서 찾는데 주력하며, 그 막대한 차 기름 값과 경비로 오늘도 병원이나 달동네에서 수술비가 없어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데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것은 인간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인간방생을 생활화해야 한다. (이태석 신부, 테레사 수녀처럼) 우리 모두는 인간으로부터 배신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 물고기나 동물 그 어떠한 미물도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다.

제발 앉아서, 말 장난으로 대중을 호령하는 어리석은 지도자가 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행동하는 양심있는 지도자가 됩시다.



불.법.승 정법 실천도량
연 등 사
(선재불교대학)
경남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519-3 (충해공원내)
TEL. 055)633-6555